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Life History Narrative on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a Middle-aged Korean-Chinese
Migrant Woman

2021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채 은 희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Life History Narrative on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a Middle-aged Korean-Chinese
Migrant Woman

2021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 신 주 연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채은희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1년 2월 일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 문 초 록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채 은 희

이 연구는 고령 사회를 지나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한국 사회에서 현재 중년의 위치에 놓이게 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의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40세에서 60세 사이에 해당되는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이들의 노후준비 의미를 경험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에게 노후준비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를 건강의 상실, 노년의 빈곤, 소외와 외로움 등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연결하였다. 또한, 중년기의 정의와 함께 생애발달 측면에서 성취해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과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와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 내용은 ‘어린 시절’, ‘이주 시기’, ‘중년기’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이러한 생애 경험은 시간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성을 통해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생애 경험의 이해는 연구문제 2에서 다루어질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에 관한 경험적 의미해석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건강과 건강 상실의 의미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절약과 돈의 의미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서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여가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만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포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건강 상실은 피하고 싶은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치료에 전념할 것이며, 아프더라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미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근검절약하고 있었으며 친정부모와 같은 노후를 통해 보다 여유 있는 노년을 기대하였다. 또한, 노후준비는 개인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였다. 이들에게 여가는 현재로서는 사치에 불가하지만, 노후에는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 성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이다. 막연했던 미래 불안감이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유형의 확인이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자신의 노후준비 유형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아갔다는 의지의 확인이다. 셋째, 이질감을 넘어 동질감의 경험이다. 이들은 이주여성으로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늙어갈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넷째, 노인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자녀세대로 이어질 것의 염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후준비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하는 과업으로 여겼으며 자녀지원은 높으면서 자녀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건강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자신의 건강을 곧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포착되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노후준비에 관한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만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까지 인식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노후준비 문제의 사회적 관심의 요구이다. 국가의 자원만을 기대하기보다,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인 돌봄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여성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사회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에서도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개입은 배제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의 혁신이 고려된다.

이러한 제언은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잘 늙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주민과 정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대해 준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감수하겠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주여성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확대를 통해 노후를 바라보는 인간 본질에 대한 보다 숙고적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노후준비에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생애사적 내러티브.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v
표 목차	vii
그림 목차	vii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7
3. 연구 동향	10
II. 이론적 논의	18
1. 노인문제와 노후준비	18
1.1. 노인문제	18
1.2. 노후준비의 필요성	24
2.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34
2.1. 이주여성의 특성	34
2.2.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특성	38
3. 중년기 이주여성의 생애발달과 노후준비	49
3.1. 중년기의 정의와 생애발달	49
3.2.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와 노후준비	55
4. 소결	60
III. 연구 방법	64
1. 연구 방법 개요	64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73

2.1.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	73
2.2. 연구참여자 특성	76
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81
3.1. 자료 수집	81
3.2. 자료 분석	86
4. 연구 윤리	91
IV.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삶’ 이야기	94
1. 연구참여자 A: ‘내 삶의 중심은 바로 나’	95
1.1. 어린 시절	95
1.2. 이주 시기	97
1.3. 중년기	98
2. 연구참여자 B: ‘빛지지 않고 순응하며 사는 삶’	101
2.1. 어린 시절	101
2.2. 이주 시기	103
2.3. 중년기	104
3. 연구참여자 C: ‘잡초와 같이 질긴 인생’	106
3.1. 어린 시절	106
3.2. 이주 시기	108
3.3. 중년기	109
4. 연구참여자 D: ‘늘 깨어 있는 삶’	112
4.1. 어린 시절	112
4.2. 이주 시기	114
4.3. 중년기	115
5. 연구참여자 E: ‘신앙, 내 삶의 의미’	118
5.1. 어린 시절	118

5.2. 이주 시기	120
5.3. 중년기	121
6. 소결	124
V.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 노후준비의 의미	129
1. 신체적 노후준비	134
1.1. 건강의 의미	134
1.2. 건강 상실의 의미	141
2. 경제적 노후준비	150
2.1. 절약의 의미	150
2.2. 돈의 의미	159
3.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168
3.1. 소외와 외로움의 의미	168
3.2. 여가의 의미	175
4. 소결	183
VI. 결론	187
1. 요약	187
2. 논의 및 제언	191
참고문헌	201
ABSTRACT	211

표 목차

<표 I-1> ‘노후준비’ 연구 동향 분석 내용	10
<표 II-1>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38
<표 II-2> 결혼이주민 거주 지역별 현황	39
<표 II-3> 결혼이주민 성별 및 출신국 현황	39
<표 II-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43
<표 II-5> 중년기와 노년기의 주요 발달내용	52
<표 II-6>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53
<표 II-7>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55
<표 III-1> 연구참여자 특성	78
<표 III-2> 심층면담 질문지 개요	81
<표 III-3> 심층면담 개요	84
<표 V-1> 연구참여자 노후준비 특성	130
<표 V-2> 노후준비 의미에 관한 내러티브	132

그림 목차

[그림 II-1] 노후준비 유형의 상호작용	32
[그림 III-1] 내러티브 탐구 모형	66
[그림 III-2]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모형	71
[그림 III-3] 내러티브 탐구 자료 분석 모형	87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의 출현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적용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새롭게 태어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는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 빠른 고령화에 더딘 저출산의 문제, 국민 고학력의 문턱에서 직면하는 청년실업의 딜레마, 전통적 결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소외된 고령의 미혼 남성들의 욕구 좌절의 문제 등은 인구감소, 고학력으로 인한 일자리 선택의 제한성, 인간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결혼의 문제 등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내부 자원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언제부터인가 외부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중 특히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의 출현은 한국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 안에서의 차별과 편견 문제는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초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대거 유입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의 이주여성은 그 국적과 영역을 확장하며 국민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윤혜미, 2009: 87). 2019년 12월말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체류외국인의 수가 25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였을 때, 그 중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주민’은 16만 6천여 명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전체 체류 외국인 중 7%에 가까운 수치에 해당된다. 국적으로는 절반 가까운 수가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결혼이주민의 성별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0). 1990년대 초 유입 당시 20~30대였던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 안에서 중년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 중순을 기준으로

14%를 초과하며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가 되었다. 이와 함께 2026년 미래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곧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통계청, 2020). 이렇듯 사회의 고령화는 다양한 노인관련 문제의 출현과 함께(이정훈, 이한우, 이옥자, 2014; 김정희, 박지영, 2015)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고령화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에 더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농촌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문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 열악한 고령의 일자리 문제, 황혼 육아 및 황혼 이혼 문제, 독거노인과 고독사(孤獨死)의 문제, 노년의 여가와 성(性)에 관한 문제 등이 대두되어 나타나고 있다(제정임, 2013). 이에 제정임(2013: 7-8)은 현재의 노인세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일제의 압제와 전쟁의 잣더미에서 배고픈 성장기를 보냈고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노후준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현재의 노인세대는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다.....[중략].....가난한 노년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밥벌이의 구차함’에서 놓여나지 못했다.” 이는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문제와 노후준비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5)에 따르면,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12.5%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 늙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현대의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문제 24.4%, 외로움 13.3%,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11.5%, 배우자 등 주변의 주요타자의 사망 영향이 5.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측면의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자살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늘어나는 노인의 수만큼 늘어나는 노인문제는 사회비용 손실이라는 문제와 연결되며(남기민, 최화강, 2009),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른 노후준비가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으로(김미령, 2008: 35),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의 노화 현상에 대비하여야하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노인 스스로가 성공적 노후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은(박창제, 2008) 사회의 성공적 노화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홍영준, 이정훈,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노인들은 높은 빈곤율과 함께 그에 대한 대비의 미흡으로 성공적 노화의 전제조건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이정훈, 이한우, 이옥자, 2014).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연구들은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경제적 노후준비(박창제, 2017; 허은진, 2017), 여가·심리적 노후준비(방영숙, 김준경, 2016; 정은경, 김종근, 2017),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이남, 한정란, 2014; 인은영, 김찬우, 2015; 이경준, 송희경, 2016; 정순돌, 박애리, 2016)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대상은 노년기나(신근영, 2016; 박창제, 2017; 허은진, 2017; 송기영, 2018), 중년기가 대부분이었다(정순돌, 박애리, 2016; 변진숙, 권찬호, 2016; 이남, 한정란, 2017; 심의경, 박연진, 2017; 김연화, 황종규, 2017; 양재혁, 김경렬, 2017; 정은경, 김종근, 2017; 성영애, 2018).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노년기에서 이루어지는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보다 중년기에서 다루어진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 그 중 한국의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한다(이여봉, 2012; 강향미, 구종희, 2014; 최영준, 2015; 변진숙, 권찬호, 2016; 정은경, 김종근, 2017). 채은희와 박미숙(2019)의 연구에서도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중년기가 포함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노년기가 아닌 중년기에서의 노후준비는 노후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중년기부터 시작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김양이, 이채우, 2008). 이 중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는 중년의 시기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년기의 노후준비는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현식, 이선형, 최은희, 2010). 염주희와 김세진(2013)도 중년기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정서적 노후준비가 노년기 노후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중년기와 노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년기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노년기를 맞는다면 빈곤과 건강 상실 등 불안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개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라도 중년기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함을 스스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음이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중년기에 해당하는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는 어떠한가.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몇 안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미와 송선희(2014)의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고, 송선희(2016)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다루었다. 반면, 성지혜(2015)는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들은 현재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노후준비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함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노년을 기대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와 국가에 대한 지원 기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녀나 국가에 기대고 있음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 데다,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은 물론, 인간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룬 질적연구의 내용이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채은희, 박미숙, 2019).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결과는 그 동안 여성가족부(2019)에서 제공하던 2009년, 2012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2018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는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이들 이주여성들에 대한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게 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현재 중년기를 맞이한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질적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 유입 당시 20~30대이던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이 다른 체류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머물거나 어찌면 이 땅에서 국민의 배우자로 살다 생을 마감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들의 노후준비는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처럼 한국 사회 안에서 이들의 위치가 취약 계층인 여성 내부에서조차 좀 더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취약성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노후준비’라는 발달과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 중년기가 되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지혜(2015)의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 다루어질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주배경 및 발달단계시기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정주민 중년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발달과업이 요구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의 노후준비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수준이 높은 반면, 차별에 있어서는 더욱 민감한 특성이 확인되고 있다(김영순 외,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초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유입이 활발했던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이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됨을 상기하고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점을 따르는 노후준비의 의미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연구참여자 개인의 생애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를 활용하였다. 생애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확인된 노후준비 의미해석에서 탐색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즉, 생애사에서의 개인 삶의 경험이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이라면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경험적 탐구는 과거에 대한 반추는 물론, 노후준비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유추와 성찰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얻은 결과 내용은 이들의 현재 노후준비 수준을 확인함은 물론, 미래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생애발달 관점에서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간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망심리학자인 Kübler-Ross(1975)는 다음과 같은 말로 미래 예측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쉬워지지만 곧 맞이할 아침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하루하루가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된다.” 중년기에서 직면하게 되는 노후준비에 관한 담론은 그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라면 충분히 혼란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성찰은 중년기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하는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을 다룰 때 마땅히 거쳐야하는 과정 중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연구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준비 인식을 확장하고 미래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야말로 미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잘 늙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중년기에 해당하는 중국동포 출신 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다루고자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와 내러티브 탐구가 활용되었다. 우선 생애사를 통해서 는 이들의 어릴 적 경험, 이주 전과 후의 경험, 그리고 중년으로서의 현재 경험을 시간성을 통한 내러티브 안에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생애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하는 노후준비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의미 해석하고자 한다. 즉, 과거와 현재적 관점에서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을 따르는 노후준비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도출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반추와 미래에 대한 유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개인 경험에 대한 내용을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으로 이해하며 ‘관계적 탐구(relational inquiry)’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사람과 특정 사건의 관계를 중시한다(김영순 외, 2018: 245).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이야기성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관계적 책임성’을 부여받게 되는데(Riessman, 2008),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을 활용해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가 “과거의 경험적 토대를 가지고 경험적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였을 때(Clandinin & Connelly, 2000: 2), 과거의 경험적 성찰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감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방법론으로써 내러티브 탐구가 가장 적절한 연

구방법 중 하나가 된다. 내러티브 탐구가 인간 삶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중년기 발달과업 중 하나인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다룸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삶에서 노후준비의 의미는 무엇인가?

상기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와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를 건강 상실과 노년의 빈곤, 그리고 소외와 외로움 차원에서 고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후준비 유형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탐색을 통해 각 유형의 상호작용성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여성에 관한 특성을 확인하고 중년기 이주여성의 생애발달 측면에서의 고찰을 위해 먼저 중년기 정의와 함께 중년기에 필요한 생애발달과업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확인과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이론적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III장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될 내러티브 탐구와 생애사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생애사적 내러티브 모형을 통해 노후준비에 관한 의미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 연구참여자의 특성,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IV장에서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로써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 각 개인의 생애사 개요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어린 시절, 이주 시기, 현재 중년기로 범주화하여 시간성과 관련된 ‘삶’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생애 경험

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V장의 연구문제 2의 결과로써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 각 개인의 내러티브를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범주화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노후준비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내용 확인을 통해 노후준비 인식과 기대, 그리고 노후준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확인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 낸 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 탐색은 물론, 사회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시작으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후속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3. 연구 동향

노후준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채은희와 박미숙(2019)이 ‘노후준비’를 키워드로 하였을 때 나타난 국내학술지논문 가운데, 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유형별, 노후준비 유형별 등 5가지 분석 조건을 설계하고 이 조건에 부합되는 최종 문헌 176편을 선정해 분석 자료로 삼은 내용이다.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 조건에서는 혼성(남녀)을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대별’ 조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년기가 전체의 9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상별’ 조건에서도 이주민보다는 정주민이 많았지만 정주민 집단 중 일반인 다음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혼자를 포함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주민 집단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인과 북한이탈민, 그리고 결혼이주민 대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하였고, ‘연구방법유형’ 조건에서는 양적연구가 90%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질적연구방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함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끝으로 ‘노후준비 유형’ 조건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혼합된 혼합형 유형이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 내용을 다음 <표 I-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1> ‘노후준비’ 연구 동향 분석 내용

* 해당 년도 및 문헌 편수 : 2013년~2018년 11월 (176편)

분석 조건	내용	편수 (%)
성별	남녀 혼성	149편 (84.7)
	여성	22편 (12.5)
	남성	5편 (02.8)

세대별	중년기		103편 (58.5)
	전 세대		33편 (18.8)
	노년기		26편 (14.8)
	중년기/노년기		9편 (05.1)
	청년기/중년기		5편 (02.8)
대상별	정주민	일반인	145편 (82.4)
		장애인	21편 (11.9)
		이혼자	2편 (01.1)
		한국인/외국인	1편 (00.6)
	이주민	결혼이주민	3편 (01.7)
		북한이탈민	2편 (01.1)
한국인 재외동포		2편 (01.1)	
연구방법 유형별	양적연구		167편 (94.9)
	질적연구		9편 (05.1)
노후준비 유형별	전반적		102편 (58.0)
	신체적		5편 (02.8)
	신체/경제적		2편 (01.1)
	신체/사회·정서적		3편 (01.7)
	경제적		45편 (25.6)
	경제/사회·정서적		5편 (02.8)
	사회·정서적		14편 (08.0)

※ 출처 : 채은희, 박미숙(2019).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표 I -1>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별로는 혼성(남녀)이, 세대와 대상별로는 중년기면서 정주민, 그리고 양적연구를 통한 전반적 유형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이점으로는 남녀 혼성을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았던 점과 몇 안 되는 질적연구지만, 그 안에 이혼자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있음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채은희, 박미숙, 2019).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연구도구로 인식하고 질적연구방법의 확대와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손현승(2017)의 질적연구에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중, 남성의 미래이야기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심층적 경험이

해를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시간성, 사회성, 공간성)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4가지 주체로서 노후불안, 삶의 의미, 희망과 절망, 내세관이 탐색되었고 탐색된 이야기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며, 자기 삶의 성찰을 이루어냈다는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 내러티브 탐구가 양적연구로, 또는 다른 질적연구방법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내면의 성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후준비 인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성찰하는 것으로 미래를 도모해 나가야한다고 보았을 때, 성찰이야말로 지극히 미래 지향적인 반성인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채은희와 박미숙(2019)의 연구가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내용을 탐색적으로 다루었다면, 다음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심층적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준비 유형은 크게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후준비 유형은 독립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가장 최근의 연구 중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복합적으로 다룬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써 송기영(201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에 반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노후준비 중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만족도의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노인들이 만족하는 삶이란 돈 많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몸 건강히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보람임이 확인된 결과가

다.

이미영(2017)은 중년기에 해당하는 한국인 정주민과 뉴질랜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년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만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질랜드 재외동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더 높은 주관적 행복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중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은영과 김찬우(2015)가 중년의 한국인 정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노후준비 중 경제적 노후준비에 가장 큰 비중으로 두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았다. 이와 함께 한국인 중년층이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로 나타냈다(박현식, 이선형, 최은희, 2010). 나지나 외(2010)도 재정적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자만이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능함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가장 큰 가치를 둔 그만큼 현재의 재정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이여봉(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년의 경우, 노후준비는 물론, 그 자녀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인 반면, 그렇지 못한 중년은 노후준비도, 자녀에 대한 지원도 잘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나타났다.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을 대상으로 한 박현식(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교민들은 주로 한국의 IMF시대를 전후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한 세대와 최근 자녀교육문제로 이주한 비교적 경제적 능력을 갖춘 세대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노후준비정도는 한국인 중년층과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이들은 이미 경제적 여유를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독일 교민을 대상으로 한 박현식과 최옥자(2012)의 연구에서도 이

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비해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연구의 결과내용도 필리핀 교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슷했다. 특히 독일 교민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반면, 타지생활로 인해 자녀에의 의존보다 주변의 이웃, 동포, 친구 등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보다,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미래 불안으로 다른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신경 쓰지 못하는 한국인 정주민 중년층들의 현실적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경준과 송희경(2016)의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노후준비를 위해 이들은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 규칙적 운동, 음주 자제, 금연, 건강식품 복용, 충분한 수면,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 가계의 총 자산 계산하기, 절약, 저축, 투자, 창업 등의 내용이 있었다. 또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위해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며,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종교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노후준비 수준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순돌과 박애리(2016)의 연구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이들은 신체적 노후준비로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 규칙적 운동, 음주 자제, 금연, 건강식품 복용, 충분한 수면 등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정보수집, 가계의 총자산 계산, 절약, 저축, 투자, 창업이 나타났고,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는 행사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자주 관계를 맺고, 가족과 마음을 터놓으며, 종교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보다 손자녀 돌봄에서 벗어났을 시 비로소 노후준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각각의 요소에 포함되는 노후준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금주와 금연을 꾀았으며, 건강보조식품 챙겨 먹거나 충분한 수면, 정기적 건강검진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가계 총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여,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 및 창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거나 그 외에 보수가 되는 일을 희망하고 있었다. 끝으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의 기회를 갖고, 가족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운동이나 여가,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남과 한정란(2014)이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양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취업여성은 은퇴를 ‘삶의 연속’으로 보고 은퇴 전후의 삶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반면, 비취업여성은 은퇴 전후의 삶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취업여성은 스스로의 경제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주력하는 반면, 비취업여성은 경제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노후준비보다는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변진숙과 권찬호(2016)의 연구에서도 취업유무에 따라 사회적 노후준비 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이 사회참여(봉사), 문화여가활동, 사회적 관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여성은 문화여가활동, 사회참여(봉사), 사회적 관계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성별, 거주 지역, 취업유무, 생활맥락 등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 유형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의 경험, 현재의 노력, 미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 중 가장 선호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유형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인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김양이와 이채우(200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자신을 노인으로 자각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65~70세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역시 자녀와의 동거를 바라지 않고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준비성이 강하므로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성별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남성보다 강한 준비성으로 인해 여성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 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반적 노후준비는 고학력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금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비해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의 유무는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도 현재 경제적 여건이 잘 마련된 자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요구는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사회참여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강항미와 구종희(2014)의 연구에서 베이비부머들은 사회참여정도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참여는 노후의 정서적 준비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노후준비 유형에 있어 사회적 노후준비와 정서적 노후준비를 혼합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설명하는 경우의 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은희, 박미숙, 2019). 이 외에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노화불안, 나이, 수입, 종교 등이 확인되었다(주예심, 2014).

종합해보면, 중년의 한국인 정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필요한 노후준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현재 재정적 여유가 없는데다, 경제적 노후준비의 구체적 정보 또한 부재함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년의 한국인 재외동포 이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보다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들은 이미 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반면, 타지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년기 여성들은 손자녀 양육 유무나 취업 유무 등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도 노후준비 유형에서의 중요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연구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의 하위변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이해를 도왔다. 노후준비 유형의 하위변인 즉,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이론적 논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보기로 한다.

이 외에 몇 안 되지만 한국인 재외동포가 아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내용을 살펴보면, 중년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실태와 노후준비 영향 요인에 관한 내용(채은희, 박미숙, 2019)이 있으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는 이들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송선희, 2016), 또는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양적연구(문미, 송선희, 2014)가 존재했으며, 끝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경험에 관한 연구는 연구방법으로써 질적연구가 활용되었다(성지혜, 2015).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을 다룬 질적연구가 필요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노인문제와 노후준비

1.1. 노인문제

인간의 생애발달기능 중 노년기의 주요 발달내용(Papalia & Olds, 1998)을 살펴보면,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을 포함해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감퇴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전히 활동적이다. 또한 은퇴 이후 수입은 감소할 수 있지만 여가시간은 많아진다. 그리고 노년기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임을 상기한다면 곧 다가올 죽음에 대비하고 삶의 목적을 스스로 찾아야하는 과업을 안게 된다. 즉, 노년기의 기능적 감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노년기 준비는 노년기가 아닌 그 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년기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은 만성질환(89.2%)에 시달리고 있으며, 적지 않게는 노년기 우울감(33.1%)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절반 이상은 영양관리에 주의 및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여가 시간이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가의 질적 확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건복지부, 2015). 게다가 노인 중 9.3%만이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뿐, 대부분의 노인들은 주관적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건강 상실, 빈곤, 소외와 외로움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건강 상실

노년기는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질병이 이환될 확률이 높다. 즉, 전체 노인의 89.2%가 평균 2.6개 정도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종류로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순이었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만성퇴행성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장기간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의료비 증가와 연결된다(황성호, 이명숙, 이성국, 2011).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인의 치매 문제는 노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영향과 함께 사회비용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장숙량, 2015).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중앙치매센터, 2019).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등 OECD 회원국 전체의 치매환자 수는 2017년 1,870만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2050년엔 그 수가 2.2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 치매환자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OECD, 2018). 즉, 전 세계적으로 노인 치매로 인한 비용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었다. 특히 치매환자는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유광수, 2002).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대부분은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매우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지 않고 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비용부담은 물론, 부모를 시설에 버렸다는 죄책감과 시설에서 학대받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자, 2006).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만성적 부담은 자칫 가족 간 갈등은 물론, 노인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내 장기간 돌봄으로 인해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문제 중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노인의 자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노년기 우울증은 2011년 약 17만 5천여 명에서 2015년 22만 4천여 명으

로 불과 4년 사이 약 28%의 증가폭이 확인되고 있다. 즉, 연평균 6.4%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그러나 통계상 드러나지 않은 숫자를 감안한다면 그 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년기 우울증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우울증은 자살관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9년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자살자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실제로 보건복지부(2015)의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전체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상실, 소외와 외로움 등으로 자살관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노년기에서의 건강 상실은 단순히 노인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 될 수 있는 만큼, 100세 시대의 초고령화 문턱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에서의 건강 상실은 발달과정 측면에서 보자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과정 상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당연한 과정 중 하나로 여기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발달심리학자 Erikson(1950)은 자신의 늙음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과정 중 하나로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숙고적 노력과 함께 노년기 질환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노년의 빈곤

‘빈곤(poverty)’의 사전적 정의는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으로 나타나며, 가난의 사전적 정의로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이다(국립국어원, 1999). 빈곤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사회문제이며, 일

반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 또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일부의 학자들은 빈곤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을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는데(김교성 외, 2008: 299-300), 이 중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은 전체 사회 구성원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는 점과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 생활수준에 근거하여 빈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8.8%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노후에 경험되는 빈곤은 질병, 고독, 역할상실 등을 통한 절망과 우울의 매개로써 자살관념을 갖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학진, 2012).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살관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15),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 상실, 외로움, 관계 변화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Pearlin(2013)은 스트레스 과정이론을 통해 빈곤과 스트레스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노인의 빈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신체적·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은 노년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28.9%가 생활비보충, 용돈마련 등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나 전체 노인의 9.7% 정도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건강 상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3.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월세를 포함한 주거 관련 지출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 의료비, 식비, 경조사비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개인 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에 의지하는 비중은 2004년 14.1%

에 불가한 반면, 2014년 31.9%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다시 말해, 개인의 사적연금보다 기초연금과 같은 국가공적연금에 의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결과이다. 이렇듯 노년기의 경제적 기반이 전적으로 국가지원에 의지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노년기 불안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노인의 빈곤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빈곤에 주목하여야한다. 여성이면서 노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성지혜, 2015), 그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도 남성보다 여성이 빈곤에 처할 확률은 독신가구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학력일수록 그 정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김정석, 2011). ‘여성의 빈곤화(feminization of poverty)’는 빈곤여성의 증가현상을 통칭하는 것으로,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임이 확인된 결과이다(박영란 외, 2003). 그러므로 빈곤의 취약 집단은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의 빈곤의 취약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여성 내부에서조차 좀 더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성지혜, 2015). 다문화가구의 평균소득이 정주민가구의 소득보다 낮은 상태이고 이들의 인적 지지기반이 부족한 사회 현실에서 사회·경제 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주여성들이 여성 내부에서조차 더욱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즉, 이들은 ‘이주배경’이라는 취약성을 안은 채 우리 사회 안에서 적응해 살아야하는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3) 소외와 외로움

노인 단독가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4년에 전체 중 55%를 차지했다면, 2014년 67.5%로 10년 사이 12.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증가폭은 미래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인의 이미지는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자녀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되었다면(제정임, 2013), 현재

의 노인세대는 농촌보다 도시 거주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즘 농촌의 상황은 자녀들의 고향 방문이 뜸한데다 농촌의 신경제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의 농촌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도시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들의 소외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독거 비중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와의 동거율은 날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5). 노인 단독가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자녀의 결혼, 자녀의 타지역 거주, 개인생활(부부생활) 향유, 지존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로 나타나지만, 독거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아플 때 간호문제, 심리적 불안감 등이 남아 있다. 반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의 입장에서는 경제능력 부족과 수발로 나타났으며, 자녀 입장에서는 가사도움제공과 경제능력 부족으로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현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생하지만 어느 한 쪽에서 더 이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라면, 결국 한 쪽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말 것이다. 즉, 노부모가 더 이상의 가사도움제공이나 경제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녀로부터의 소외는 더욱 불가피할 수 있다.

전체 노인의 97.7%가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6.6% 정도만이 주1회 왕래하거나 18.3%는 주1회 연락만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친구와 주변의 이웃과의 왕래는 79.1%로 가장 높았으며, 친인척과의 왕래는 그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의 노인들은 자녀지원에 있어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노인의 78.3%가 70세 이상을 노인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1.4%이고 이 중 43.8%는 배우자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나 노인 부부의 73.0%는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신뢰관계도 잘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노인소외와 외로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이 자살관념을 갖는 이

유 중 하나로 ‘배우자 사망’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소외와 외로움은 자칫 노인의 ‘고독사(孤獨死)’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소외된 노인이더라도 앞의 결과에서처럼 자녀보다 친구나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노인의 수가 더 높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에게조차 소외된 노인이라면 고독사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우리는 주변의 경험이나 미디어를 통해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1.2. 노후준비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현대화의 여파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출산의 문제와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관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며(박창제, 2008),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한 고른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양이, 이채우, 2008).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은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년기 생활을 위한 과정 또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에 Gross, Crandall과 Knoll(1973)은 건강과 소득하락, 은퇴 후 직면하는 고독 등의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함으로써 미래 노후생활의 충격을 완화하고 노년기가 되었을 때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노후준비를 정의하고 있다(석상훈 외, 2011, 재인용). 이처럼 노후준비는 신체적 측면에서의 건강 상실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득 하락, 그리고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소외와 외로움에 대처해 나아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와 관련된 문제가 노년기에 직면될 경우, 바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중년기부터 미리 대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배문조, 2011). 예를 들어, 노년기에 경제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인은 노년기 빈곤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충분한 건강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미연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년기에서의 건강 상실과 대인관계 상실은 가족 갈등 및 고독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개인적·사회적 활동이 절정에 달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의 의미에서 가족 안에서의 역할 변화는 물론, 은퇴를 통한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을 안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주예심, 2014).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적응과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고찰 등의 과업을 통해 중년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준비가 요구된다(이소정, 2009). 이에 노후를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등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김윤정, 최윤희, 2004; 강유진, 2005; 이정화, 2009; 전귀연, 배문조, 2010), 이와 별개로 여가준비(배문조, 2009; 정은경, 김종근, 2017)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관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내용을 구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노후준비

한국인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으로 ‘건강 상실’이 꼽혔다(이소정, 2009). 하지만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을 위해 준비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고, 저임금시장에 장기간 속해 있었으며, 고용불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노후준비에 관한 신체적 준비는 더욱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은영, 김찬우, 2015).

박은숙(1997)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행위가 노후생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건강이야말로 노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Maria 외(2012)도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육체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도 육체적 활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성공적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나타났다(주예심, 2014).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 질환의 대부분은 중년기 취약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고령이 될수록 신체를 포함한 각종 기능저하로 인해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경우에 따라 행동능력의 약화로 인해 타인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노인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이 됨은 물론, 노후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신체적 문제는 개인 삶의 만족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최혜경, 2000). 이러한 건강 상실의 문제는 노동력 상실을 동반한 사회적 활동 범위의 축소와 함께 고독 등의 문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생 전반에 걸쳐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관심을 통해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박현식(2013)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노후준비 내용을, 이경준과 송희경(2016)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설문 문항을 통해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두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문항내용을 참고하여 각 노후준비 유형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자칫 이해하기 힘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식하지 않는다.

-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을 한다.
-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다.
- 성인병에 대한 주의를 위해 지방이나 당분의 섭취를 적게 한다.
- 노후의 건강 준비를 위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게 앓는다.
-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 피곤하면 곧 휴식을 취한다.
-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고 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만성 질환을 조절하거나 예방한다.
- 스스로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우리 속담에 ‘무병이 장자’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곧 부자와 같다는 뜻이다(엄병섭 외, 1996). 이와 비슷한 말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는 말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반면, 건강하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빗대어 이른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나 타자의 안녕을 빌 때 가장 먼저 신체적 건강을 기원한다. 신체적 건강이야말로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됨을 이해한다면, 노후준비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생활에 필요한 것을 예측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준비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된다(유인순, 최수일, 2012).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는 건강한 신체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노후준비 유형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어서 옷 한 벌 가져갈 수 없다지만, 적어도 삶을 살아내는 동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의 정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등 각종 연금이나 예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장년기부터의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와 자녀교육, 노부모 부양 등과 같은 문제의 직면은 정작 이들의 사적연금을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인은영, 김찬우, 2015).

영국의 Anderson 외(2000)는 30~49세 중년을 대상으로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을 때, 적절한 재정적 준비는 은퇴를 편안하게 수용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organ과 Eckert(2004)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이전 세대들보다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본인의 적극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정도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본인 스스로 해야 함을 인식하지만 그 행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님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박창제, 2008).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 외에 매달 저축을 한다.
-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타자한다.
- 창업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역모지기¹⁾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이 있다.
- 민영의료보험, 개인연금과 같은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1) 역모지기: 모기지가 주택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는 것이라면, 역모지기는 주택을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를 얻는 제도이다. 즉,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19). 그러나 각 해당 연구에서는 '역모지기'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이에 따른다.

- 노후를 위해서 지금 절약하며 생활한다.
- 노후의 안정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기른다.
- 노후의 생활비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 노후에 살 주택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 아플 때는 언제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노후의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노력한다.

보건복지부(2015)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방법으로 절반 이상이 ‘본인 스스로’ 해야 함을 인식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국가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이를 보더라도, 국가 노후보장 제도의 불안정성과 가치관 변화로 인한 자녀의 부모부양의무 부재는 이들의 노후준비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노후준비를 국가나 자녀에게 의존함을 ‘위험’으로 간주한 바 있다.

3)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부가구, 노인단독가구 등의 출현은 노인 소외감을 더욱 강화시키며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의 은퇴, 사별과 함께 가족, 친구, 이웃 간 소통의 부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정화, 2009). 한 예로, 일본의 한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 후 9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 한 동안 일본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제정임, 2013: 172). 만약 이 노인이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만 유지했더라도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주민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원봉사자를 파견

하고 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고독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신체적, 경제적 노후 준비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독사의 원인으로서는 주로 경제적 이유, 가치관 갈등, 독신으로 지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현대 사회 문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이 나타나고 있다(김정희, 2018).

홍현방(2005)의 연구에서도 사회활동이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꾸준히 주변의 중요 타자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Crosnoe와 Elder(2002)도 사회활동이 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됨을 설명하며, 사회와의 교류와 관계 유지는 만족스러운 노년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이에 Antonucci와 Takahashi(2004)는 사회적 관계망의 'Convoy Model'을 제시하며 개인이 감정적으로 친밀한 무리(Convoy)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공적 노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뿐 아니라 친구, 동료, 단체 회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행사에 참여한다.
-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단체에 참여한다.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 사람들과 자주 관계를 맺는다.
- 나는 현재보다 미래에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 사후에 천당이나 극락 같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 배우자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

- 마음을 편안히 가려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한다.
-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늘 참여하고 있다.
- 근래에 와서 나의 장점과 능력개발을 위해 힘쓴다.
-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주도록 노력한다.
- 가족상실에 적응하려고 한다.
-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
- 노후의 취미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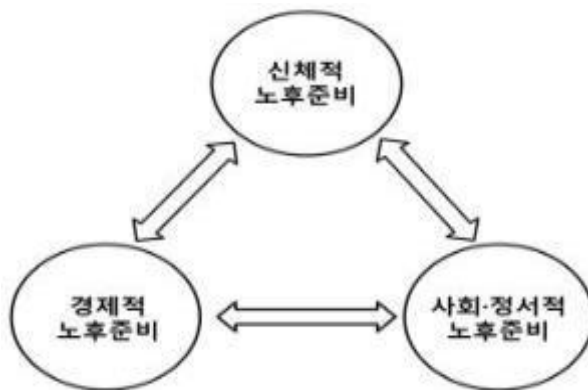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김용덕, 2004). 우리는 주변에서 비록 조금 덜 건강하거나 조금 덜 가졌지만, 서로의 마음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들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심리적·정신적 건강이 신체 건강과 직결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유서현, 2015),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의 안정적 확보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준비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마음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다면 이 또한 인간 삶의 만족감을 낮추는 결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은영과 김찬우(2015)도 비록 경제적 노후준비는 덜 되어 있더라도 원활한 대인관계와 건강한 신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만이 아니더라도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되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노후준비 유형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상호관계성을 형성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신체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전반적인 노후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적 노후준비의 참

여 가능성과 함께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기회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갖추어져있어야만 건강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면, 이는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사회참여의 기회도 활발해 질 수 있고, 주변의 중요 타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는 마음의 안정이 신체적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은 상호관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노후생활의 질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상호작용 내용을 다음 [그림 II-1]과 같이 나타내 보았다.



[그림 II-1] 노후준비 유형의 상호작용

이와 같이 인간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즉, 신체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정서적 요소들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와 같이, 노후준비에 있

어서도 이 요소들의 고른 적용은 노년기의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년기가 인간 삶의 연장이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성실하게 대비하는 것은 중년을 넘어 보다 이른 시기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가을걷이에서 얻은 풍요로움을 일정부분 남겨두는 것과 같이, 중년기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노후준비야 말로 얼마 남지 않은 노후생활의 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강조는 결코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기는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2.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2.1. 이주여성의 특성

윤혜미(2009)는 우리나라의 이주여성에 대한 특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첫 단계는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를 기점으로 한 중국동포 출신 여성들이 대거 유입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일본, 필리핀, 중국의 한족 여성들이 특정 종교의 신도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경우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이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대거 유입한 경우이다.

각 단계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단계에 해당하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언어장벽이 없다는 이점이 있고 비교적 빠르게 한국 사회 안에 적응하며 취업에서도 유리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취업·잠적함으로 결혼생활의 해체 등 부작용의 문제가 초래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유입은 종교성이 강함으로 인해 특정종교 신도들끼리의 국제결혼 중 특히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비교적 적응수준이 높고 생활수준과 교육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낮은 귀화율은 물론, 지원사업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인 사설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에 가까운 이들의 이주는 다른 결혼이주민들에 비해 가장 많은 염려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의 국적을 가진 이들은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은데다 한국 남편에 비해 연령차이도 평균 10살 이상 낮아 언어문제, 문화적응의 차이, 세대차이, 정보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처음 유입 당시 20~30대이던 이주여성 중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년의 위치에 놓이게 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 외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흔히 다문화가정이라고 지각하였을 때, “다문화가정=한국 농촌으로 시집 온 동남아 여성”이라는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주여성 중 40%가까이가 중국 출신이며, 이주여성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0). 이에 정기선(2008)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 별 이민생활 적응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의 경우 결혼연령이나 부부연령차에 있어서는 한국인들끼리의 일반적인 결혼형태와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며, 초혼율은 다른 결혼이주여성들보다 조금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동포의 경우 결혼연령은 높은 편이고 재혼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다른 출신국의 아내들은 남편과의 연령차가 매우 높았는데, 특히 베트남 여성은 남편보다 17살 정도 어린 경우가거나 아내는 초혼인데, 남편은 재혼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적응수준을 살펴보면, 일본 아내와 필리핀 아내들은 한국인 남편과의 문화차이를 크게 지각하였으며, 부부갈등은 높고 부부관계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가족생활스트레스가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이 단지 시간(체류기간)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 생활스트레스가 생애주기 전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사회활동 면에서 어느 정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기선, 2008). 이러한 결과로 보더라도 먼저 들어온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재 중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생활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들의 경험이 후에 나타날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경험에 관한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 중 여성가족부(2019)에서 제공하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생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혼인상태는 73.5%가 유배우이고, 이혼 및 별거는 16.4%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4.31점으로 2015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식습관과 의사소통에서의 문화적 차이 경험은 줄어든 반면, 가사분담방식과 저축 등 경제생활에 대한 부부간 문화차이 경험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성격차이, 자녀문제, 경제문제, 언어소통의 문제 등을 경험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중 69.5%이고 고용률은 66.4%로 정주민에 비해 결혼이주민 및 귀화자의 고용률이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실업률은 4.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직종으로는 단순노무 종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95% 이상이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중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정주민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건강상태가 정주민보다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5점 기준 3.68점으로 정주민(3.31점)보다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관한 생애사적 접근을 다룬 이정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출신국가의 국제결혼 여성과 다르게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동경과 같은 외적 동기보다, 종교적 신념과 사랑을 위해 선택한 내적 동기를 통해 결혼생활전반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결혼생활 초기 적응에서 남편의 적극적 도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으며, 사회생활 적응에서는 사회의 지지적 기반이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한국의 정주민 일반가정에서의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의 문제, 맞벌이 부부로서의 문제 등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 인간 삶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은하(2013)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일에 관한 내러티브를 탐구를 활용한 질적연구에서는 처음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두 나라의 상이한 문화·관습의 차이와 시댁의 지나친 간섭의 경험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후회의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가족 미래를 위한 저축,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연결되며 현재의 고단한 삶에서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작용되었다.

이에 배경희(2013)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결혼생활에도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회참여형태로는 경제, 정치, 지역사회활동, 여가, 학습, 종교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김옥남과 김영화(2009)가 결혼이주여성의 재사회화 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처음 불안과 고립을 느끼는 단계에서 혼돈과 갈등을 겪는 단계를 지나 환경에 대한 수용력을 확장하고 주변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의 경험은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주변의 주요 타자들로부터의 긍정적 수용과 사회적 지지는 이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유나(2015)의 결혼이주여성 5명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 됨’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이들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경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남편과의 만남, 결혼,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의 경험이 도출되어 나타났으며, ‘어머니 됨이 가져다 준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의 문제, 자녀교육기관 적응의 어려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자녀양육에서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이 경험되어 나타났다. ‘어머니 됨을 통한 미래 삶의 구상’에서는 어머니 됨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시간을 통해 미래 한국인 어머니로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삶의 기대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만 한국 생활의 적응과정 없

이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과 남편의 불안정적인 소득으로 인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이주여성들은 각각의 다양한 사연과 이유로 한국 사회 안에 진입해 들어오지만, ‘이주배경’이라는 이들의 프레임은 적응의 문제점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 가족 집단과 지역 사회의 지원, 원만한 대인 관계 및 사회활동이 전제된다면,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연결되고 있다.

2.2.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특성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주민은 2019년 12월 현재 16만 6천여 명으로 전월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법무부, 2020). 법무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나타난 가장 최근의 연도별 현황을 다음 <표 II-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1>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9,206	166,025
전년대비 증감률	-	0.4%	0.5%	2.0%	2.4%	4.3%

※ 출처: 법무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표 II-1>과 같이 결혼이주민의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과 2019년엔 그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된 이래, 당시 122,552명이던 결혼이주민은 2019년 현재 166,025명으로 약 26.2% 증가한 셈이다. 다음은 결혼이주민의 거주 지역별 현황이다. 한국 사회 유입 후 이들이 정착하는 지역 사회

거주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은 결혼이주민은 현황에서 제외되었다. 내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결혼이주민 거주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	경북	부산	전남
164,059 (100%)	48,227	28,100	10,977	10,670	9,618	8,094	7,455	6,713
	29.3%	17.1%	6.7%	6.5%	5.9%	4.9%	4.5%	4.1%
	전북	대구	충북	강원	광주	울산	대전	제주
	6,019	5,628	5,426	3,800	3,656	3,476	3,459	2,741
	3.7%	3.4%	3.3%	2.3%	2.2%	2.1%	2.1%	1.7%

※ 출처: 법무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표 II-2>의 결혼이주민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중 2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경남, 인천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 현황은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들이 전체의 53.1%로 가장 많음이 확인되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결혼이주민의 성별·출신국 현황을 다음 <표 II-3>에서 제시한다.

<표 II-3> 결혼이주민 성별 및 출신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계	166,025 (100%)	28,931 (17.4%)	137,094 (82.6%)
중국 (한국계)	60,324 (22,680) (36.3%)	13,539 (8,056)	46,785 (14,624)
베트남	44,172 (26.6%)	2,742	41,430
일본	14,184 (8.5%)	1,235	12,949
필리핀	12,030 (7.2%)	463	11,567
태국	5,130 (3.1%)	99	5,031

캄보디아	4,641 (2.8%)	369	4,272
미국	3,883 (2.3%)	2,801	1,082
기타	21,661 (13.0%)	7,683	13,978

※ 출처: 법무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표 II-3>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 성별로는 여성이 82.6%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김민정 외(2006)는 국제결혼에 있어 한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그 성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성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 내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선택할 때 이주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결혼이주여성’이라 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한 이주가 바로 국적취득과 같은 이민의 성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주민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민자’라는 용어의 사용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이 현재까지는 여전히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주민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기타, 일본,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이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결혼이주민의 국적이 매우 다양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민의 국적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음을 상기해야한다. 전체 중국인 국적자 중 한국계(중국동포) 이주민이 37.6%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법무부 통계월보(2019년 12월호)에 따르면, 혼인귀화자 누계는 현재까지 135,056명으로 집계되어 나타났다. 혼인귀화율은 전체 중 81.3%로 결혼이주민 중 여성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결혼이주민은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출신국가로는 한국계 중국동포 출신을 포함해

중국 출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귀화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중국동포 출신 이주민에 대한 특성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동포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9월 3일 중국에서 정식 설립되어 연길, 훈춘, 돈화, 도문, 용정, 화룡 등 6개시와, 안도와 왕청 등 2개현을 포함한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김영순 외, 2020). 2018년 현재 중국 연변 정부망에서 보도된 <2018년 연변개황>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가 212만 명으로, 그 중 조선족 인구는 전체의 3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순 외, 2020). 즉,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동포의 중국 내 거주 비율과 한국 내 거주 중인 중국계 이주민 중 중국동포 출신의 거주 비율이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족(朝鮮族)’은 공식적으로 중국동포로 불린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시대 압록강과 도문강 이남의 조선으로부터 이주해 들어온 자들과 그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비록 중국에 거주하면서 많은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지만 한국 문화의 전통성을 유지 발전해 오며 조선족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 살아 온 이주배경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홍세영, 이해영, 2018). 일제 강점기 때 중국으로 이주한 이들은 이후 한국 전쟁 후 60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1990년대 한·중 수교 후 이들의 한국 이주는 다른 외국인들보다 활발해졌다.

2019년 여성가족부 결혼이주민과 귀화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여성 중에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수가 가장 많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은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팔려오다시피 한 존재’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및 직접적 접촉 등을 통해 다양한 만남의 경로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영, 2018). 하지만 이들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응의 어

려움, 시댁과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될 위험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이들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안정적 적응을 목격하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특히, 이들이 이주 후 처음 겪게 되는 차별이나 편견은 결혼 후 시댁 안에서 처음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로 변화의 유동성을 발휘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황에 순응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순 외,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종 가족해체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건수(남녀 포함)는 2004년엔 3,300여건에 반해, 2018년 현재 7,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특히 외국인 아내들의 이혼 건수는 결혼 건수와 비례했는데 즉, 중국 출신 이주여성의 결혼 건수가 높은 만큼 이들의 이혼 건수 또한 높았다. 이들 외국인 아내들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부정과 가족 간 불화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함께 한국 사회라는 이질문화에 적응해야하는 경험이 가중되며 더욱 크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현선, 2014). 결혼생활에 있어서 출산과 양육, 시댁과의 갈등과 부부관계 갈등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인간 삶의 보편성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을 안은 채 출신국에 대한 편견과 차별, 언어 소통 문제, 문화 차이 등 보다 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이나 고립감에 노출되기 쉽다(박수선, 류한수, 2009).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한국인 정주민들과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동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인들보다 문화적응에 있어서 보다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홍세영, 이혜영, 2018). 윤인진과 이진복(2006)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은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가족관계문제, 의사소통문제, 경제문제와 문화 충격 뿐 아니라, 차별과 부당한 대우, 인권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이들은 민족적 ‘동질성’과 국적의 ‘이질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한국인 정주민들이 자신들을 한 민족으로 대우해 주길 기대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들을 중국인들과 동일시하는 태도 사이에서 더 큰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용, 2011).

이정은(2018)이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2010년도 조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느낀 차별경험이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이후 2013년 조사에서는 남녀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비슷한 수준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별경험에 대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2010년엔 중국동포의 차별감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2013년도엔 이들의 차별감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정은(2018)은 중국동포와의 오랜 단절과 낯선 경험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이들에게 차별로 경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인 정주민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동포들 역시 오랜 단절의 경험이 가져다준 교류의 문제에 대해 보다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중국동포와 한국인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서로의 문화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결과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청(2020) 조사 자료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단위: %

구분		매우 존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보통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남	10.7	35.7	48.0	5.0	0.6
	여	6.0	31.5	52.7	8.9	0.9

노인	8.8	31.8	47.5	10.7	1.2
(여성)	7.6	31.6	48.1	11.5	1.2
장애인	6.4	22.9	48.3	19.3	3.1
(여성)	5.4	22.4	49.0	20.1	3.1
결혼이주민	3.2	12.6	54.1	26.0	4.2
(여성)	2.4	12.0	54.7	26.5	4.3
중국동포	2.8	10.9	53.0	28.0	5.2
(여성)	2.2	10.4	53.6	28.5	5.3

※ 출처: 통계청(2020). 2019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인천광역시사회조사자료).

<표 II-4>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 전체로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보다는 장애인, 장애인 보다는 결혼이주민, 그중에서도 중국동포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의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의 잣대를 갖는 경우가 많다(오창우, 이현주, 2011). 즉, 한국보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출신국의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반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출신국의 외국인들에게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 사회 안에서의 이미지도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되어 고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 안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로서, 모국에서의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팔려오다시피 한 존재의 각인이다. 두 번째는 미디어에서 부각된 한국의 이미지를 통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 남성을 선택한 존재로서의 각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이미지는 대체로 출신국으로부터의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 위장결혼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곧바로 한국의 가족을 버리는 파렴치한으로 낙인 되어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설진배, 김소희, 송은희, 2013).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이들의 한국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 당시 한국 사회 안에서의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감정은 이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경험되고 있다(황해영, 2018)²⁾.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오원춘 사건’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통해 전체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전체를 대상으로 과일반화 되는 편견의 양상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중국동포들에게 있어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자치구를 형성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발전해 온 자랑스러운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자신들이 조선족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다(김영로, 2016). 그러나 한국 사회 안에서의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나/너, 우리/그들을 이분화 하며 차별과 멸시, 또는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오원춘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사용되는 ‘조선족’이라는 호칭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는 호칭이 가진 옹고 그룹의 잣대를 떠나 전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갖게 된 부정적 이미지의 영향인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들의 한국 생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주류사회 안에서의 낙인을 통해 약자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황해영, 2018). 이에 대해 최금해(2006)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선택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새롭게 관계 형성해 가는 특수한 집단임을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문화이해는 물론, 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주류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동포로서,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로서, 한국 사회

2) 2012년 살인수법의 잔인성 때문에 당시 매스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겪었던 실제 사례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사춘기에 접어들던 그녀의 딸은 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마 애들이 그러는데 10월 10일은 ‘인육 데이’래. 중국 사람들이 한국사람 고기 먹는 날이래(2012. 09).” 황해영(2018)의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 중 발췌.

안에서 이들의 이주 장기화를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념을 실현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인정투쟁³⁾에 관한 황해영(2018)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연구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들에 대한 인정을 획득해 나아가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연구내용이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었다. 즉,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이주 후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둘째, 인정은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보적 관계 맺기로 서로를 인정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양방향적이다. 셋째, 이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매우 경계하면서 감춰진 타자성을 지닌 채 지역사회 내의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넷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구직경험을 통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배제된 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다섯째,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가부장제의 영향을 통해 나보다는 가족, 여자보다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처음 이들의 관계망은 초기에는 매우 협소하였지만, 자녀의 성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자원의 역할로 인해 다양하게 확대된 관계망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었다.

정리해 보면, 이들은 사랑하는 남편의 인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인정은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양방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타자성을 경계하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의 지지를 통해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음이 결과를 통

3) 인정투쟁 :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적극적 삶의 주체로써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Ahmed(2000)는 세계화 시대에 주체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명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체성은 타자와의 마주침에 의해 결정되고, 정체성의 차이는 육체가 아닌 그 육체가 위치한 장소와 주체에게 부여된 상대적 역할의 차이로 이해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의 정치학'은 물적, 지리적 장소와 상징적, 정치적 위치성(positionality)에 따라 변화하는 정체성에 주목해야함을 제시한다(황해영, 2018: 재인용).

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황혜영, 2018)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이주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적응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이 속한 주류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극복해 나아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사회적 지지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심리적 자원을 통해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물질, 도구, 기술 및 심리적 지도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애착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다(Kaplan, 1974).

한국계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비한국계인 중국인 이주여성들과는 약간의 특성차이가 존재했다(김영순 외, 2019).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 이주여성들은 중국인 이주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화율이 매우 높았으며 언어·문화적 장벽이 낮고 친족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있었다. 반면, 중국인 이주여성은 귀화율이 낮았는데, 언어·문화적 장벽이 높고 친족 네트워크도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동포 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에서 비슷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동화형 적응’을 따르는 반면, 중국인 이주여성들은 적응의 어려움을 딛고 ‘통합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동포 이주여성들은 중국인 이주여성들보다 차별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조사내용(통계청, 2020)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맥락적 특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만큼 중요한 담론 중 하나는 미래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중년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머지않은 미래엔 초고령 사회에 합류하게 될 이들의 미래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하는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에게 있어 노후준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노후준비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또한, 이들의 노후준비 의미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성찰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얻은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력하고 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후준비는 한국인 정주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이들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다는 이점을 통해 다른 외국인들보다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지지와 인정을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주류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많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녀들의 성장과 사회적 자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은희와 박미숙(2019)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주류집단인 한국인 정주민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은 다양하고 많은 반면, 소수집단에 해당되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이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의미를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해 탐색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한국인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중년기 여성(이혼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양적연구보다 질적연구에서 주로 발견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년기이면서 여성에 해당하는 것도 모자라 이주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취약계층 중 좀 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에 관한 담론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3. 중년기 이주여성의 생애발달과 노후준비

3.1. 중년기의 정의와 생애발달

1) 중년기의 정의와 의미

‘중년기’의 표현은 인간이 약 75세~80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병오, 2003). 만약 인간의 기대 수명이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가 되었다면, 중년기 정의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이다. 또한,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과 결혼으로 인하여 다시 부부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계 변화와 직업에서의 은퇴와 같은 사회 변화의 시기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의 이행기로서의 과도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중년기의 연령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령에 따른 정의로서 중년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최초로 발전시킨 학자 Jung(1966)을 빼놓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40세 전후가 행동은 물론, 의식까지 탈바꿈되는 결정적 전환기로 보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중년기 위기에 관심이 많던 임상심리학자들에게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외의 연령적 정의를 살펴보면 Havighurst(1972)는 30세에서 60세까지, Erikson(1950)은 40에서 60세, Sheehy(1976)와 Gould(1978)은 35~45세, 미국 통계학회에서는 45~65세를 중년기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중년기를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보고 갱년기 혹은 성숙기로 묘사해 중년기를 정의함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범위는 40세에서 60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오명옥 외, 2000). 이렇듯 학자들마다 연령에 따른 중년기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정의한 중년기 시점 중 가장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4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중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진데다, 초혼 및 출산의 시기

가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따른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노인으로 지각하는 연령대가 65~70세로 나타났던 김양이와 이채우(2008)의 연구 결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중년기의 범위 설정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참여자 섭외에 있어서도 연령의 제한은 4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중년으로 한다.

다음으로 연령기준 외 생활기준에 따른 중년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Havighurst(1972)는 중년의 시기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로 인한 개인 요구나 필요성뿐 아니라 유기체 내부의 변화와 환경적 압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았다. 또한 Borland(1978)는 가족생활주기를 기준으로 중년기를 설정하며 연령과 관계없이 막내자녀가 독립하고 본인이 은퇴한 시기까지로 구분하여 중년의 시기를 빈 보금자리기(empty-nest period), 진수기(launching stage), 탈 부모기(post parental period) 등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국의 중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막내자녀가 중학교 재학 이상에 해당하는 40~60세 정도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중년기는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에 해당하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전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과의 사별, 질병, 자녀의 독립, 실직 등의 변화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인 것이다(김애순, 윤진, 1993).

우리는 흔히 ‘중년의 위기(Middle life Crisis)’라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된다.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는 Jung(1966)과 Jacques(1967)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Jung은 중년기가 외부지향적 관점에서 내부지향적 관점으로 관점의 의미변화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이를 위기로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Lavison(1978)은 중년기의 개인은 젊은 시절 과거에 가졌던 목표와 현재 성취를 비교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대해서 회의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임을 받아들이며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김애순과 윤진(1993)도 중년의 위기감은 인생 중반에서 재조명되는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됨을 설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중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타인과의 관계, 생에서의 우선순위를 통해 지나온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찰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삶에 대해 모색하기도 하지만 자아정체감의 변화, 인지과정의 변화, 정서적·신체적 변화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이를 위기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중년의 시기가 경제적, 심리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중년들은 조기은퇴, 빈곤, 역할 및 관계의 변화, 예전 같지 않음 등으로 인해 중년을 위기로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Jacques(1967)는 중년을 지각하는데 있어 위기로 느껴짐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죽음에 관한 인식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임경수(2005)도 중년의 위기를 인생에 대한 유한성을 자각하는데서 오는 것임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중년의 위기는 과거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와 함께 현재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과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통해 겪는 혼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경수(2005)는 중년의 위기를 신체적 요인,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주름의 증가, 노안, 탈모, 폐경 등이 있으며 문화적 요인으로는 젊은이 중심의 문화로 인한 문화 소외감,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녀 교육비나 자녀결혼준비에 대한 경제 부담, 그리고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책임을 압박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년기 여성이 가족생활주기에서 더 많은 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텅 빈 보금자리 시기(empty nest period)’로 과거 자녀수가 많던 시절에는 막내자녀의 성장시기가 부모의 평균 기대 수명 시기와 맞물리며 텅 빈 보금자리 시기가 비교적 짧았던 반면, 현대에 와서는 자녀가 많아봤자 1~2명에 그치다보니 막내자녀라는 표현이 무색함은

물론, 부모의 평균 기대 수명까지 길어지며 텅 빈 보금자리 시기는 중년 여성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장휘숙, 2006). 그러므로 현재의 중년 여성들은 신체적 연령과 관련된 사건보다, 자녀 성장에 따른 자기 역할에 대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회적 연령에 의한 경험을 중년기 위기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김애순, 윤진, 1993). 이처럼 여성에게 있어 중년의 위기는 신체적 요소와 함께 사회·정서적 요소를 통해 경험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중년기 생애발달

Papalia와 Olds(1998)은 인간의 발달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그 주요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단계별 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태에서 출생까지를 ‘태내기’,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기’, 2세에서 6세까지를 ‘유아기’, 6세에서 11세까지를 ‘아동기’, 11세에서 20세까지를 ‘청년기’, 20세에서 40세까지를 ‘성년기’, 40세에서 60세까지를 ‘중년기’, 60세 이후를 ‘노년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중년기와 노년기의 주요 발달내용을 다음 <표 II-5>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표 II-5> 중년기와 노년기의 주요 발달내용

구 분	주요 발달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중년기 (40~6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과 정력이 감퇴하기 시작한다. • 여성들은 폐경을 경험한다. • 지혜와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은 증가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은 저하한다. • 자녀를 돌보고 부모를 봉양하는 이중의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빈 둥지 증후군이 나타난다. •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 중년기의 위기가 닥쳐 올 수 있다.

노년기 (60세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능력이 다소 감퇴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하고 여전히 활동적이다. • 반응시간이 더디어져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 지적 능력과 기억력이 감퇴한다. • 은퇴로 인해 수입은 감소하지만 여가시간은 많아진다. • 다가오는 죽음에 대비하여 삶의 목적을 찾을 필요가 있다.
-------------------------	---

※ 출처: Papalia & Olds(1998). *Human development*(7th ed.).

<표 II-5>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년기는 건강과 정력이 감퇴되고 여성은 폐경을 경험하며 지혜는 증가하지만 새로운 문제해결 능력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 안에서의 역할변화를 받아 드려야하는 시기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이를 위기로 지각할 수 있는 중년기 위기감과 연결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년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능에서 감퇴가 이루어지고 곧 다가올 죽음을 대비해야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활동적이다. 그러나 수입 감소와 여가의 증가라는 상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와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심리사회학자인 Erikson(1950)은 Freud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를 확장하여 인간의 발달적 측면을 8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는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할 과업과 극복해야할 위기에 관한 내용을 다음 <표 II-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6>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단계	연령	성취 대 극복
1단계	0~1세	신뢰감 대 불신감
2단계	1~3세	자율성 대 수치심
3단계	3~6세	주도성 대 죄책감
4단계	6~11세	근면성 대 열등감
5단계	12~18세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6단계	19~39세	친밀감 대 고립감

7단계	40~60세	생산성 대 침체성
8단계	61세 이후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

※ 출처: Erikson(1950). *Childhood and society*.

<표 II-6>의 내용 중 중년기와 노년기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과 극복해야 할 과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년기에 해당하는 7단계에서는 성취해야 할 과업으로 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극복해야 할 과업으로는 침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성의 개념 안에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가르치는 일, 발명하는 일, 예술과 과학, 사회활동, 미래 세대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모든 일을 성취해야 할 생산성의 과업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는데, 이는 생산성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극복해야 할 침체성은 자신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자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침체성에 빠진 사람은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여기거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 매사 비판적인 사람들이 침체성의 전형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8단계에서는 성취적 발달과업으로써 자아 통합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극복해야 할 발달과업으로는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받아드리려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삶이 의미가 있고 만족스럽다고 자각하게 되면 자아 통합감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져 후회스럽고, 시간이 다 흘러가버려 다른 삶을 다시 살기에는 이미 기회가 없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rikson은 인생의 불행이나 잃어버린 기회, 인간존재의 나약함과 무상함에 관한 비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Papalia와 Olds(1998)는 각 인간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Erikson(1950)은 인간발달 과업에서 성취해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을 심리사회학의 관점에

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간 생애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을 다루고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인간의 생애발달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요 발달 내용과 인간발달 과업으로써 성취하고 극복해야 할 삶의 과제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정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기 이전에 인간 삶의 보편성 및 특수성 획득의 주요한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3.2.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와 노후준비

1)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상담 및 사례관리, 결혼이주민 대상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교육 지원, 가족교육,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자녀생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이 확인되고 있다(다누리, 2020). 이러한 서비스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서비스의 틀로써 자리 잡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요구는 개인적 차원의 발달은 물론, 가족, 사회 환경의 지원 조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써 개인 내, 혹은 개인 간 비교를 통해 자신과 사회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2008년 11월,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중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내용을 다음 <표 II-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7>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주기별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	------	--------

결혼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보호
		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형성기	결혼이주민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결혼이주민 의사소통 지원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부모·자녀 건강관리
자녀교육기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강화	아동 언어·학습·정서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빈곤·위기아동·청소년 지원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가족역량 강화기	결혼이주민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주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결혼이주민 사회연계 강화
가족해체 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전(후)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추진체계 정비
		대국민 다문화 인식 제고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표 II-7>은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세부추진과제를 통해 세분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008년 당시, 이러한 정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의 지속적 증가와 결혼당사자 인권침해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결혼이주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결혼이주민의 ‘생애주기별’을 정의하고 있지 만, 중년기와 노년기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결혼준비기를 시작으로

로 자녀교육기를 거쳐 가족역량강화기로 마무리 되고 있을 뿐,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주여성들의 생애주기가 포함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건강 상실, 빈곤, 소외와 외로움 등의 문제로 10명 중 1명은 자살관념을 가지며, 평균 10년 이상을 병상에서 노년기를 보내야할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그에 따른 가족 관계 갈등과 연결됨은 물론, 노인 중 일부는 소외와 외로움으로 인해 고독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주여성들의 출현을 이해했다면, Erikson(1950)이 중년기와 노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대 극복 차원에서의 생애발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생애주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중년기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에 노후준비교육이 포함되어야한다.

2) 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여성가족부(2019)에서는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처음 다루고 있다. 이를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하 결혼이주민과 귀화자 노후준비 정도는 44.6%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이 기타 귀화자들보다 노후준비도가 높았으며 그 연령대는 40대(2.92점), 30대(2.80점), 50대(2.69점), 29세 미만(2.66점) 순이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50대가 3,40대보다 노후준비도가 낮다는 점에서 고연령층의 삶의 만족도 저하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정도에 관한 조사자료(여성가족부, 2019)에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와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의 비율이 69.7%로 나타난 결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결혼이주민들의 노후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인 정주민은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결혼이주민들은 10명 중 5명 정도가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결과가

다. 그러나 연령대 별로 보았을 때는 정주민들이 결혼이주민들에 비해 50대에 노후준비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미혼 집단이 사별이나 이혼·별거 집단에 비해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출신국적별로는 미주, 유럽, 대양주 출신의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은 반면, 몽골 출신의 노후준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민은 그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노후준비에 관한 보다 더 많은 조사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이들의 노후준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음이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진행은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자료 조사 외에 연구의 질적 확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송선희(2016)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결혼생활 만족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성실성, 그리고 친화성과 개방성이 높은 자가 결혼생활에서의 만족감이 높은 것은 물론, 노후준비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화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개방성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미와 송선희(2014)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이 많으며 노후에 대한 생각과 노후계획이 많을수록 정서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았으며, 여가활동이 많고 노후계획도 많은데다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준비가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음이 확인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격특성과 맥락, 활동 및 인식에 따라 노후준비 유형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성지혜(2015)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빈곤화(feminization of poverty)’에 대해 다루며 한국인 정주민 여성과 노년의 빈곤화에 대해 탐색한 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이들이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걱정과 고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노년의 빈곤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나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지만, 현대사회는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부모 부양’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 정주민 여성의 빈곤문제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노년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로 삼았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7명의 평균 연령이 29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데다, 이주배경 역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몇 안 되지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중년기를 포함하지 않음은 물론,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질적연구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방법으로 질적연구가 활용되었어도 그 대상이 중년기를 포함하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이 연구에서 설정된 중년기에 접어든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 경험은 성지혜(201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다른 발달시기와 다른 이주배경,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기간을 감안한다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내용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년기에 접어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4. 소결

이번 장에서는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중 특히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년기 정의와 함께 중년기와 노년기 생애발달과업을 확인하고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와 노후준비 내용을 검토하였다.

노후준비는 크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인간 삶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측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우선, 신체적 노후준비는 노인세대의 건강 상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의 빈곤과 연결되므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는 노인의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에 대한 직면 그리고 관계에 대한 성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3가지 노후준비 유형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각 노후준비 유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안에서의 특성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다른 나라 출신의 이주여성들과는 다르게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주배경은 한국 사회 안에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중년기의 정의는 연령기준의 정의와 생활기준의 정의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연령기준의 정의로써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최근의 내용을 바탕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를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한국으로의 유입이 활발했던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이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생활기준의 정의에서는 중년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역할의 변화, 신체적 변화, 문화 차이, 삶의 유한성 등을 통해 중년기가 위기로 경험될 수 있으며, 특히 중년기 시점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면 더욱 그러했다.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인간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특히, 중년기와 노년기의 발달과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취해야 할 과업과 극복해야 할 과업을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에서는 인간의 전 생애발달단계와는 다르게 중년기와 노년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이들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의 수정 및 보완과 더불어 중년기에서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간은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처음엔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먼저 경험하기 쉽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낯선 환경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내면엔 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김영순, 2019). 만약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고 가정하자. 내가 그 곳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고 낯선 곳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적응하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공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나는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롭게 정착하게 될 지역에 대한 나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낯선 곳에서의 적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끝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에 새롭게 정착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그에 따른 조력이 있다면 나의 적응은 더욱 활기를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우리 사회 내 이주여성으로 대체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황해영(2018)은 이들을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유목민적 주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혈혈단신(孑子單身) 자발적으로 한국 사회에 진입해 들어왔지만 잘 형성된 친족 네트워크를 통해 적응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순 외, 2019).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겪어야 할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시댁을 포함한 문화적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문화와 언어는 물론, 시대과의 갈등, 주변인들 사이에서의 소외 경험은 자국에서의 성장경험에서 오는 가치관이나 사고의 틀에 영향을 미치며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황해영, 2018). 황해영(2018)이 이들을 ‘유목민적 주체’로 표현함은 한국 사회가 이들의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임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얻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유목민적 주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으로서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경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혼돈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라는 다양한 경험의 교섭을 통해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찾아 나아가야 하는 숙명에 놓이게 된다. 이에 우리는 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슴없이 그들이 내민 손을 잡아 이끌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함께하는 국민의 배우자이자 높은 귀화율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국민의 행복추구 권리에서 이들 이주여성들이 배제되어선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우와 최보선(2014)의 연구에서도 이주여성들이 주류사회 안에서 사회적·법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자주적 인권보호의식과 자기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특성이 반영된 법교육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주여성의 노후준비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의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상우와 최보선(201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이들 개인의 노력과 함께 이들이 몸담고 있는 주류사회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맞이할 초고령 사회와 100세 시대,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공익추구를 위한 기회의 장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를 통한 삶의 만족도 상향과 행복추구권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개요

1) 내러티브 탐구

미국의 내러티브 탐구 전문가인 Clandinin(2016: 259)은 내러티브 탐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 한가지만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그들을 보살피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보살피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 사람은 살아갈 음식보다 이야기를 더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서로의 기억에 남기려는 이유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다(Lopez, 1990: 60).” 이처럼 내러티브는 어쩌면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보살피고 또는 스스로를 돌보는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용은 질적연구방법으로써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 초, 사회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어 내러티브가 처음 사용되었다(Pinnergar & Daynes, 2007). 특히 우리가 ‘내러티브 탐구’라는 연구방법론으로 발전시켜 기술된 것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이라 볼 수 있는데, 내러티브 탐구의 철학적 토대는 Dewey(1938)의 경험이론에 바탕을 둔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러한 Dewey의 경험에 관한 준거, 즉,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지속성을 통해 시간성, 사회성, 장소(공간)성 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3차원적 탐구공간을 획득한다. 그 안에서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탐색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특별하다. ‘경험(經驗)’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독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험으로

부터 생겨나며 전혀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 낸다(Connelly & Clandinin, 2006: 33). 그러므로 내러티브 탐구는 복잡하면서 문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논의들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Webster & Mertova, 2017). 또한 내러티브 탐구라는 이야기로서의 경험 연구는 경험에 대해 사고하는 데 가장 좋은 연구방법이며, 이는 현상의 관점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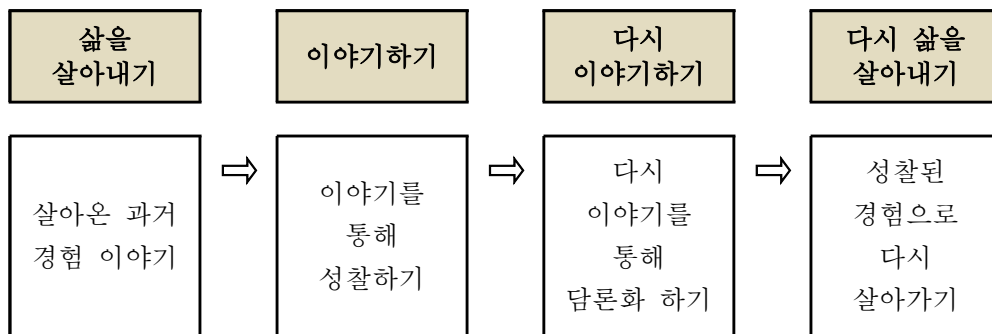
내러티브를 방법론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 대상인 현상으로 경험을 보는 특별한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다(Connelly & Clandinin, 2006: 375). 그러므로 “우리의 표현은 경험으로부터 오고 그것의 확인을 위해서는 다시 경험으로 돌아가야 한다(Clandinin & Rosiek, 2007: 39).” 다시 말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야함은 내러티브 탐구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며, 연구방법론적으로 지극히 미래지향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에 Okri(1997: 46)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바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다른 연구방법론에 비해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적 내용을 다룰 때, 보다 풍부한 경험적 의미를 도출시킬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 차원 높은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 탐구를 정의하자면,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지식과 이해의 원천인 살아있는 경험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이다(Clandinin, 2016: 28).” 내러티브가 인간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내러티브를 통해 화자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과 ‘내러티브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의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이혼정, 2004). 특히,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기’라는 구체적인 내러티브 탐구 과정을 통해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 공간에서 공동으로 구성되는 관계적 작업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야기 자

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는 우리가 참여자 삶의 일부가 되고, 참여자의 삶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극히 관계적이다. 우리는 내러티브 탐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이라는 필연적 존재를 뛰어넘어 ‘관계적 윤리’를 통해 긴장해야 하는 것이다(Clandinin, 2016).

Riessman(2008) 역시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관계적 책임성’을 강조하였으며, Ricoeur(1981: 184)는 “내러티브 탐구가 시작부터 타인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반복해 나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성의 지속은 연구자에게도 긴장감을 경험케 하는데, 여기에서의 긴장감은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에 빠지기’와 ‘냉담하게 관찰하기’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 뿐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는 독자들 역시 연구참여자와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포함된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관계적 관점을 취하며,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의 관계적 탐구의 의미를 다음 [그림 III-1]과 같이 모형으로 구성해 보았다.



[그림 III-1] 내러티브 탐구 모형

[그림 III-1]의 내러티브 탐구 모형 내용을 살펴보면, ‘삶을 살아내기 (living)’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그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야기하기(telling)’는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성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는 경험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담론화를 형성하고, ‘다시 삶을 살아내기(reliving)’는 성찰된 경험으로 다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Clandinin, 2016: 48). 이러한 작용은 경험에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등장할 때마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삶을 살아내기’, ‘이야기하기’, ‘다시 이야기하기’, ‘다시 삶을 살아내기’의 순환적 과정의 의미(Clandinin, 2016)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와 살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다시 체험하며 살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후 내면에서 성찰된 경험을 가지고 다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가정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관계성을 담보로 한 ‘이야기성’을 통해 노후준비에 관한 의미 도출은 물론, 그에 따른 성찰에 관한 탐구가 가능해진다.

다음은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정당화와 관련해 직면할 수 있는 질문들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성에 기인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 내용과 그 의미라는 연구결과물들은 ‘그래서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와 같은 질문과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Clandinin(2016)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정당화를 위해 필요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 정당화이다. 왜 내러티브 탐구가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참여자가 아닌 연구자 자신의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는 연구참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연구자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현재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서전적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해 없이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 깨어있지 못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의 개인적 정당화로서 자서전적 내러티브 탐구 내용이 연구 텍스트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보다 깊이 탐구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의 구성 중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는 일정부분 의미 있게 구성되어 있다.

둘째, 실제적 정당화이다. 이 연구가 실천에 있어 어떤 차이점을 만드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이동 혹은 변화하는 실제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책이 교실 안에서 실행되었을 때 실제로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정책 실행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통해 정당화 되는 것이다. 즉,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되어 강화된 어떤 정책에 의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을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uber, Murphy & Clandinin, 2011).

셋째, 사회적 또는 이론적 정당화이다. 이 연구가 이론적으로 상황을 보다 사회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있어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론적 정당화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학문적 지식의 면에서 연구를 정당화시키는 것에 비롯되는데, 예를 들어 Connelly와 Clandinin(1999)은 학교와 교사들의 실천에 대한 내러티브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로서 ‘개인적·실천적 지식, 이야기된 전문적 지식전경,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렇듯, 새로운 학문적 지식은 이론적 정당화들 중 하나이며, 정책 또는 사회적 행동의 정당화는 원주민 청소년 기숙학교의 세대 간 충돌을 뚜렷하게 보여준 Young(2005)의 연구처럼, 사회적 행동의 관점에서 나온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관해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자료는 어떻게 수집되는가. Clandinin(2016)은 이러한 연구 자료에 대한 용어로서 ‘현장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장 텍스트는 대화 전사본, 현장노트, 사진이나 참여자와 연구자가 쓴 글 등이 포함되며, 그 인공물에는 예술품, 사진, 문서, 계획서, 연보(annals), 정책들, 그리고 연대기 등이 있다. 이러한 인공물들은 이야기 말하기를 촉발시킬 뿐, 그것 자체가 현장 텍스트는 아니지만, 내러티브 탐구에서 구성되는 텍스트가 객관적 텍스트라기보다 간주관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자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공동구성물로서 존중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연구 자료로서의 현장 텍스트는 중간 연구 텍스트를 거쳐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3차원)에 주목하며 관계적 방식으로 사람들의 흩뿌려진 삶의 조각들을 한 가운데 모으는 것으로 연구퍼즐의 완성을 시도한다. 이는 복합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다시 말하기를 구성하기 위한 상상적이고 내러티브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전진하는 방법에 주목한다(Downey & Clandinin, 2010). 다시 말해, 중간 연구 텍스트를 거쳐 연구퍼즐의 완성을 통해 최종 연구 텍스트로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일관적 방식을 통한 연구퍼즐의 완성과 함께, 연구참여자 확인 작업을 추가한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여기에서의 참여자 확인은 윤리적 동의와도 관련이 깊다.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관계적 책임성과 윤리성은 자료를 준비할 때, 참여자를 만날 때, 그리고 이야기 듣기를 통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Gudmundsdottir(1995) 역시 내러티브가 우리의 경험을 되새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다고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내러티브 탐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연구방법론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계성에 기인한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노후준비의 의미를 성찰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2) 생애사적 내러티브

인간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는 지나온 삶의 경험들이 인지적 혹은 감정적으로 남아 개인의 성격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는 지나온 과거 경험이 쌓여 현재의 모습이 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현재 모습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미래’는 스스로가 만든 삶의 목표이자 꿈으로써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한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영순 외, 2018). 이러한 의미에서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삶 안에서 문화와 역사를 읽어내고 그들의 주관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사는 내러티브(이야기성)를 매개로 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동작품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애사 역시 내러티브 탐구와 함께 지극히 관계적인 연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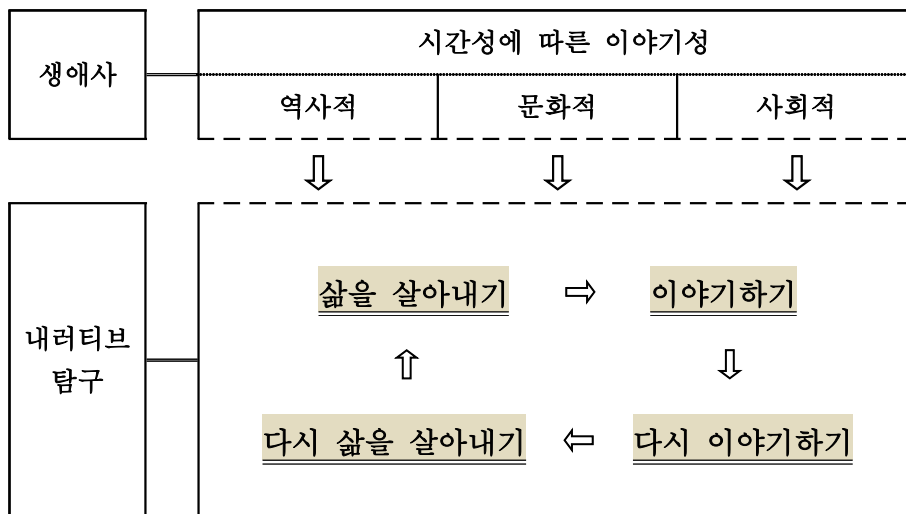
생애사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로 한 개인의 삶을 연구하는데 있어 인문학과 사회과학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정경희, 2016). 인간이 경험한 삶은 일회적이 아닌 과정적 경험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삶의 경험 내용을 이해하게 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단순히 횡적 혹은 단면적 면으로 나누어 이해하기보다, 생애 전 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애사 연구는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과정’을 연결하고, 개인 삶의 맥락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는 관계성의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Roberts, 2002: 4-5).

생애사는 개인 삶의 역사를 외적인 삶의 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묘사를 통해 정의한다(김영천, 2013: 205). 생애사는 삶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이야기를 포함하며, 자기 경험의 표현을 통해 타인들은 경험한 사람의 주관적 관점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유철인, 1996), 생애사에서 한 개인의 역사적 관점은 연구참여자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적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최영신, 1999: 2).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해석과 글쓰기 작업에서 연구 과정의 엄격성을 지향한다. 내러티브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와 독자들의 주관성도 중요시 된다. 따라서 생애사에서 연구참여자가 드러내는 주관성은 연구자에 의해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김철원, 윤혜진, 2009).

김영천(2013: 206-207)은 다음과 같이 생애사 연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의 시간성을 통해 사회구조를 포착하는 것이지 개인 삶의 이야기를 신변잡기처럼 서술하는 수필체를 배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노후준비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생애사적 내러티브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사

회적 삶의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생애사적 관점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중년기에 해당하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노후준비의 의미를 그들의 삶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시간성을 담보로 하는 생애 경험의 이야기성 안에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확장을 이루고, 이를 다시 내러티브 탐구의 삶을 살아내기, 이야기하기, 다시 이야기하기, 다시 삶을 살아내기라는 삶의 의미와 연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모형은 다음 [그림 Ⅲ-2]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Ⅲ-2]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모형

[그림 Ⅲ-2]의 모형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사는 시간성에 따라 펼쳐지는 경험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숨겨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삶을 살아내기, 이야기하기, 다시 이야기하기, 다시 삶을 살아내기라는 탐

구 과정 안에서의 역동성을 발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생애 경험은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면, 내러티브 탐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 관점에서 과거의 반추, 미래의 유추와 함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내러티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확대와 의미의 재구성을 이룰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노후준비는 지극히 미래지향적 관점을 따른다는 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통해 연구참여자들 삶의 맥락 안에서 노후준비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이들의 성찰을 의미 있게 다루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서 개인적 정당화를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이는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연구자인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Clandinin(2016)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탐구를 통해 우리 자신의 현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둘째, 탐구 과정에서 퍼즐을 맞추는데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 탐구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접근하는 방법에서도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연구자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적 내용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1.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

표현이 서툰고 엄하지만 자식사랑의 마음은 남달랐던 아버지와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맏딸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7살 차이가 났고 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니 나이는 겨우 20살이셨다. 사실 난 10개월을 모두 채우고 태어나지 못했다.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당시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의사에게 제출하고서야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 일이지만, 나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지극 정성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다. 아버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고 계셨다. “자식 앞세우고 싶지 않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 이렇듯 두 부부의 신혼은 첫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단칸방에서 온갖 고생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아가야만 했고, 그 후로 나를 포함해 딸만 넷을 더 낳으셨다.

어머니는 평생 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그나마 아버지의 월급을 알뜰살뜰 모아 마당 딸린 넓은 내 집을 장만한 이후에도 어머니의 돈에 대한 집착은 계속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겐 늘 못마땅한 존재였다. 어머니는 종종 아버지만 성실하게 돈 잘 벌어들였다면, 지금쯤 건물주가 되어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셨다.

늘 갈등 관계였던 부모님이지만 나는 부모님, 아니 어머니의 절약정신을 충분히 물려받았다. 그 후로도 부모님들은 처음 장만한 집에서 평생을 하셨지만, 나는 단독주택이 너무 무섭고 싫었다. 왜냐하면, 친정집이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보니, 집 담벼락에 머리를 조아리고 볼 일을 보는 남자들이나 빈번한 쥐의 출현으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안전하고 깨끗한 아파트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과 동시에 아파트 장만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목표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친정의 아들 없는 설움을 씻어 보고자 첫 아들을 간절히 원했을 때, 결혼 후 1년 만에 기적처럼 첫 아들을 얻게 되었다.

‘월급쟁이는 안 쓰는 게 버는 거야.’ 속담은 아니지만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했다. 결혼과 동시에 퇴사 후 육아에만 전념했지만, 성실한 남편 덕분에 꾸준히 들어오는 그의 월급을 안 쓰고 모아 결혼 후 20년이 가까운 현재, 부동산만 3채가 되었다. 대신 동산(자동차)은 없다. 이 또한 절약정신이 조율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탄탄하며 또한 빈틈이 없는 것 같았다.

반면, 나의 신체적 노후준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겠지...’하는 오만함이었을까. 38세부터 새로 시작한 공부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센터에서 계약직 팀원으로 일하면서도 그러했다. 결혼과 동시에 퇴직 후 15년 만에 다시 얻은 나의 직장은 보람을 느끼기도 전에 스트레스가 먼저 경험되었고, 스트레스 해소의 명목으로 평소 좋아하던 술을 더 자주 마셨던 것이 화근이 되었을 것이다.

29세에 1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45세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6개월 조금 넘을 때쯤,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만져졌다. 건강검진에서도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바쁜 직장생활을 핑계로 ‘별거 아니겠지’, ‘설마 내가 뭐 큰 병이라도 있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러다 혹이 발견되고 1년 정도 지난 뒤, 직장동료의 간곡한 권유로 병원을 찾았을 때, 유방암 2기 반이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선고를 받고 말았다.

그 일로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종양 제거를 위한 외과적 수술과 함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거치며 몸에 난 모든 털이 빠지는 경험과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남은 치명적인 상처는 나의 자존감을 급격히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바로 이것이 살아서 받는 지옥인가. 왜 하필 나인가. 내 인생은 왜 언제나 늘 이 모양인가. 결혼 전 부모와의 갈등이 심했을 때도, 10년의 직장생활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했을 때도, 결혼 후 4번의 크고 작은 수술로 힘들 때도 이정도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만큼 유방암이라는 질병을 통한 나의 생존경험은 진짜 죽을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인생의 절망감을 혹독하게 맛보여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되었다.

2016년 4월 암 발병 시점을 전후로 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절약정신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삶의 중간 중간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여가를 즐기는가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마시기 시작해 주 2회 이상 꾸준히 마셔오던 술을 단호하게 끊게 되었다. 요즘은 수영과 사우나, 근력운동 등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있으며, 국가정기건강검진⁴⁾을 통해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나의 신체적 노후준비는 40대 후반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다만, 건강을 한 번 잃어본 경험이 있는 후에 갖게 된 건강에 대한 소중함은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아쉬움으로 남고 말았다. 만약 그랬다면 경력단절 후 다시 얻는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나의 발

4)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음. 건강검진의 종류로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특히 일반건강검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실시한다(국민건강보험, 2019).

병 경험은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준 반면,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다음으로 나의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살펴보기로 하자. 암 선고 이후 절망감에 빠져있던 나에게 학문의 기회란 나의 사회적 입지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되었다. 암 발병 후 휴학했던 나의 박사과정은 항암 치료 종료 후 복학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그런 나를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지켜봐 주시던 지도교수님의 배려로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현실은 그 동안 투병하며 겪은 나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처럼 격려 되었다. 물론, 학교 연구실에서의 생활 역시 직장생활 못지않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존재했다. 그러나 암 투병을 겪은 후 나의 가치관의 변화는 발병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이 분명했다. 그로인해 타인을 대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나의 대인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암 발병 경험은 나의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었으며, 더욱 돈독해진 가족애를 통해 정서적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종 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아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정직함과 성실함, 무엇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사회에서의 인정과 자녀들과의 안정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혼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둘째동생을 생각하면, 여전히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 원가족⁵⁾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돈이 자식이고 형제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기심 사이에서 나머지 살아남은 원가족들과의 관계 개선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고 말았다.

2.2. 연구참여자 특성

질적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5) 출생 후부터 결혼 후 새로 형성된 가족 이전까지 함께 살았던 가족구성원(김영애, 2011).

을 하게 된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내러티브 탐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인데, 여기에서의 친밀한 관계란, 일종의 대화(dialogue)로써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포함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그러므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참여자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례가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연구의 '적절성'과 '충분함'이라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연구참여자를 선택(purposeful selection)하고(Maxwell, 2004), 그 중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참여자 선정에서 탐구 주제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현상이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 함께 나이, 역할, 성별 등이 고려되어야함이 강조되기 때문이다(Creswell, 2007). 이에 Dukes(1984)는 면담의 질과 분석 과정을 고려할 때 가장 적당한 연구참여자의 수는 3명에서 10명 사이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5명으로 제한하였다. 질적연구에서의 유의미성, 타당성, 통찰력 등은 연구참여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연구참여자의 심도 있는 정보제공과 연구자의 분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atton, 1990).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중국동포 출신 연구교수의 도움을 얻었다. 이 소개자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개자로부터 우선 연구참여자를 소개 받은 다음 연구참여자를 통해 또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이중언어 강사 보수교육 과정에서 지도교수는 기초강연을 통해 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관심 있는 연구참여자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를 통해 2명의 자발적 지원자를 섭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조건은 40세에서 60세 사이에 해당하는 중년으로 하고,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으로 하였다. 슬하에 자녀 유무나 국적취득 여부는 배제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참여

자를 소개해준 중국동포 출신 박사의 소속지역이나 이중언어강사 보수교육을 진행한 지역의 특성 상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익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익명은 이후 연구 과정과 분석, 그리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 명칭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참여자 특성 내용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남편)	이주년도 (귀화년도)	결혼년도 (차수)	자녀 (나이)	학력 (남편)	직업 (남편)
A	41 (51)	1999 (2004)	2001 (19)	1녀/1남 (19/18)	대졸 (대졸)	원료개발연구직 (대기업기술직)
B	42 (55)	2007 (2017)	2004 (16)	1남/1녀 (16/8)	고졸 (고졸)	단순노무계약직 (생산직)
C	45 (50)	1999 (2004)	1999 (21)	1녀/1남 (21/19)	고졸 (고졸)	단순노무계약직 (배송서비스)
D	51 (58)	1998 (2004)	2000 (20)	1남 (20)	박사수료 (대졸)	다문화강사 (사무직)
E	44 (43)	2012 (2014)	2008 (12)	1녀/1남 (11/9)	고졸 (고졸)	중국어강사 (시공기술직)

중년기를 연령기준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40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여성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가 41세로 가장 어렸으며, 연구참여자 D는 51세로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로 나타났다. 결혼 당시 나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가 22세로 가장 이른 시기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참여자 E는 32세로 가장 늦은 시기에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7세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남편 나이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D의 남편이 58세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참여자 E의 남편은 43세로 가장 어렸다. 그러므로 남편들의 평균 나이는 51세로 확인 되었다. 이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나이 차이를 나타낸 부부는

연구참여자 B 부부로 무려 13세 차이가 났으며, 반면, 연구참여자 E 부부는 남편이 1살 연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평균 나이 차이는 7세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5명은 모두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인천 지역의 외국인 귀화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의 요인(최정호, 2019) 결혼이주여성 중 귀화률이 가장 높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특성(통계청, 2019)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이들이 한국 귀화를 결심한 이유로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자녀들의 안정된 적응을 위해 선택한 부모 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귀화시기를 살펴보면, 부모가 먼저 귀화 후 특별귀화⁶⁾를 한 연구참여자 E가 이주 후 가장 빠른 귀화를 나타낸 반면, 연구참여자 B는 가장 늦은 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주 후 평균 6년 후에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들의 결혼생활유지기간을 살펴보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참여자 C의 결혼생활유지기간이 21년으로 가장 길었고, 연구참여자 E는 12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의 평균 결혼생활유지기간은 18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녀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차수가 가장 높은 연구참여자 C는 자녀가 21세와 19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참여자 E의 자녀는 11세와 9세로 대체로 어린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참여자 B의 둘째 자녀가 8세로 가장 어렸지만, 이들 남매의 나이 차이는 16세와 8세로 무려 8세 차이가 났다. 또한, 연구참여자 D만이 아들 하나를 두었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아들·딸 남매 둘을 둔 것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이들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D가 박사수료로 학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참여자 A는 대졸, 나머지 연구참여자 B와 C, E는 고졸로 확인 되었다. 이들의 남편 학력을 살펴보면, 연구참여

6) 특별귀화(제7조) 대상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제1항 제1호), 특별 공로자(제1항 제2호), 우수인재로 인정되는 사람(제1항 제3호).

자 A와 D의 남편만이 대졸이고 나머지는 고졸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기업 소속의 원료 개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B와 C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제품 포장 단순노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D와 E는 다문화교육 강사, 이중언어 및 중국어 강사로 활동 중에 있었다. 이들의 남편 직업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의 남편은 대기업에 소속된 전문 기술자였으며, 연구참여자 B의 남편은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 연구참여자 C의 남편은 대형마트 배송서비스 기사, 연구참여자 D는 사무직 회사원, 연구참여자 E는 샷시 시공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3.1.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주로 심층면담이 활용되었다. 심층면담은 인간적 현상의 보다 풍부한 이해를 위해 인간 경험의 이야기를 자료로 수집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관련해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와의 대화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Manen, 1994).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 형식의 인터뷰는 단답형의 질의응답이 아닌 내러티브 형식의 대화 형태로 발전시키며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과 반응을 적절히 활용해 나아가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자의 장점 중 하나는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상황에서 상호 관계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연구참여자들의 보다 깊이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담을 위해 활용된 반구조화 질문 내용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심층면담 질문지 개요

구 분	질문 내용	
기초 질문	결혼 전	가족관계, 친구관계, 원가족의 경제수준, 직업.
	결혼과정	이주동기, 남편과의 첫 만남, 남편나이, 결혼 결정과정.
	결혼 후	국적취득,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원가족과 시댁과의 관계, 현재 직업,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한국 생활의 좋은 점, 삶의 만족도, 소득수준, 주택소유 유무, 채무 및 자산현황, 현재의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노후생활 기대와 노후준비 인식	기대	당신이 꿈꾸는 노후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몇 살이며,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당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신이 바라는 노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노후에 임종을 맞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인식	‘노후준비’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노후준비 수준은 남들과 비교할 때 어떠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노후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한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 문제 중 ‘고독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내가 만약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 된다면?
	과거의 영향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당신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실천의 예)
		과거 당신 부모님의 생활은 어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당신이 느낀 것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받은 영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국가에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면담을 통해 당신이 느끼고 경험된 것은 무엇입니까?

질적연구의 기본 틀이 되는 면담 방식은 잘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매개로 진행된다(Seidman, 2006). 이에 대한 질문지 개요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 연구의 주제나 연구문제와 연결되는 노후준비에 관한 기대와 인식, 과거의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마무리 질문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이 국가나 사회에 요구하는 노후준비 내용과 면담을 통해 얻은 참여자 성찰적 경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개방형의 반구조화 질문지 특성상 면담은 이야기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를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성을 통해 얻은 연구 자료는 이들의 생애담과 연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연구참여자 섭외는 이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인 연구교수의 소개로 처음 진행 되었다. 소개자가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이 연구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한 뒤, 연구참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왔을 시, 그들의 연락처를 연구자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먼저 라포(Rapport)형성⁷⁾을 한 후 그 다음 연구참여자를 다시 소개 받는 형식으로 이어 나갔다. 또한, 연구참여자 섭외 및 심층면담의 시기가 때마침, 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이중언어강사 보수교육과 맞물리며,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보수교육 대상자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섭외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은 연구참여자와의 라포형성 및 참여자별 자료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Seidman(2006)은 질적연구에서의 면담은 각기 다른 초점을 가지고 3회 정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1명의 연구참여자와 2회의 직접 면담을 실시한 후, 반구조화 질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작 전엔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1회 면담 시간은 약 80~120분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특성상 대화 집중도를 위해 1회의 면담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에 따른 면담 일시 및 개요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7) 전문심리상담 장면에서는 신뢰감과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상호협조의 동인(動因)이 된다. 이러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고, 감정, 경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하는데(Nichols, 2015), 상담 장면에서 적용되는 라포형성이야말로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도 충분히 유효하다.

<표 III-3> 심층면담 개요

연구 참여자	구분	1차 면담	2차 면담
A	날짜	2019.06.17. 월요일	2019.06.24. 월요일
	장소	선학역 앞 카페	선학역 앞 카페
	시간	19:00~21:00 (2시간)	19:00~20:30 (1시간 30분)
B	날짜	2019.07.06. 토요일	2019.07.20. 토요일
	장소	대형 마트 내 카페	대형 마트 내 카페
	시간	10:00~11:50 (1시간 50분)	10:00~12:00 (2시간)
C	날짜	2019.07.06. 토요일	2019.07.13. 토요일
	장소	대형 마트 내 카페	대형 마트 내 카페
	시간	12:00~13:40 (1시간 40분)	10:00~12:10 (2시간 10분)
D	날짜	2019.08.07. 수요일	2019.08.16. 금요일
	장소	인하대학교 강의실	인하대학교 강의실
	시간	17:30~19:30 (2시간)	17:30~19:30 (2시간)
E	날짜	2019.08.14. 수요일	2019.08.28. 수요일
	장소	인하대 후문 카페	인하대 후문 카페
	시간	11:00~12:30 (1시간 30분)	11:00~12:30 (1시간 30분)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은 주로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제일 처음 만난 연구참여자 A는 1차와 2차 모두 일주일 간격을 두고 평일 저녁 퇴근 시간에 그녀의 집 주변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 지인 관계였던 연구참여자 B와 C와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말 오전에 1차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처음 1차면담에서는 혼자 나오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 두 참여자가 함께 인터뷰 현장에 동행 했었지만, 심층면담이 시작되고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2차면담에서는 두 참여자가 각각 따로 만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B와 C는 각각 다른 주말 시간에 따로 약속 날짜를 잡아 만나게 된 것이다. 처음 1차면담에서 연구참여자 B와 C가 면담 현장에 같이 동행 했지만, 각각 시간 간격을 두고 면담은 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

자 B는 1차 때나 2차 때 모두 8세 딸을 동행하여 면담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아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다문화 교육 전문과인 동시에 이중언어강사로, 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과정 중에 연구자의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 연구교수의 도움으로 교육생 중 연구의 참여자 조건과 맞는 연구참여자 D를 섭외할 수 있었다. 연구자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고 지원한 연구참여자 D는 다른 날 따로 시간을 맞춰 보수교육이 끝나는 늦은 오후 시간에 열흘 정도의 간격을 두고 빈 강의실에서 1·2차면담을 모두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D는 이 연구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관심이 있어, 연구자와는 입학정보를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면담 내내 이 연구가 잘 진행되어,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처우가 보다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성실한 연구수행을 통해 한국 사회 안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인 E는 연구참여자 D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그녀 역시 연구참여자 D와 같은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 D의 적극적인 권유로 연구참여자 E는 흔쾌히 면담에 응해 주었다. 연구참여자 E는 보수교육이 끝나는 평일 저녁에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한다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 낮에 2주간의 간격을 두고 따로 시간을 잡아 1·2차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처음 연구자와 만난 자리에서 먼저 신앙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하느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믿지만, 교회나 신부, 목사는 믿지 않는다고 밝히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냐며 노파심을 드러냈었다. 이와 같이 신앙심이 깊은 연구참여자 E와는 신앙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E의 남편은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배우자가 한국인 정주민이 아니라, 같은 중국동포 출신의 배우자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문화가 다른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 아내와 정주민 남편의 문화차이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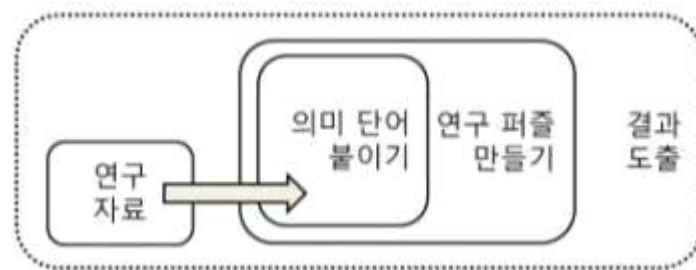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안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며, 어쩌면 미래에도 한국 안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국동포 출신 이주부부의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어 연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되어, 이들 부부를 연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중국동포 출신의 이주부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배우자’라는 호칭 사용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층면담 시간은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왜냐하면 면담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자칫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면담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잘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질문을 이어나가되, 반구조화질문지 특성 상 추가 질문이 떠오르면 이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고 1차면담 때 미처 다루지 못한 질문은 2차면담 때, 마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갔다.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녹취한 내용을 바로 전사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대화 내용에서 대화의 각 문장단위 1을 시작으로 평균 250 내외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내러티브 탐구의 자료 분석에 있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 이렇게 전사된 내용을 연구자는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내용을 명료화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해 나아갔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개인 삶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여된 의미를 토대로 다시 연구 퍼즐을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Clandinin와 Connelly(2000)가 제시한 ‘현장 자료에서 연구 자료로 이동하기’ 과정에 속하며, 경험 내용의 의미 부여와 함께 연구 퍼즐 만들기를 통한 자료 분석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연구 자료는 면담 날짜가 아닌 1·2차면담을 구분한 고유번호가 사용되었다.

3.2. 자료 분석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보다, 이야기에서의 경험 그 자체와 전체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Ezzy, 2002).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내용 중 연구 주제 및 문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고, 도출된 의미를 토대로 퍼즐을 만들어 그 조각들을 맞추어 보는 것으로 연구 퍼즐 만들기 즉, 내러티브 탐구의 핵심 분석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염지숙, 2003).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양의 연구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이야기된 내용 안에서 도출되지 않은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용이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모형을 다음 <그림 III-3>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림 III-3> 내러티브 탐구 자료 분석 모형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분석은 자료의 세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해석하는 다소 복잡 미묘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이러한 복잡 미묘한 과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의미 있는 단어 붙이기를 시작으로 각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기준으로 다시 퍼즐 조각을 만든 후, 이를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안에 숨겨진 의미와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다시 말해, 연구 퍼즐은 의미 단어 붙이기에서 나타난 각각의 의미에서 유사한 것들끼리의 연결을 재구성 하는 것 즉, 연구참여자들의 흩뿌려져 있는 이야기를 의미 구조화를 통해 재

구성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의미 조각을 만들어 하나의 퍼즐로 완성하는 것은 이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제 3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순전히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텍스트, 그리고 연구 텍스트로의 이행 과정에서 의지될 수밖에 없는 연구자의 상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상력은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된다(Clandinin, 2016).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연구자의 ‘자선전적 내러티브’는 연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의 틀을 제공받는 셈이다.

Yoder-Wise와 Kowalske(2003)는 내러티브에서의 분석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반복적인 주제를 찾아보라.’ 개인의 관심, 가치, 중요성, 경험, 흥미 등으로 나타내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이다. 둘째, ‘결과를 찾아보라.’ 결정한 선택의 영향과 원인을 진단해 보고, 셋째, ‘교훈을 찾아보라.’ 미래의 행동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무엇을 배웠는가. 넷째,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찾아보라.’ 본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취약성을 찾아보라.’. 문제에 있어 더 효율적인 접근을 탐구하도록 청자(참여자)를 자극하여 실수한 것과 실패한 것을 확인하라. 여섯째, ‘미래 경험을 구축하라.’ 임의의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한 각본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곱째, ‘다른 원천을 탐구하라.’이다.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자는 처음에 경제적 노후준비에만 주력했었다. 그러나 30대 후반부터 시작된 크고 작은 수술과 46세 때의 암 진단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신체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평균 연령이 4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크게 아파 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므로 노후준비 인식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부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성을 담보로 하는 심층면담의 참여를 통해 이들 연구참여자의 노후준비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로 이러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연구 목적에 대해 언급해 보자면, 이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노후준비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어 이를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을 따르는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해 그 의미를 도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토대로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직면하며 미래에 대한 유추를 통해 노후준비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의미해석의 과정을 거친 후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글쓰기는 어떤 형식이냐 틀에 구애받기보다, 보다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연구자의 상상을 통해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글쓰기의 변화와 확장을 꾀할 수 있는데, Clandinin와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글쓰기는 학문적이면서 시간성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즉, 연구 텍스트에서의 자료들은 복잡적이고 유동적 토대 위에서 지극히 모호함으로 형성된 ‘웅장한 고안물(grand contraption)’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나온 학문적 틀 안에서 시간성과 상호작용성을 구분하여 연구참여자들 삶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내용이 독자들을 대신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삶의 개연성(plasibility)을 검증해 주는 것으로 그 가치가 구현하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결과는 특정 독자를 염두에 둔, 즉,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연구자 자신의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투영시킴으로써 그 개연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내러티브는 자서전적 성격이 강하며 우리의 연구 관심은 자신의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것이 내러티브 탐구의 즐거리를 형성한다고 보았을 때 (Clandinin, 2016),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과 연구자의 삶의 경험은 서로의 삶과 견주어 상상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러한 의미발견이야말로 말로 내러티브 탐구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후준비의 의미를 도출시키기 위한 도구로 채택된 것이다.

4. 연구 윤리

과학적 연구절차를 준수하는 질적연구방법은 엄격성을 강조한다(안형숙, 2016). 질적연구는 엄밀히 말해 연구참여자의 구술적 자료를 근거로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에 자칫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연구를 수행할 때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뢰도 및 타당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자료의 수집에서 분석까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Creswell, 2011). 또한 질적연구는 연구 결과에 대한 개방성과 동시에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며(Glaser & Strauss, 1967), 순환적 자료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쳐 모호하고 불완전했던 처음의 결론이 순차적으로 정교화 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 또는 동료 연구자들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검증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문가와 동료 연구자들과의 상호작용적 연구를 지향하며, 비판적 타인의 역할이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Woods, 1993).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정기적 지도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 받았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실의 논문 발표회(예비 발표 및 본 발표), 정기 세미나 및 수업 외에도 각종 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투고 등을 통해 동료 및 선배 연구자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

연구 텍스트 분석 이후에도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분야 연구자, 질적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에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외에도 연구자 개인의 연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확보한 현장 텍스트와 연구 텍스트의 일관성, 연구참여자 내러티브와 기타 관련 자료들과의 일치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엄격성을 유지하

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성에 전적으로 의존되기 때문에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윤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의 인권, 존엄성,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연구의 윤리는 연구참여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원리,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리, 참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으로부터의 참여자 보호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윤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적 윤리’에 집중한다(Clandinin, 2012). 여기에서의 관계적 윤리는 “탐구를 협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연구 계획서의 윤리적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조건은 내러티브 탐구의 한 부분인 관계적 협상과 어긋나는 것”(Clandinin & Connelly, 2000; 170)으로, 윤리적 고려는 연구의 처음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Connelly & Clandinin, 2006: 483).

이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IRB 승인을 얻었다(IRB 승인번호 190408-4A).⁸⁾ 또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에서도 연구의 목적, 진행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연구참여동의서를 준비하였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로 인한 불편감에 대해 연구자의 배려와 함께 대처 계획,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 및 이익 가능성, 연구의 참여와 중지에 대한 자율성,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동의서에 서명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녹취록이나 전사록 등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 후 이후 폐기할 것임을 설

8) IRB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안전문제를 심의, 지도, 감독, 교육하여 인간연구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 하고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2019). 연구자는 2019년 5월 9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조건으로 IRB 승인을 얻었다.

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소속기관의 IRB 승인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연구참여동시에 승인한 연구참여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연구자, 연구참여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연구동의서를 통해 규정된 연구윤리는 연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연구과정에서 불편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연구의 도구로 취급받는 건 아닌지 하는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연구참여 이후에도 지속적 관계유지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계를 통해 이들 삶의 대한 심리 정서지원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이 더욱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자는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에서의 윤리나 전문심리상담 과정에서의 윤리는 지극히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의 여정을 돌아보고 연구자로서 연구에 임해야할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찰은 연구 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연구자로서 '다시 삶을 살아내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IV.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삶’ 이야기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해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 의미와 그에 따른 성찰 내용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확인은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따르는 노후준비 의미 확인과 함께 이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잘 늙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주류사회 안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확인은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연구참여자 5명의 ‘삶’ 이야기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구성해 보고자 한다.

생애사는 연구참여자 각 개인이 경험한 순차적 시간성 안에서 이들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이해는 다음 V장에서 진행될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로써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 ‘노후준비 의미’의 해석적 토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후준비의 의미를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생애사 개요를 통해 이들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고 이를 다시 어린 시절, 이주 시기, 중년기라는 시기 구분을 통해 구체적 생애 경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과거 어린 시절 경험, 이주 전과 후의 경험, 중년으로서의 현재 경험을 중심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시기에 따른 경험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각 개인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을 물론, 내러티브 탐구에서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적 의미 해석과 연결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해석의 의미를 갖는다.

1. 연구참여자 A: ‘내 삶의 중심은 바로 나’

1980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 A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교직에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한다. 그녀는 딸만 둘의 둘째로서 그녀의 언니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란다. 즉, 언니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교사가 되기 위해 통제적으로 자랐다면, 연구참여자 A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은 물론, 아버지의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대학졸업 후 아버지의 사업을 돕던 연구참여자 A는 보다 넓은 세상을 기대하며, 한국 대기업에 입사 지원하게 된다. 합격 후 연수생 신분으로 처음 만나게 된 남편의 성실함에 반한 그녀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2001년 결혼하게 된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다. 그 후 연년생 남매를 얻은 그녀는 남편의 많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아들을 낳은 며느리였다.

결혼 초에는 전업주부로 알뜰하게 살림하며 자녀양육에만 힘을 쏟았던 연구참여자 A는 5년 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은 그녀에게 매우 큰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급여와 적지 않은 그녀의 급여가 만나 높은 가구 월 소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높은 가구 소득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을 통해 시세차액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생애 경험을 ‘어린 시절’, ‘이주 시기’, ‘중년기’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1.1.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 A는 수학 교사인 어머니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딸만 둘의 둘째로 태어난다. 그녀의 쾌활한 성격과 긍정적 에너지, 그리고 다소 당돌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은 심층면담 현장에서도 면담의 주도성으로 발휘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 처음엔 연구자 역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심층면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연구참여자 A의 특성은 자신과 삶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A의 자신감의 원천 중 하나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녀를 적극적으로 믿고 지원해 주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딸만 둘이다보니, 아빠가 저는 조금 남자애처럼 대범하게 키우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해 보라고 막 내 놓기도 하셨고 신분증 나오자마자 면허 따고 싶어요. 해서 면허증도 따게 해 주셨고, 면허 따자마자 운전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차가 없어서 아빠가 그럼 운전 해 보라 하고 흔쾌히 차도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더 활발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언니는 저랑 성격이 반대거든요. 언니는 흔히 말하는 맏딸? 고집도 좀 있고 성격이 좀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면 엄마아빠가 반대해도 끝까지 하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직생활도 곳곳이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 저랑은 다르거든요.” (연구참여자 A-2)

연구참여자 A의 친언니는 그녀에 비해 공부도 잘 한데다, 수학 교사였던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 영어 교사가 되었다. 반면, 그런 언니에 비하면 연구참여자 A는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딸이었다. 즉, 언니는 자기 고집도 있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면, 연구참여자 A는 그런 언니와는 반대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언니는 부모 사이에서 통제적으로 자랐다면, 연구참여자 A는 개방적으로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공부 잘하고 모범생 같은 언니 덕에 연구참여자 A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그녀의 개방성은 이후 그녀의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아들과 같은 기대를 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수적인 사회상황에서도 딸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는가 하면, 소중하게 아끼는 자신의 자동차를 둘째 딸 운전연습을 위해 흔쾌히 내어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연구참여자 A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자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자신의 식당에서 함께 일하자고 부탁할 만큼, 작은 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까지 한국

으로 이주해 들어 온 둘째 딸 적응을 돕기 위해 3,4년 정도 한국에 머무셨다.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추억하며 잠시 상념에 잠기는 듯 보였다. 말은 안하지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현재 홀로된 어머니와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자주 만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이주 시기

중국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식당일을 돕던 연구참여자 A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의 대기업에 입사지원 하게 된다. 다행스럽게 합격하여 신입생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다. 기업 연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남편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축하여 1년을 꼬박 모은 적금통장을 보여주며 청혼했다고 한다. 즉,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저축을 모르고 낭비하던 남편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 A는 그런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해, 10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리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A와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7남매 중 차남으로 늦어진 결혼 탓에 시댁에서도 아들의 결혼을 반겼다고 했다. 대개의 경우 중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혼자 중국으로 건너가 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시댁식구들 모두가 중국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변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혹시 중국 신부가 돈 때문에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냐.”는 주변의 편견에 시어머니가 몹시 화를 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실 시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편이거든요. 뭐 아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아닌 거는 아니라서. 근데 저희 형님은 20살에 결혼해 오셔서 아들을 못 낳았다는 그런 감정 때문에 여태까지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그냥 순종하셨던 거예요... 저희는 그때부터 바꿨어요... 명절에 저희는 시켜 먹어요. 짜장면 시킬까요? 아니면 애들 좋아하는 통닭 시킬

까요? 피자 시킬까요? 이려고 실컷 먹고...” (연구참여자 A-2)

아버지의 지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자신감과 당당함을 키워왔던 연구참여자 A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딸만 넷을 낳은 순위동서는 자신의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처지였다면, 그녀는 달랐다. 물론, 시댁에서 유일하게 아들을 낳은 기세도 있었겠지만, 연구참여자 A 성향으로 보았을 때, 할 말은 하며 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명절이면 남자들은 모여 앉아 술에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지만 여자들은 부엌에서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의 명절 문화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A는 집안의 여자들을 대신해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 잡고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간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현재에는 명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 일하고 또 다 같이 모여 즐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절에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등 시댁의 명절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게 된 연구참여자 A는 시부모 간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적극 개입하여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3. 중년기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남편과 화장품 원료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A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00만원이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경제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자녀가 어렸을 때는 남편이 받아오는 급여만 알뜰하게 모았다고 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들어간 지금의 직장에서 꾸준히 받게 된 그녀의 급여는 남편의 급여와 합쳐지며 그녀 삶의 만족감과 연결되었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과 남편의 급여를 알뜰하게 모아 청평에는 전원주택 지을 정도의 땅을 사 두었고, 몇 해 전에는 아파트 평수를 늘려 이사했다. 또한, 신도시에 분양받은 중형 아파트가 2채나 된다. 그녀는 그 혼한

정수기 한 대 없이 물을 끓여 마시다가 하면, 지극히 검소한 옷차림,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생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생활소비가 제한된 상태에서 거르지 않고 나오는 자신과 남편의 급여와 근검절약을 통해 축적된 가계자산은 연구참여자 A에게 자신감과 만족감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구 월 소득이 높다 해도, 2채나 되는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여유로운 생활은 불가능할 수 있다.

“회사 다닐 때 늘 그 생각해요. 제가 월세를 놓아도 이 돈 안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돈 주니까 다니지 그러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박사님 한 분은 건물에 관심이 많으셔서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돈 안 나오면 막 미치겠다고 이리시거든요. 하하하... 저희 회사가 정년이 없어요. 사장님 본인이 정년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제까지 건강이 되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다녀라 이리시거든요. 저는 그냥 다닐 때까지 회사를 쪽 다닐 생각이고...” (연구참여자 A-1)

임대수입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 월 임대료가 나올지 말지하고 걱정하는 주변의 모습을 지켜보며, 연구참여자 A는 꾸준히 거르지 않고 들어오는 자신과 남편의 급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년을 없애겠다고 한 회사 고용주의 발언은 그녀의 미래 기대를 더욱 희망적으로 만들어주었다. 즉, 남편과 자신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해 준다면 그녀의 노후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A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나 자신만 믿고 간다.”라고 할 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드러났었다. 또한, 자신은 운이 참 좋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자신의 운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었다. 지극히 검소하지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녀의 행복한 미소 뒤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직면해야하는 남편의 정년퇴직과 오래토록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싶었던 연구참여자 A에게 포착되지 않은 운동과 같은 건강생활실천

은 불투명한 미래생활에서 한 번 쯤 생각해 볼 문제로 남게 되었다. 왜냐하면, 연구자 역시 건강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연구참여자 A와 같이 삶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건강 상실의 경험은 예상보다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으며, 그로인해 삶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매우 협소해졌기 때문이다.

2. 연구참여자 B: ‘빛지지 않고 순응하며 사는 삶’

1979년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 B는 남매 중 첫 딸로 태어난다. 부모님들은 직장생활과 보따리 장사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셨지만 경제관념이 철저했던 아버지와 사람 좋아하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바르고 착한 딸로 자라난다.

2004년 20대 중반에 중국에서 사업하던 13세 차이의 남편과 만나 결혼한 연구참여자 B는 처음엔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3세 아들 교육 문제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한국으로 먼저 이주해 들어온다. 즉, 중국에서 사업하는 남편과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그녀는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 년 전, 중국에서의 사업이 실패치 않던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해 들어와 현재는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벌이는 예전만 못하다.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연구참여자 B는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비록 계약직이지만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빛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가게에 빛이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이라고 했다.

2.1.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 B의 아버지는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신 후 퇴직을 맞아 매월 50만 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받고 계셨다.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로 생계를 이어오셨지만, 현재는 그만 둔 상태다. 어머니는 속옷, 아이들 장난감, 수산물 등 안 팔아 본 물건이 없다고 했다. 부모님은 모두 젊은 시절에 모아둔 자금으로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고 계신다. 경제관념이 철저하던 아버지와 사람을 좋아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두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큰 딸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착하고 순종적인 딸로 자란다.

“저희 집은 경제관념이 엄청 엄격했어요.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대

가를 치러야했어요. 설거지를 하던가, 방청소를 하던가, 신발을 정리하던가, 운동화를 직접 빨아서 쓰던가. 이렇게 해서 썼지 그냥은 안 줘요. 저 때는 거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했죠. (불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던 거 같아요.....[중략].....워낙 사람 많이 오는 거 좋아하다보니까. 저희 엄마도 사람 많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손님이 있었어요. 워낙 손님치레를 많이 하다보니까 북적북적하다가 없으면 조금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 집에 손님이 안 와요. 시어머니 잘 안 오시고, 우리 형님네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하고만 같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B-2)

경제관념이 매우 철저했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셨지만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일을 해야 대가가 주어짐을 철저하게 교육하신 걸로 보였다. 이는 가정에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돈에 대한 소중함을 어린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부모의 노파심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그녀는 방학이면 부모님과 맛있는 것 싸들고 이곳저곳 다녔던 기억을 상기했다. 즉, 부모님이 모두 힘들게 일하시지만 아이들 방학 때면 자녀들을 위해 여가를 거르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녀 역시 경제적으로 조금은 힘들지만, 자녀들 방학 때면 여가를 거르지 않으려는 노력이 포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게 여유가 주어지면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했다.

연구참여자 B는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 담소 나누기를 즐겨했다. 이렇듯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하는 그녀의 성향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연구참여자 B의 어린 시절의 가정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했다. 어머니는 늘 음식을 장만해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겨하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던 가정 분위기라면 한 번 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연구참여자 B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해진 현재의 집안 분위기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철저하던 아버지의 경제관념에 아무런 불만 없이 그대로 따르던 순종적

인 딸.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만 없이 따랐을 착한 딸. 연구참여자 B는 분명 두 부모님 사이에서 순종적이고 착한 맏딸이었다.

2.2. 이주 시기

연구참여자 B는 중국에서 가구 사업을 하던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다. 남편과는 무려 13살 차이가 났던 그녀는 남편에게도 아버지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B는 아버지에게 착한 딸이었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순응하는 아내가 되었다.

중국에서 사업 하던 남편 덕분에 신혼생활은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큰 아이 3살 무렵, 한국말은 하지 않고 중국말만 하던 아들이 걱정되던 남편은 아내와 아들만 한국으로 보내게 된다. 짐작컨대, 큰 아들은 남편보다는 연구참여자 B나 그녀의 남동생과 자주 소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보다는 중국어를 더 자주 접했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은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아들이 중국 외삼촌 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은 남편의 영향으로 짐작되었다. 왜냐하면, 아들이 중국어만 하는 것이 못마땅하던 남편이라면, 중국에 대한 잘 못된 편견도 암묵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고, 이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은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애가 어릴 때 중국에서 살다왔어요. 애가 3살 때 건너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혼을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애가 말 시작 할 때, 신랑이 중국 애 된다고 하하하 한국사람 못 될까봐 걱정 되서 교육 때문에 남편만 중국에 두고 아들 하고 저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애가 어릴 때 중국의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삼촌 집에 놀러가자 그러면 안 간테요. 큰 애가 거기서 뭐 더럽고 어찌고 그런 인식이 있어 갖고 3살 때 본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B-1)

남편의 불안감 때문에 급하게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연구참여자 B와 그녀의 아들은 처음 1년 동안은 시택에서 생활한다. 한국 이주 후 그녀는 종종 알바 정도의 일만 했을 뿐, 남편이 보내준 돈을 알뜰하게 모아 한식, 중식 자격증을 따는 것은 물론,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매입해 분가하게 된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변변치 않게 되자 2년 전에는 남편도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다.

한국으로 들어온 남편은 사업주가 아닌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B는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보다 지금의 생활이 더 어렵다고 했다. 주말부부로 지내온 세월, 그리고 13세라는 높은 나이차이, 사업주에서 피고용인으로 돌아온 남편의 지위 변화는 두 부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3. 중년기

2년 전, 중국에서 10년 이상 하던 가구 사업을 접고 돌아와 한국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게 된 연구참여자 B 남편의 별이는 예전만 못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알바 정도만 하던 연구참여자 B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직장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된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4대 보험에 거르지 않고 나오는 급여를 통해 그녀는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일을 계속 오래도록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직장 동료들을 통해 자신의 기대를 확인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연구참여자 B는 남편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묻더라도 편잔을 주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의 소통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하던 때를 종종 그리워한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직원 부리던 고용주에서 고용주의 채용을 받는 피고용주의 입장으로 돌아간 남편 지위 변화를 보더라도 중국에서의 사업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은 원치 않지만, 남편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빛 없어요. 음, 저는 빛 있으면 안돼요. 저는 빛이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남한테 빚지고 사는 거 싫어하니까. 하하하. 집도 현찰 주고 샀죠. 그전에는 아파트 작은 평수 살다가 둘째가 생기면서 샀죠. 그냥 모아서. 하하하. 아파트 살 때도 그때 당시 16평 아파트 빛 안지고 1억 4천만 원 주고 샀나? 그 아파트 팔아서 다시 아파트로 가려고 했는데,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 안 받으려고 빌라로 갈아 탄 거죠.” (연구참여자 B-2)

빚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던 연구참여자 B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중형 빌라도 현금 주고 매입했다고 한다. 투자도 좋은 귀인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이득이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만약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매월 납입해야하는 아파트 관리비 역시 불필요한 낭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B 부부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매입한 것을 잘 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 역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낭비는 적극적으로 줄여 나아갔다. 가정에 자가용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가 하면, 미래에는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이라고 했다. 그녀는 현재까지 몇 천 만원 모아둔 상태였으며 현금 2억을 모으면 어디에 쓰고 싶은지 묻자,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자녀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여가를 위해 쓰고 싶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B 역시, 현금 2억 모으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미래에도 지금처럼만 꾸준히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란,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신체 건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위치와 곧 정년을 맞이해야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서의 적응을 힘들어하는 남편의 현재 입장을 고려한다면, 연구참여자 B의 미래는 결코 밝게만 그릴 수 없는 이유이다.

3. 연구참여자 C: ‘잡초와 같이 질긴 인생’

1976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출생인 연구참여자 C는 생활력 강한 어머니와 가정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두 자매 중 맏딸로 태어난다. 부모의 보호 속에서 시련 없이 자란 그녀는 결혼 후 고난을 통해 결혼 전 자신이 얼마나 온실 속 화초처럼 성장했었는지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 초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난 연구참여자 C는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그해 겨울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주 후 경험하게 된 한국생활은 그녀 자신이 잡초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즉, 모진 시집살이와 자녀양육, 그리고 생활력 없는 남편을 대신해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야했던 그녀는 결혼 전과 후의 상대성을 통해 온실 속 화초와 잡초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친정부모님은 고생하는 맏딸을 위해 집을 얻어 분가시키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다.

잘 자라 준 남매와 이제야 마음잡고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남편을 생각하자면, 연구참여자 C는 지금까지 잡초처럼 지내 온 자신의 삶에서 보상을 받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남들보다 늦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한다는 다짐을 통해 노후에는 자신의 부모처럼 되고 싶은 희망이 있다.

3.1.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 C의 친정아버지는 매우 가정적이셨다. 그녀는 그런 가정적이고 자상하던 아버지에게 매를 맞기는커녕 야단도 맞은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술도 안 드시고 가정적이던 아버지는 현재까지도 정정하고 건강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술만 마시지 않아도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연구참여자 C에게는 돌도 없는 롤모델이셨다. 부모님은 모두 농사일과 장사로 힘들게 사셨지만, 현재는 임대 수입이 있는 땅과 집,

보따리 장사로 번 돈으로 한국에서 어렵게 사는 큰딸의 지원도 아끼지 않으신다. 연구참여자 C는 그런 어머니의 노후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꿈이 있다.

“누구한테 질책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딸만 둘이다보니까, 엄마아빠한테 야단맞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매 맞은 적도 없고 하나보니까, 누군가 날 지적하는 거 못 참고, 성격도 완벽주의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연구참여자 C-1)

“저는 어렸을 때도 아빠가 저희를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우린 딸만 둘인데 딸들이 가기 싫어해도 어디 가면 꼭 우리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빠는 술도 안 드시고 가정적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강하세요.” (연구참여자 C-2)

부모에게 큰 야단 한 번 맞지 않고 자랐던 연구참여자 C는 누군가 자신을 향해 지적하거나 비난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이나 시댁식구 등 타인에게 받는 지적을 몹시 참기 어려워했다. 그러므로 신혼 때 사사건건 지적하고 혼을 내었을 시어미니와의 동거를 통해 연구참여자 C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이 된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몹시 꺼려했으며 평소 남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다.

딸만 둘인 아버지는 딸들이 싫어해도 늘 함께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다. 직장생활을 하던 미혼 때는 자신이 번 돈으로 그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비교적 자유롭게 여유 있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였다.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녀의 어린 시절은 지금과 비교하였을 때 온실 속 화초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혼 후 고단해진 삶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술도 안 드시는 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철모르고 자랐던 연구참여자 C의 어린 시절은 지금에 비하면 분명 온실 속 화초였다. 그러나 세상은 모

두 부모 같지 않았고 고된 시집살이도 모자라 남편 대신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녀의 어려움은 과거와 현재의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 온실 속 화초와 잡초로 스스로를 확인하게 된 결과이다.

3.2. 이주 시기

1999년 초. 당시 중국에서는 보따리 장사가 유행하였을 때, 한국에서는 IMF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이나 해 볼까 하는 심정으로 들어왔다가 연구참여자 C의 사촌오빠 소개로 남편은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된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는지 병환 중인 자신의 할머니에게 늦기 전에 출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의 결혼을 서둘렀다고 한다.

곱게 자란 딸이 한국으로 시집간다는 말에 걱정이 많던 연구참여자 C의 부모님은 “우리 딸은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나?” 하고 물었을 때, 남편은 “다 제가 하면 되죠!”하고 안심을 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식을 올리고 급하게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연구참여자 C 부부.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밥하라고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다 제가 하면 되죠!”하던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당황스럽고 고생도 많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척척 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생스럽던 자신의 경험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녀를 보자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 많은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을지 짐작조차하기 힘들 정도였다.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하하하. 신량이 막 게임에 빠져서. 게임만 하고 회사는 안 나가고. (게임중독?) 네, 게임중독.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애 두 돌 지나고 한 4살 될 때 기저귀 채워서 어린이집 보내고 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력 강한 건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라기보다, 업

마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헤쳐 나가야겠다. 하면서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기대고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2)

결혼 직후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연구참여자 C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이는 결혼 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연구참여자 C의 잡초와 같은 질긴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즉, 결혼 전의 자신만 보자면 지극히 평범했을 한 소녀의 인생이었겠지만, 결혼 후 겪게 된 온갖 시련을 통해 결혼 전의 자신이 온실 속 화초이고 결혼 후 자신이 잡초로 인식될 만큼 결혼 전과 후의 상황은 지극히 상대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주 후 처음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되었다.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던 곱게 자란 딸은 형제 많은 시댁에서 온갖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잦은 방문으로 손에 물마를 날 없이 고생스럽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또한, 남에게 지적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연구참여자 C는 시집살이를 통해 심리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만딸을 보다 못한 중국에 계신 친정어머니는 딸이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집을 얻어 연구참여자 C 부부의 분가를 강행하셨다.

분가 후에도 그녀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한동안 게임중독에 빠져 직장 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던 남편 때문에 연구참여자 C는 4살 어린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두고 일을 나가야했다. 부업에서 식당 일까지, 그녀는 당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 만딸이 안쓰럽던 친정어머니는 딸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비 지원도 해 주셨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C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으며, 자신도 어머니처럼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으면서 노후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3.3. 중년기

생활력 약한 남편 덕분에 잡초처럼 질긴 삶을 살아내야 했던 연구참여자 C는 어느덧 결혼생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남편은 노후

까지 생각해서 정년이 없는 대형마트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가끔 경제적인 문제로 속을 썩이던 남편이지만 그녀는 경제적으로 치는 사고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생활 속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그런 그녀의 고생을 격려하듯, 잘 자라준 남매와 새로 시작한 남편의 사업, 그리고 시어머니의 인정은 그 동안의 고단한 삶을 위로 받는 듯했다. 변변한 직장 없이 알바만 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직장을 얻게 되면서 그녀 역시 지금처럼만 꾸준히 일한다면 친정어머니와 같은 노년의 여유를 기대해도 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신랑이 한 우물만 봤더라면 진짜, 아파트 두 채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우리도 진짜 열심히 했다면 내가 빌라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아파트에 살고도 남았을 거다. 근데 뭐든 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계획에는 한 3년 이후부터는 큰 애가 대학도 졸업하고 하니깐, 그때부터는 뭐든 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 유지만 된다면, 그때는 좀 월세도 있고 여행도 좀 다니며, 사실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딱 한 번? 북한 산 갔다 온 게 끝이에요. 저는 여름 휴가도 안 갔어요.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 여행 가려면 몇 십 만원 깨지 않아요. 저는 그 돈 깨지는 게 아까웠어요. 그 돈을 쓸 거면 차라리 가전 제품을 바꾸지,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연구참여자 C-2)

여행은 신혼여행이 전부이고, 여가는 사치로 여겨, 여가 즐길 돈으로 가전제품 하나라도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연구참여자 C는 결혼생활 20년, 중년기에 들어선 현재시점에서 새로운 미래 기대를 품고 있었다. 장학금 받는 대학생 딸, 특성화 고에 들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의 자녀지원은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겼으며 앞으로 자신과 남편만 성실히 생활한다면 미래 기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게 된 것이다.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임한다면 문제없을 직장생활, 그리고 남편의 배송서비스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가구 월수입을 생각하면 친정부모님과 같은 노년의 여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과거에도 지금처럼만 성실했다면 지금쯤 아파트에 상가 월세 받는 여유가 가능했을지 모를 일이라며 지난날의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다.

그러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일에 벌써부터 실증을 느끼고 있는 남편에게서 감지된 불안감과 앞날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위치에 놓인 연구참여자 C의 미래 불안정성, 그리고 매 월 꾸준히 갚아 나가야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배송서비스 사업을 위해 구입한 영업용 트럭은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하는 숙제로 남게 되었다.

4. 연구참여자 D: ‘늘 깨어있는 삶’

1970년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 D는 농부이지만 지역의 유지 역할을 하셨던 생활력 강한 아버지와 의존성 높은 어머니 사이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다. 아버지는 억척스럽게 3남매 뒷바라지를 해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 병약한 어머니까지 돌보아 오셨다. 이러한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그녀의 동생들은 중국에서 제법 성공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동생들에 반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연구참여자 D는 베이징 관광회사에서 인연이 된 한국인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목사의 꿈을 안고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내 실망감을 느낀 그녀는 현재는 냉담자가 되었다. 종교에 대한 갈등과 유학생생활에서의 외로움 사이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그녀는 결혼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목사의 꿈은 접게 되었다.

결혼 후 얻게 된 하나뿐인 아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 경험을 통해 이주여성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주자 처우개선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면서 여성으로서 수많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노년기에도 건강하게 사회 활동하는 존경받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기대하게 되었다.

4.1.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 D의 아버지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지만, 지역의 유지처럼 마을의 이장 같은 일을 도맡아하시며 지역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덕망 높은 분이셨다고 했다. 아버지의 인생철학은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저축하는 것으로 여기고 남매 셋에 대한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 스스로 경작하지 못해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땅이 전부이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연구참여

자 D의 여동생은 대학의 교수가, 남동생은 한국 대기업의 중국지사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자녀지원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딸은 동생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40대부터 시작된 병환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 계셨고, 현재까지도 아버지의 돌봄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시다. 연구참여자 D는 자녀 지원에 헌신적이고 아픈 어머니까지 돌보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반면,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오래살기를 바라는 어머니를 통해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인을 희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의 어린 시절은 제법 똑똑하고 총망 받는 아이였다. 개인 삶에 대한 번뇌와 함께 시작된 사회문제인식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고뇌와 사회문제인식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천해 옮기려는 능동적 행위와 연결하였고 그 영향은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정치학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소논문을 썼는데, 길림성에서는 1등 했고, 전국에서는 2등 했어요. 논문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중앙에서 지방을 차로 내려가면, 다른 데서는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데를 보여줘요. 그러면 정부에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겠죠. (음음) 근데 저희가 살던 고향에서는 보여주기를 많이 해요. 제일 잘 돼있고 잘 하는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아 저기는 잘 사니까 지원 안 해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 아주 어렵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연구참여자 D-2)

연구참여자 D는 당시 개혁 바람이 거세게 일던 중국의 사회 분위기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했던 소논문의 경험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치학 수업을 들으며 접하게 된 지역사회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경험은 현재까지도 그녀에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경험이 되고 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소논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신나고 멋진 경험이 되었다.

그렇게 완성된 소논문은 길림성 지역 1등, 중국 전체 2등의 영예를 얻으며 연구참여자 D에게 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 준 결정적 경험이 되었다. 어찌면, 당시 그녀도 자녀 지원에 아낌이 없던 아버지에게 기대 많은 딸이었을 것이다.

4.2. 이주 시기

중학교시절 민족주의교육을 받으며 운동주 시인을 좋아하게 된 연구참여자 D는 연변 대학에서 조선어 문학을 전공하게 된다. 이후 그녀는 운동주 시인 전시관과 베이징에 있는 관광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한국인들과 만나게 된다. 특히, 선교단체에서의 통역 경험은 당시 무신론이던 중국 분위기를 피해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된 동기로 작용되었다. 즉, 그녀는 신학을 위해 유학을 핑계로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목사가 되기 위해 처음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그녀는 교회 선교사의 도움으로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맺고 끊음이 분명한 그녀는 중국에서 접했던 신학과 한국에서 접하게 된 신학 사이에서의 괴리 경험을 통해 종교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심경의 변화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종교에 대한 회의와 타지생활에서 오는 외로움 사이로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된다. 남편은 사학과 출신으로 연구참여자 D와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 민족역사 이야기, 사회문제 등을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국문학 석사 졸업 후 남편과의 결혼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신학의 꿈을 접게 된다. 미래 종교인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결과적으로 이주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그 때 관심이 생겼는데, 왜냐면, 그때 마침 제가 박사과정 수료하고 그 다음에 논문 쓰려고 하는데, 대통령직속기관도 계약기간 만료고 한시적인 위원회였으니까, 그래서 고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하루는 학교를 안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 학교에서 애들이 외국인이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외국인 처럼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옆집 아이가 어른들이 중국말 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아 저 집은 중국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깐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놀린 거예요.” (연구참여자 D-1)

국문학 석사를 마친 후 결혼 한 연구참여자 D는 결혼 이후에도 같은 대학에서 같은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대통령직속기관의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계약직 위원으로 합류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즉, 그녀의 전공은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 되었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의 차별경험을 계기로 그녀는 다문화교육전문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녀는 혹시 우리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계획지도 않던 귀화를 결심하게 되었고,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중국이나 화교학교에 보낼까하는 고민까지 했었다. 이런 그녀에게 아들의 차별경험은 그녀의 의식 수준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들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교대의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받게 된 연구참여자 D는 당시 다문화교육이 한창이던 사회분위기를 통해 벌써 8년째 다문화교육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8년 전에 비해 다문화교육 강사의 처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서 다문화교육전문가, 이중언어강사, 다문화위원회 활동, 이주민단체 활동 등 그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실천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다져 나아가고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 D의 의식 수준은 우리 사회 안에서 늘 깨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4.3. 중년기

아들의 차별경험을 계기로 다문화교육전문가와 이중언어강사, 다문화위원회 활동, 그리고 이주민단체 활동 등 그 영역을 확장하며 이주민으로서

의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다지고 있던 연구참여자 D는 한국이라는 사회현실 안에서 이주민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수많은 ‘유리천장’⁹⁾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녀의 좌절 경험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었다.

자신의 동생들은 중국에서 제법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반면, 맏딸인 연구참여자 D 스스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 그런 자신의 처지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종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다 필요 없고 아들만 곁에 있으면 된다고 낙담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들만 독립한다면, 동생들과 아버지가 계시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한국어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 권사님이 평생을 유치원 원장님을 하셨어요. 근데 연로하셔서 지금 80세 가까이 되세요. 그런데도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강사를 나가시는데 명강사예요. 동화 구연... 그분은 노년에도 도전하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중학교 가서 학교폭력예방 교육하고, 그분은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신 분이예요. 저의 롤모델이에요.....[중략].....국민연금 들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축을 해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사회적 기업을 해서 다른 분 모셔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D-1)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녀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노년에도 건강하게 일하며 주변으로부터 존경 받는 노인이 롤모델이라고 하였고, 또한 우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주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기대처럼 한국 사회에서 존경 받는 노인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문화활동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결

9)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용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에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특히 여성과 소수 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 D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었다.

코 포기할 수 없는 경력이 된다. 또한, 중국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만이 이주민이면서 여성으로서의 다문화활동 전문가 타이틀은 여전히 유효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참여자 D는 현재의 경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활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녀는 미래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계획을 품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경제활동을 위한 실천이라기보다 그녀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사회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연구참여자 D는 말로는 한국에서의 수많은 유리천장을 경험하며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좌절을 딛고 다시 새롭게 도약하려는 그녀의 숨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녀의 기대처럼 노년에도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도약은 한국 사회 안에서 여전히 놓고 싶지 않은 그녀 자신의 미래 기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연구참여자 E: ‘신앙, 내 삶의 의미’

1997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 E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다. 그녀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재혼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18세이던 연구참여자 E는 갈 수 있던 대학도 포기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취직해 일하게 된다.

20대 중반부터 겪게 된 원인모를 불안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연구참여자 E에게 신앙은 삶의 희망과도 같았다. 즉,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경험된 신앙은 그녀의 불안장애를 말끔하게 날려버리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연하남편을 만나 결혼한 그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따라 한국으로 귀화하게 된다. 이전에 연구참여자 E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먼저 한국으로 이주해 귀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 부부의 귀화는 어렵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교회의 목사나 사모의 기도를 통해 해소하고 있던 그녀는 한국 이주 당시보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1. 어린 시절

고혈압을 앓고 계셨던 연구참여자 E의 어머니는 질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 탓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자의 시아버지 역시 고혈압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험을 상기하자면, 연구참여자 E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공감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그녀 나이는 겨우 18세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정은 돌보지 않고 남에게 베풀기만 좋아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잦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였다. 그로 인해 연구참여자 E는 아버지 때

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원망한 때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 후 얼마 되지 않아 새어머니를 얻어 재혼하셨다고 했다. 또한, 각자 사는 것이 바빴을 형제들 역시 막내인 연구참여자 E를 돌볼 겨를이 없던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남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버텨내야 했던 그녀는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봉제공장에 취득해 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학력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저 1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새엄마를 얻으신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이 만나서 사시다가 한국 들어오셨어요...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엄마 돌아가시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학업도 좀 잘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연구참여자 E-1)

“그때는 엄마는 많이 힘들어 했죠. 아버지가 가족들은 안 챙기고 그래서 그때는 엄마 마음을 헤아렸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입장에서 많이 봐야하니까...” (연구참여자 E-2)

학창시절에는 공부에 관심도 많고 공부도 곧 잘 하는 모범적인 딸이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했을 어머니 사이에서 목격된 부부갈등 경험은 연구참여자 A를 소심하고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게 했을 것이다. 늘 곁에서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린 딸은 그런 어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자신을 통해 무력감도 함께 경험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의 소외경험을 통해 느꼈을 원망감은 그 누구에게도 표출해 보지 못한 채 연구참여자 E의 감정 안에 고스란히 남았다.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 채 대학생살이라는 미래 기대까지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20대 중반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안장애는 참고 억눌렀던 그녀의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하지만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신앙적 체험은 기적과도 같이 그녀의 불안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 하고 있었다. “그 때는 돈을 잘 벌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은 좀 없어도 마음은 편해요.” 이처럼, 그녀 안에 자리 잡은 신앙은 어머니를 여위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돌도 없는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5.2. 이주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 봉제공장에 취직해 일하던 연구참여자 E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남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중국동포 출신이며, 연구참여자 E보다는 1살 연하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함께 먼저 한국으로 이주해 귀화한 상태였고 연구참여자 E 부부는 아버지를 따라 특별귀화를 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첫 아이를 낳았고, 한국으로 귀화 당시에는 둘째 아이 출산과 맞물려 있던 시기였다. 그로인해 귀화 면접심사를 미뤄야했지만, 귀화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이었다.

“둘째 임신 했을 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금방 한국 와서 남편 한 달 수입이 70만원 정도였어요. 수입도 적은데 둘째까지 임신해서. 그때 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가져서 제가 둘째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신앙적으로 이겨냈어야 하는데, 주변에 형제자매가 없는 것도 아닌데 손 내밀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니까 부업도 조금씩 하고 남편 수입도 조금씩 올라가고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믿음 이 약해서 그것을 못 이겨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2)

연구참여자 E는 이주 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큰 고비를 맞게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 둘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심이 약해 생긴 불찰로 여겼다. 또한, 귀화 당시 한국에 먼저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자신의 시련을 형제들과 나누지 못했다. 귀화, 출산,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

지 겪어야 했던 연구참여자 E 적응의 어려움은 우리가 짐작조차하기 힘들 정도로 버거운 삶의 무게였을 것이다.

미래에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남편은 창문시공(샤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기술 보조를 자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러나 근면 성실한 남편은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꾸준히 기술을 배우고 익혀, 현재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것으로 보였다. 즉, 기술적 향상으로 인해 임금 또한 향상된 것이다.

죽고 싶을 만큼 어렵던 시절, 자신의 신앙심이 부족해 생긴 불찰로 여겼던 연구참여자 E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기도한 덕분에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던 그녀에게 신앙이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으로 이주 후 겪게 된 어려움 역시 신앙을 통해 극복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 E에게 신앙은 뭘 해야 뭘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접했던 신앙을 통해 불안장애를 극복한 후, 한국인 선교사를 따라 한국에 이주해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 신앙과 교회의 목사나 사모는 그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5.3. 중년기

인생에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신앙에 의지해 왔던 연구참여자 E의 신앙생활 안에는 교회의 목사나 사모의 역할이 중요했다. 처음 연구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신앙이 있냐고 묻던 그녀는 연구자가 신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며 노파심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E의 신앙생활 안에는 기도를 통해 삶의 역경을 풀어내는 교회의 목사나 사모의 역할이 일정부분 영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못다 이룬 학업을 위해 선택

했던 온라인 대학 역시 주일에 출석이 필요 없는 사이버 대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목사나 사모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삶의 어려움을 풀어낸다고 하였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삶의 역경을 풀어내는 교회의 목사나 사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회의 헌금이 일정부분 지출될 것으로 짐작된다.

타이트한 생활 속에서 모자란 생활비 문제로 연구참여자 E의 남편이 생활비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의 일정부분은 저금하지만 따로 아내와 자녀들 용돈을 주고 있다고 했다. 짐작컨대, 아내의 용돈이 따로 책정된 것으로 보아 아내 개인을 위해 사용되는 생활소비 같지 않았다. 즉, 남편이 아내의 용돈을 책정하여 따로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 풀어 주는 교회 목사나 사모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지출되는 교회의 헌금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쓸 수 있다며 의미 있게 웃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믿음. 필요하면 채워 주실 거고,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물질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연구참여자 E-1)

“생활비가 주어지지만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 맞추긴 하지만 한 달 동안 유지해야 하니까, 그게 좀 힘들죠. 제가 생활비를 여유 있게 남겨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조사비나 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뭐 수리할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죠.” (연구참여자 E-2)

연구참여자 E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앙은 그녀에게서 신앙을 빼앗아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배우고 가르치고 베푸는 삶이라 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어 강사 일을 하려고 보니, 학력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못 다 이룬 학업의 뜻을 이루고자 사이버대학에 입학했으며, 그녀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박사학위까지 꿈꾸고 있었다. 그렇게 배우며 중국어 강사로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만약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를 자원봉사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삶의 어려움이 신앙으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고충은 피하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연구참여자 E는 정해진 가게 수입 안에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생활변수를 통해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남에게 베풀기만 좋아하고 정작 자신의 가족은 돌보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가끔 급전이 필요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베풀지 않고 산 다른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버지의 노년을 지켜보며, 연구참여자 E는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자신의 고단한 삶의 경험과 신앙생활을 통해 원망스럽기만 하던 아버지에게 대한 감정이 변화된 것이다.

6. 소결

이 연구는 중년기를 40세에서 60세로 정의하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이들 연구참여 5명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대한 의미와 성찰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생애사를 활용하였다.

생애사는 한 개인의 경험을 시간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성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교류되는 경험 안에서 개인 삶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영순 외, 2018). 이러한 개인의 생애 경험은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하는 노후준비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어 개인 삶의 이해를 통해 반추하고 또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삶’ 이야기’라는 IV장의 구성을 통해 연구참여 5명에 대한 ‘어린 시절’, ‘이주 시기’, ‘중년기’라는 3가지 시간성 안에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들의 생애 경험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 5명 각각의 생애 경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딸만 둘인 집안에서 아들처럼 자란 연구참여 5명 A는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아이로 자란다. 이러한 그녀의 성향은 결혼 이후에도 시댁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자들만 일하는 명절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남자들도 합류시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병환 중일 때, 가족 중 누가 간병할지에 대한 문제가 붙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병인을 고용 등 불합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참여 5명 A의 행동은 당돌하고 할 말 다 하는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모두가 편안해진 가족 분위기를 통해 그녀의 역할은 정당화 되었다.

갓 중년기에 접어든 연구참여자 A는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삶은 그녀가 원하는 데로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2채에 대한 중도금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주변인들보다 여유로울 자신의 노후를 상상하였을 때, 마음만은 든든하다. 이에 연구참여자 A는 정년기간을 없애겠다는 고용주의 발언에 힘입어 최대한 오래토록 지금의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100세까지 월급쟁이로 살고 싶어 하는 연구참여자 A의 기대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건강생활은 탐색되지 않았다.

경제관념이 철저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연구참여자 B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용돈 외에 용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집안일을 돕거나 자신의 운동화를 스스로 빨아 신어야 했다. 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담소 나누기를 좋아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연구참여자 B의 집안에는 언제나 사람들도 북적였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만딸인 그녀는 어머니의 심부름도 마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과 말씀을 믿고 따랐던 연구참여자 B는 결혼 후에도 13살 차이나는 남편의 말에 순응하는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 사람들로 북적이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 역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담소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과의 소통 부재, 시댁과의 관계 단절 등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 B 부부는 남에게 빚지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에서 분가할 때도 비록 작은 평수의 아파트지만 대출 없이 현금 주고 매입했다고 했다.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평수를 늘려 가야할 때도 빚지지 않기 위해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했다. 즉, 그녀에게는 아파트 관리비도 낭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B는 앞으로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이라고 했다. 현금 2억을 모으게 되면 자녀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여가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연구참여자 C는 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딸이지만, 결

혼 후의 어려움을 통해 결혼 전의 자신을 ‘은실 속 화초’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달리 표현하자면, 결혼 후의 자신은 잡초와 같은 질기고 역센 삶을 상대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야단한 번 맞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자란 딸이었으며, 자신이 번 돈으로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경제관념이 없고 생활력 약한 남편 때문에 연구참여자 C는 여행과 같은 여가를 사치로 여기게 되었다. 즉, 결혼 전엔 친구들과 여가를 즐길 만큼 여유로웠다면, 결혼 후의 여가는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금전적으로 사고를 많이 치던 남편을 대신해 둘째 아이 4살 무렵 시작된 경제활동은 자신만 성실하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연구참여자 C의 자신감과 연결되었다. 어렵던 시절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딸 내외를 분가시키고, 생활비 지원까지 해 주신 친정부모님은 그녀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자녀지원과 이제야 마음잡고 시작한 남편의 배송서비스 사업을 생각하자면, 연구참여자 C의 노후준비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에 벌써부터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남편과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영업용 트럭에 대한 분할 상황, 그리고 단순 노무 계약직인 그녀의 보장받지 못한 미래를 생각하자면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업이 많아 보인다.

연구참여자 D는 교육열이 강했던 아버지와 심약한 어머니 사이에서 맏딸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존경하는 반면, 어머니를 통해서도 민폐 끼치지 않는 노인을 희망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녀의 동생들은 대학교수에 대기업의 지사장이 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맏딸인 연구참여자 D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 드리지 못했다. 어릴 적에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논문도 쓰는 똑똑한 딸이었으며 신앙을 위해 한국 유학길에도 올랐었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뜻대로 되지 못했다.

자기 진로에 대한 절망감과 유학생생활의 외로움 사이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연구참여자 D는 남편과 결혼 후 아들 하나를 얻게 된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차별 경험을 계기로 그녀는 이주민 처우에 관심

을 갖고 실천하는 사회활동가가 된다. 하지만 그녀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성인 것도 모자라 이주민으로써 수많은 유리천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있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마음일 뿐, 그녀는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이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E는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다. 아버지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정에는 소홀하셨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는 늘 갈등관계에 놓였고, 아버지 대신 가족을 돌봐야 했던 어머니는 결국 지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다. 당시 18세이던 연구참여자 E는 아버지의 빠른 재혼을 지켜보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원망을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 채, 다닐 수 있던 대학도 포기하고 봉제공장에 들어가 일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E의 감정 억압은 신체화 증상(김영애, 2011)으로 나타났다. 20대 중반에 찾아온 원인 모를 불안장애로 고통 받던 그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처음으로 신앙을 접하게 된다. 바로 이들 선교사의 심리·정서지원과도 같은 관계의 경험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던 연구참여자 E에게는 돌도 없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굳은 신앙의 의지로 연결되었고 이렇게 경험된 신앙적 체험은 그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았다.

이후 늦은 나이에 같은 중국동포 출신 연하남과 결혼한 연구참여자 E는 둘째 출산 당시 먼저 귀화한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다. 그녀 이주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을 기도로 풀어내는 교회 목사와 사모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 온 것이다. 또한 그녀는 이주 당시의 경험을 가장 힘든 시기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자신의 신앙심이 부족해 생긴 불찰로 여기고 있었다. 그만큼 연구참여자 E의 삶은 신앙으로 의지되고 있었으며 신앙은 그녀 삶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생애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지나온 삶의 경험이 개인의 성격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현재는 지나온 과거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었다. 이는 미래의 정체성 형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생애사가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충분했다 (김영순 외, 2018).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영향에 의한 미래 예측은 다음장에서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즉,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의미까지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V.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 노후준비의 의미

이번 장에서는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관점의 노후준비 의미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가 활용되었다. 즉, 이들의 과거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반추하고 노후준비라는 미래에 대한 유추와 성찰을 의미 있게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된 현상 안에서 경험의 관점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다음의 4가지를 통해 경험을 탐구하게 된다(Clansinin, 2016, 48). Clansinin & Connelly(1998)은 ‘삶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삶을 살아내고(reliving)’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와 살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다시 살아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한 후 자기 성찰 내용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내러티브 안에서 확인된 노후준비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인은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의 중년기라는 생애발달과업과 노년기의 안정적 진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특성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노후준비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후준비 특성 표에는 삶의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 유형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 외에 기대수명, 운동, 건강생활정도, 월 소득, 주거 형태, 자동차, 그 외 자산, 채무, 노후기대자금, 종교, 여가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특성을 한 눈에 확인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노후준비 특성표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의 심층면담에서 발견되고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

다. 내용은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연구참여자 노후준비 특성

구분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E
삶의 만족도	4.8점	3점	3.5점	3점	4.5점
중요한 노후준비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사회 정서적	경제적
기대수명	100세	80세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	85세
운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건강생활	중	중	중	중	중
월 소득	1,200만원	350만원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주거형태	자가 (아파트)	자가 (빌라)	자가 (빌라)	자가 (빌라)	전세 (아파트)
자동차	1대	없음	2대	1대	없음
그 외 자산 (부동산)	3건	없음	없음	2건	없음
채무	없음	없음	담보대출 자동차할부	없음	약간
노후기대 자금	월400만원	월300만원	월150만원	월200만원	월200만원
종교	없음	없음	없음	냉담자	기독교
여가	친정방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 V-1>의 노후준비 특성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서는 연구참여자 A가 4.8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되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참여자 E와 C 순이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B와 D는 5점 중 3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준비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D를 제외하고 모두 경제적 노후준비로 나타났다. 이들의 희망기대수명은 연구참여자 A는 100세, 연구참여자 B와 E는 80대로 나타났으며, 연구참여자 C는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 연구참여자 D는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까지로 표현할 뿐, 구체

적 연령 언급은 없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현재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운동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으로 자신의 건강생활을 중간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들의 현재 월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가 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연구참여자 E는 3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연구참여자 C와 D는 똑같이 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참여자 B는 3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모두 자가로 나타났지만 연구참여자 E만은 전세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A와 E만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B와 E의 가정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며, 연구참여자 A와 D 가정엔 자가용 승용차가 1대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C의 가정에는 자가용 승용차 1대와 영업용 트럭이 1대 있었다. 자동차와 거주 중인 집 외에 이들의 부동산 보유 상황을 살펴보면, 월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던 연구참여자 A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참여자 D는 2건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나머지 연구참여자 B와 C, E는 자가 외에 다른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와 B 그리고 D는 채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연구참여자 C는 주택담보대출에 자동차 2대에 관한 분할상환이 남아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E는 자녀 병원비 문제로 친정아버지에게 약간의 채무가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노후에 기대하는 생활자금을 살펴보면, 가구 월 소득에 보유한 부동산이 가장 많았던 연구참여자 A는 노후기대 자금 역시 월 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등 채무가 많던 연구참여자 C는 노후기대자금이 15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연구참여자 B는 월 300만원을 희망하였고, 연구참여자 D와 E는 월 200만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종교 유무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 B, C는 모두 종교가 없다고 한 반면, 연구참여자 E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D는 중국에서 신학의 꿈을 품고 한국으로 유학 온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냉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여가 정도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A만이 휴가 때 친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외에 다른 여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정기적이거나 계획적인 여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은 다음에 제시될 노후준비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어 전반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다음으로 노후준비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우선 각 노후준비 유형을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탐색된 바와 같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나누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즉, 노후준비의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하고 그에 해당하는 노후준비의 의미를 도출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노후준비 의미에 관한 내러티브

구분	의미	내용
신체적 노후준비	건강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만 믿고 가는 노후 • 금주·금연만하면 건강은 문제없어요.
	건강 상실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하고 싶지만 극복해야 하는 건강 상실 • 아프면 요양원 가야죠.
경제적 노후준비	절약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절약생활 실천 • 부모처럼 되고 싶은 노후
	돈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 • 자녀지원 OK, 자녀부담 NO
사회 정서적 노후준비	소외와 외로움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관심 필요 • 신앙만 있다면 노후는 걱정 없어요.
	여가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는 아직 사치예요. • 노년에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표 V-2>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노후준비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내용으로는 건강과 건강 상실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두 번째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절약과 돈의 의미가 확인되어 나타났으며, 끝으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서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여가의 의미가

확인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된 노후준비 의미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삶의 이해는 물론,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 및 기대 확인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시키고 도출된 의미 확인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성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러한 성찰은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짐은 물론, 그에 따른 사회적 함의와 대안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신체적 노후준비

1.1. 건강의 의미

1) 나 자신만 믿고 가는 노후

인간은 부모를 잘 만나 충분한 지원을 얻지 않는 이상, 스스로 움직여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만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가정이나 직장, 지역사회 관계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사회적 입지를 확인함은 물론, 삶의 의미를 함께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 활동의 의미는 삶의 만족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건강의 의미는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단지 신체적 건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만이 경제적, 사회·정서적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미래 자신감과 연결됨을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건강한 몸과 정신은 미래의 든든한 자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다.

“아, 저희 회사가 정년이 없어요. 사장님이 본인이 정년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제까지 건강이 되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다녀라 이러시거든요. 저는 그냥 다닐 때까지 회사를 쪽 다닐 계획이고, 신랑이 엔지니어 기술자예요. 좀 큰 회사인데 인원감축이 들어갔는데 신랑은 현장 직원이 아니라 기술부라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있어요. 하하하.” (연구참여자 A-1)

나올까 말까하는 월세를 받는 것보다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나오는 급여를 더 신뢰하던 연구참여자 A는 이를 통하여 임대수입이 나오는 상가보다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나 휴양지 땅을 더 선호했다. 남편과 자신의 급여를 합쳐 월 가구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밝혔던 연구참여자

A는 정년을 없애겠다는 고용주의 발언에 힘입어 지금처럼만 꾸준히 100세까지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결혼 초, 남편이 혼자 벌 때에도 수입의 70%를 저금하고 나머지 30%로 생활한 것도 모자라, 현재는 맞벌이를 통해 가계소득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없이 물을 끓여 마시는 그녀의 검소함을 보자면,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렇듯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는 일은 연구참여자 A 부부에게 들도 없는 삶의 희망이며 기쁨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꾸준히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정년을 없애겠다고 한 발언은 연구참여자 A에게 보장된 미래만큼 든든한 미래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곧 정년을 맞을 남편과 아직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 A가 100세까지 꾸준히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되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조금은 슬프겠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하니까 빈자리도 크겠죠. 그런데 뭐 여자들은, 엄마들은 강하다고 하잖아요. 뭐 혼자서 여가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여자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연구참여자 B-1)

“그래도 뭐 옆에 자식들도 있고, 자식도 자식이지만 내 시간도 있고, 내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은 뭐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연구참여자 B-2)

인간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높다고 보았을 때, 연구참여자들 중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가장 많이 나던 연구참여자 B에게 만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을지 물었다. 그녀는 조금 슬픈 일이겠지만, 자녀와 주변의 친구들이 있어 상관없다고 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13세 나이차이로 인해 자신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편과의 소통보다 주변 친구들과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녀의 인식은 만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에서도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 없이 혼자 늙어가더라도 주변 친구들과 여가를 즐기는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기대 속에는 미래에도 충분히 지금처럼만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

“땀개는 아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소일거리는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 의존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하하하. 아마 제가 아직 건강해서 그런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1)

과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남편 덕분에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해야 했던 연구참여자 C는 둘째 자녀 4세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 지금 그녀의 둘째 자녀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갓아 나아가야 할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으며, 남편이 최근 들어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녀가 바라는 노후준비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그녀에게 건강의 의미는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여유로운 노년을 위해서라도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되고 있다. 특히, 남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그녀의 성향은 노년에도 자기 자신만을 믿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뭐든 걸 제가 알아서 하니까... 예를 들면 관공서 처리하는 거나, 뭐 아이 상담, 학부모회의 같은 데 제가 다 가서 하고,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다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부딪히면서 여기저기 해결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저를 의지하는 거 같아요.....[중략].....저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독실하지 않아요. 하하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1)

연구참여자 D는 결혼 전, 베이징에 있는 관광회사에서 제법 잘 나가는 인재였다. 그러나 그녀는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적도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 무신론이던 중국의 사회 분위기를 피해 한국 유학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접했던 신앙과 유학 후 한국에서 경험된 신앙 사이에서 그녀는 괴리감을 경험하게 된다. 즉, 늘 문제의식이 남달랐던 그녀였으므로 신앙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을 핑계로 목사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는 중국에서 잘 나가는 동생들과는 달리 한국으로 이주해 신앙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기대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신앙에 의지하던 삶에서 나 자신만을 믿고 가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D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처음 한국으로 이주해 오지만, 결혼과 함께 시작된 본격적인 한국생활은 유학생생활과는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녀의 성향처럼 결혼생활에서도 사소한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꼼꼼히 따져 해결해 나아가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의 대소사는 그녀의 몫이 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신앙보다 나 자신의 결정과 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다.

가족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렸음을 아는 연구참여자 D는 비록 무좀으로 진단되었지만,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과 같이 건강을 위해 따로 실천하고 있는 건강생활행위는 포착되지 않았다.

“요양병원 가면 자식들이 버렸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면 시원하고 좋기는 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똑같은 환경에서 하루하루 종일 전쟁을 치러야하고, 조금 있으면 밥 주고, 또 조금 있으면 자야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아파서 집에서 살면서 밖에도 돌아다니고 다 느끼면서 혼자...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E-2)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나 만약 혼자 된 친정아버지가 아프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습을 통해 경험된 요양병원에서의 경험은 아프지 말고 오래토록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의 경험은 노인들이 시원하거나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노년에는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게 되었다.

비록 소일거리로 폐지를 줍는 친정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가끔 급전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노후기대를 설계하고 있었다. 즉, 과거에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면, 현재는 아버지의 자립을 통해 존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E에게 건강의 의미는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을 통해 건강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 것이다.

2) 금주·금연만하면 건강은 문제없어요.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의 의미는 심신의 건강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자산과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남편 없이 혼자가 되더라도 남은 가족들을 건사해야함은 물론, 자신의 미래를 도모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산과도 같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뭐 가끔씩 찌뿌둥할 때, 걸어 다닌다던가 뭐 꾸준히 운동을 하는 편이

에요. 그리고 뭐 비타민 같은 거 먹고... 아프면 바로 병원 잘 다니는 편이고, 모임도 있어요. 저희 고향에서 온 친구들 모임도 있고, 여기 사회에서 만난 엄마들 모임도 있고, 회사 동료들 모임도 있고...” (연구참여자 B-1)

“직장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들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쪽으로 가도 그것도 스트레스 받겠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그러다 그냥 지나가고... 힘들니까 집에 가면 쉬죠. 운동은 딸내미하고 같이 공원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정도...” (연구참여자 B-2)

화장품 제품 포장이라는 단순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B는 만약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하여 몸이 편안한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육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로 여기고 있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음을 터득한 그녀는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알바 정도의 일만 하던 그녀가 계약직이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즉, 알바와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얻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은 꾸준히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이나 아프면 병원을 찾는 일, 그리고 가정에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거나 딸아이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는 정도를 운동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각종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나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금주·금연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술 안 좋아해요! 술 안 좋아하지, 담배 안 피우지. 요즘은 회사가 보면, 여자 50% 정도가 담배를 피워요. 회사에 언니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50대거든요. 50대 연령 언니들 중에 반은 다 흡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언니들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 끊더라고

요. 끊는 게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중략].....아빠가 가정적이셨는데 술도 안 드세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세요.” (연구참여자 C-2)

친정어머니의 성향을 물려받아 깔끔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 C는 고된 직장생활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서도 가정생활에 소홀함이 없다. 아이들 교복은 칼 같이 다려 입혀 보내야 마음이 편하고, 주부들이 좋아하는 TV 드라마는 편하게 앉아 시청할 여력이 없어 소리로만 듣는다고 했다. 깔끔한 성격 탓에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 방문할 때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다는 핀잔을 주기도 한다. 연구자와 면담 약속이 있던 날도 집안 일 하느라 늦어져 택시를 잡아타고 왔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그녀는 자신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개인적 여유는 없어 보였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운동이나 여가는 일상의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C는 주변의 동료들과 다르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친정아버지처럼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건강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연구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음주로 건강을 상실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자기공개를 통해 자신의 친정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 특별하게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은 없지만, 금주와 금연만으로 건강생활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만약 건강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불러올 재앙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화로 해석되었다. 달리 말해, 자신의 보장된 건강을 통해서만이 불안한 미래에 대비되기 때문이다.

“돈 관리는 공동으로 해요. 집도 공동 명의로, 신랑 수입에서 생활비만 공동이고 각자 관리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저는 낭비도 안하고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대신, 남편은 술 담배 다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많이 못 모아요...” (연구참여자 D-1)

“제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로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젊은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절대 가서 부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하하.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빠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래도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하하하” (연구참여자 D-2)

돈이 많은 것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픈 열망을 드러냈던 연구참여자 D에게 금주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남에게 민폐키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절제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거주 중인 집을 제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와 시부모가 거주 중인 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 그녀 가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녀의 미래 기대에서 경제적 인 요소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사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로서 한국 사회에서의 인정과 존중을 열망하고 있음이 분석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남편의 행동이 그녀 입장에서는 몹시 못마땅하다. 가계 경제도 두 부부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술·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 잘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D의 미래 기대는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인이며, 그녀의 열망은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돌보지 않아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즉, 자녀지원에 아낌없이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에 반해 스스로의 몸을 돌보지 않아 오랫동안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 온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남편 역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분명 자신의 어머니처럼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아내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D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 번 삶의 이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1.2. 건강 상실의 의미

1) 피하고 싶지만 극복해야 하는 건강 상실

평균 연령이 45세인 연구참여자들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아파본 경험이 없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 D만이 지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을 뿐, 결과가 나쁘지 않게 되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여담이 확인되었다. 그런 그녀들에게 중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충분히 당면될 수 있는 미래의 건강 상실에 대한 예측은 다소 혼란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건강 상실의 경험을 담대하게 직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화와 함께 찾아올 건강 상실의 경험은 인간발달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보편성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누나도, 그러니까 어머님 딸인 거죠. 누나도 유방암 수술을 했고, 주변에도 아는 언니들도 암은 한두 명은 있고 그래서 진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중략].....만약에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겁나고 두렵겠지만 가족과 주변에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어찌면 길게 싸워 가야할 길을 천천히 준비할 것 같아요. 병원도 열심히 찾아보고 치료에도 적극협조하고 동참하며 최선을 다 함과 동시에 소중한 시간을 더 값지게 활용할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2)

삶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삶의 만족감이 매우 높았던 연구참여자 A는 미래에 닥칠지 모를 건강 상실을 상상하였을 때, 처음 그녀는 몹시 당혹스러워 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 건강 상실은 지금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처음 직면하게 된 건강 상실의 예측은 연구참여자 A에게는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경험으로 다가 온 것이다. 건강 상실에 대한 질문에서 회피의 양상이 뚜렷했던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통해 스스로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누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 상실

경험을 상기하며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드리게 된 것이다.

건강 상실은 연구참여자 A에게 있어 다시 생각해 보아도 당황스럽고 겁나고 두려운 경험이 되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열심히 치료에 임할 것이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휴식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녀에게 건강 상실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해 나아가야하는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뭘 슬프기는 하겠지만 치료는 받아야죠. 아프면 슬프겠죠.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프면 되나 싶어서... 하지만 뭘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렇다고 아프다고 다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아프면 얼른 병원 가서 조치를 받아야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자기가 아파도 참고 안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병을 키워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에 아프면 병원을 좀 다니고, 건강검진도 잘 받아야겠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겠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풀어버리든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좋아야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연구참여자 B-2)

50대 중년기 여성들이 많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B는 그들에 비하면 자신은 아직 젊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건강 상실은 아직 자신에게 먼 이야기로 여겨지지만, 그녀 역시 건강 상실은 상상만으로도 슬픈 일이 되었다. 그녀의 말처럼 건강 상실은 누가 경험한다 해도 충분히 슬픈 일이다. 연구자 역시 건강 상실의 경험을 통해 슬픔을 넘어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질병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감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건강 상실이 중년기에서 노년기 사이에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경험인 만큼, 상상을 통해 미리 대비하여 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충분한 고려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 연구참여자 B 역시 주변의 경험을 통해 미련하게 참지 말고 신속하게 치료에 전념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치료 잘 받는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 그럼 저는 심각할 거 같아요. 언니네 아저씨처럼 알뜰하시고 생활비 다 갖다 주시고, 용돈도 안 가져가고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럼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나요... 언니네 삶하고 우리네 삶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면 아저씨가 잘 살아주시잖아요. (그게 부러우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게 부럽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많은 돈을 벌어오는 거 바라지 않는다. 단지 최저임금이라도 꼬박꼬박 갖다 주는 것이 소원이다.” (연구참여자 C-2)

남편 대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연구참여자 C에게 건강 상실이란,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의 충격으로 경험되었다. 그녀는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경험한 건강 상실과 자신이 경험할 건강 상실의 예측은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연구자는 비록 아팠지만 성실한 남편 덕분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반면, 자신이 앓을 경우 남편의 성실함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 C는 이제야 마음잡고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남편을 대견하게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증내고 있는 남편을 감지한 그녀의 미래 불안감은 건강 상실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면 어쩔 수 없죠. 치료에 전념해야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 뜻대로 되지 않지만 노력은 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놓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럼 또 악화 돼서 또 살겠다고 병원 치료 받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 돼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죠. 아무리 먹고 싶은 것도 자제를 하고, 건강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친정엄마가 잘 못해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자제를 못하니까 아버지 보다 건강하지 못해요.” (연구참여자 D-1)

연구참여자 D의 70대 친정 노부모는 서로가 매우 달랐다. 친정아버지는 30년 가까이 아픈 어머니까지 돌보며 자녀 지원에도 아낌없이 열심히 살아온 반면, 친정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돌보지 않으면서 오래 살

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3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계시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노후를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인’으로 기대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D는 면담이 있던 날도 발에 생긴 피부질환을 걱정하며 혹시 자신이 모를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나타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몇 해 전 국가건강검진에서 위에 이상소견이 발견되며 정밀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잠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비록 무증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매우 신경 쓰고 있음이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건강생활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친정어머니와 남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연구참여자 D에게 건강생활행위는 따로 포착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신처럼 금주하고 금연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병에 걸리면, 으음,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 절망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살던 삶대로 살면서 치료도 받아야겠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을 봐도 다 열심히 버티고, 항암치료 받으면서 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사시는 거 같더라고요. 치료 잘 받고 그러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도 건강하게 갖고 살면,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2)

연구참여자 E 역시 특별히 아파 본 경험이 없지만 주변의 건강 상실 경험을 통해 치료 잘 받으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비록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주변의 암 환자들을 볼 때, 발병 후 5년만 잘 넘기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앙심이 독실한 연구참여자 E는 만약 자신이 건강을 상실하게 된다

면, 기도 열심히 하고 치료 잘 받으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신앙인으로서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치료하고 이 후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이어가야한다는 그녀의 메시지는 건강 상실의 순간에 크게 절망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 마치 영적 가르침을 주는 것만 같았다.

2) 아프면 요양원 가야죠.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노후에는 되도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하겠다고 하였다. 즉, 그들 은 노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해 나아가며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되도록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건강 상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고민 없이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요양원 가야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외할머니도, 엄마가 9남매여서 다들 잘 사시거든요. 저는 사실 어릴 때에는 아니 왜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지? 그때는 아니 다들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충분히 모실 수 있는데, 왜 병원에 계시지? 했어요. 이모가 병원 다니시고 병원도 있고 하시고, 사촌언니들도 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요양병원에 모시더라고요. 그게, 돈이 있어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건강... 정신건강? 그런 거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의지할 생각은 없고 요양원 가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 아프시다면 저는 자신 없거든요.” (연구참여자 A-2)

연구참여자 A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 건강 상실 경험을 통해 형편이 되는 가족들이 왜 외할머니를 스스로 돌보지 않고 요양원에 모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혼 후 시어머니 간병 문제 때문에 남편과 크게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외가식구들이 외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즉, 건강을 상실한 노인을 가족들이 직접 돌

보게 되었을 때의 문제를 시어머니 간병을 통해 그녀 스스로가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외가식구들의 대처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던 연구참여자 A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을 긋는 것처럼, 노후에도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통해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부모의 혜택을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부모의 문제도 자녀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요즘 언니들 말로는 자식은 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자식은 평생 내 자식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정말 떼어 내는 습관을 해야 된대요. 아이들이 여기 같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아이들 생활이 있으니까, 저는 의지 안 해요! 요즘 애들 교육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힘든데 부모님까지 챙겨드릴 형편도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돈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 평범하게 살려면, 부모까지 챙기지 못해요. 나도 내 부모를 못 챙기는데, 내가 지금 자식들한테 ‘너희도 나 챙겨 달라...’ 이렇게 말은 못하죠.” (연구참여자 B-2)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이 아프면 요양원 가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므로 만약 타인의 돌봄이 불가피하게 되면, 그때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녀의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만 직장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결국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 품을 떠나보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자녀들도 살기 힘들데 어떻게 부모를 챙길 수 있겠느냐고 하였는데, 이는 순전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자신의 고단한 삶에 치여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자녀에게 의지할 마음이 없다.

“시아버님이 살짝 치매신데, 80세가 넘으셨어요. 건강한 편은 아니지만 요양원 가기 싫어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하시면서도 티격태격 오래 사시더라고요. 제가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저는 사회활동도 하고 싶은데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오래전에 생각이 앞서가시는 분들이라 두 분이 같이 살다가 한 분이 힘들어지면 알아서 요양원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요양원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라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1)

80대 중반의 시부모는 현재 연구참여자 D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원래 시부모 명의의 아파트였지만 남편 형의 사업실패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뻔한 집을 효자 남편이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연구참여자 D는 시부모 부양에 있어서도 큰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 D의 남편이 장남도 아닌데다, 경매로 넘어갈 뻔한 시부모의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 시부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셈이 되었으니, 자신의 도리는 다 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 친정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온 친정어머니를 통해 연구참여자 D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자식에게 민폐 끼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역시 오랜 시간을 아내를 돌보아 오면서도 “아프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셨던 것처럼,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강 상실 경험을 통해 자신만큼은 자녀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인이 되고자 하는 기대를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친정어머니 부양으로 힘들어하는 친정아버지를 곁에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대수명을 물었을 때,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 나이를 제시했던 반면, 연구참여자 D는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살고 싶다고 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약 아프게 된다면 요양원 입소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요양원에서 그렇게 남의 도움 받는 것 보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다가 돌아가셨다... 저도 단정하게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 일어나서 휠체어에 태워서 한 번 씩 운동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엄청난 복이라는 거... 그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치매도 안 걸리면 더 좋겠고, 우리가 다리 아프지 않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죠.” (연구 참여자 E-2)

연구참여자 E는 요양보호사 실습을 위해 시설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녀는 요양원 경험을 통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휠체어에 의지해야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두 다리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E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가 조용히 잠을 자는 것처럼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즉, 건강 상실로 인해 시설에 의지해야할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녀 역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2. 경제적 노후준비

2.1. 절약의 의미

1) 미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절약생활 실천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이 모이면 결국 큰 산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모아 미래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근검절약을 선택하게 된다. 즉, 우리의 자원이 풍부하다면 마음껏 써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미래 예측은 충분히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한정된 가계수입을 고려해 가정에 자동차를 두지 않거나 외식을 삼가는 등 자원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연구자 역시 ‘안 쓰는 것이 곧 버는 것’으로 여기고 나름대로 근검절약하며 살아왔었다. 내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는 ‘절약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억척스럽게 생활했던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근검절약 경험은 연구자에게 귀감이 되었다.

“재테크로 분양을 받았어요. 2개를 따로 분양 받은 게 있어서 그게 지금 중도금 낼 거를 모아놓고 있는 거죠... 정수기는 없고 물을 끓여 먹어요. 원래 생수를 먹었는데, 왜 생수를 안 마시냐면, 택배 아저씨가 너무 힘들게 배달하잖아요. 물이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시킬 때 금액 맞추려다보니까 많이 시켜야하고 그러면 그거 들고 오시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배달 안 시키고 물을 끓여 먹는 거죠.” (연구 참여자 A-1)

연구자도 연구참여자 A처럼 물을 끓여 마셨던 경험이 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물을 끓여 마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가족이 여럿이거나 더운 여름이면 매일같이 물을 끓이고 다시 식혀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연구자도 생수를 배달해 마셨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매일 나오는 플라스틱 생수통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되어 정수기 렌탈을 선택하게 되었다. 정수기 렌탈은 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배달해 마시는 것보다 다소 비싼 금액이지만 환경에 대한 생각과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A 역시 생수를 배달해 마셨었지만, 그녀는 택배기사의 노고를 생각해 물을 끓여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A는 일반 가정보다 가구 월 소득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들이지 않고 가정 일과 직장 일을 병행해야하는 바쁜 일상에서도 힘들게 물을 끓여 마시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분양 받은 아파트 2채에 대한 중도금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연구자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분양 받았던 아파트 중도금 상황을 생각해 식수를 끓여 마셨던 경험을 상기하자면 연구참여자 A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녀는 이러한 절약을 통해 월 400~500만원 정도의 노후생활자금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불편은 얼마든지 감수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저희는 외식 같은 것도 줄이고 외식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아직 차가 없어요. 하하하. 차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른 집보다 좀 많이 모을 수 있죠. (다니는 건 어떻게 다니세요?) 대중교통이요. 제가 인천에 오래 살아서 노선도 인천 쪽만 알고 가끔 경기도 안산 쪽 가고, 친구들이 거의 다 인천에 있으니까 ○○○ 쪽이나 주안 쪽에서 주로 만나요.” (연구참여자 B-2)

연구참여자 B는 외식을 잘 안하고, 남들 다 있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절약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차가 없는 대신, 인천의 대중교통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녀는 특히,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떠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던 그녀에게 대중교통의 의미는 남달랐다. 즉, 연구참여자 B에게 대중교통이란, 근검절약을 위한 선택이며 소중하게 여기

는 대인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연구자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에 자가용 승용차를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를 두는 것이 자녀 하나를 더 양육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유지비용 역시 낭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참여자 B 역시 연구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 점도 많다. 하지만 대중교통 정보만 잘 활용한다면 자동차 수리 및 세차, 또는 주차 걱정이 없어 나쁘지 않다. 게다가 자동차 유지비를 아끼면 다른 곳에서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남에게 빚지는 것이 싫고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인 연구참여자 B 역시 자동차 유지비에 들어갈 비용을 모은다면 충분히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현금 2억 모으기를 통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고 자녀 지원은 물론, 자신의 여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불편은 충분히 감내할 자신이 있어 보인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만 돈 많이 버니까... 현실을 생각하면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나이 들면 몸을 덜 쓰고 적게 벌더라도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은 거죠... 아가씨 때는 내가 벌어서 내가 많이 썼지만, 나중에는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생활비 달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만원을 쓰더라도 많이 고민하면서 아껴 쓰고 있는 중이죠. 애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원비로 좀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모아야죠.” (연구참여자 C-1)

연구참여자 C 자신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음을 알기에 비록 적게 움직여 적게 벌더라도 노후에도 꾸준히 일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에게 있어 절약은 자녀 교육지원으로 막혀있던 노후준비의 시작이기도 했다. 장학금 받는 대학생 딸과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끝난 시점에서 친정부모와 같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라도 단돈 만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는 스스로 벌어 풍족하게 썼다지만 그녀 역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연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가정에 영업용 트럭과 개인용 자동차가 있는 것이 낭비는 낭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참여자 C는 대신 다른 곳에서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빌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자와 원금, 자동차 2대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생각하면, 절약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남편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희 남편이 하루에 얼마씩 쓰라고 넣어 줬어요. 만원, 2만원, 만원, 2만원 이렇게... 생활비 초과하지 말라고, 저는 한꺼번에 많이 쓰거든요. 돈 관리는 제가 하는데, 남편이 생활비 아끼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줘서 봉투에다 홀수 날은 만원, 짝수 날은 2만원 넣어줘요.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도 애들 용돈이랑 제 용돈은 따로 주더라고요. 하하하” (연구참여자 E-1)

가구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했던 연구참여자 E는 가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지만 만약 뜻밖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생활비 역시 전부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다며 의미 있게 웃던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대신해 생활비를 아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녀 남편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홀수인 날은 만원, 짝수인 날은 2만원을 봉투로 받으면 그것으로 하루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E 가족의 최저 생활비는 월 45만 원 정도인 셈이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자녀교육비도 지출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자녀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뜻하지 않게 수리비용이 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관리는 연구참여자 E가 하고 있다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아내의 용돈을 따로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상의 어려움을 신앙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던 그녀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의 목사나 사모를 찾아가 기도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해 나아간다고 했다. 짐작컨대,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주는 교회 목사나 사모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로 헌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 목사와 사모의 영향임을 확인한 이상, 그들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내의 행동이 불안했을 연구참여자 E의 남편은 가족의 미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아내의 용돈과 생활비를 통제했던 것이다.

2) 부모처럼 되고 싶은 노후

연구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친정부모의 노후는 걱정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들의 친정부모들은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정부모에게 지원은커녕 오히려 결혼 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만큼 이들 부모의 노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부모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관계 단절로 인해 시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시부모보다, 친정부모와 같은 노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들이 부모에게 지원을 하건, 아니면 지원을 받건, 부모부양에 있어서만큼은 부담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중년들은 노부모 부양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인은영, 김찬우, 2015),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노부모 부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 친정부모의 현재 노후생활 모습은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엄마는 교사여서, 엄마랑 언니가 다 교직생활해서 전혀 어려움은 없어

요. 엄마는 교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연금이 계속 나오고, 아빠가 사업을 하셨어서 지금 현재 월세 나오는 집도 2채 있고, 엄마 노후는 전혀 걱정 없어요. 엄마가 교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아요. 잘 되는 친구들도 많고, 가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 한 번 놀러 오세요. 해서 여행도 자주 가세요. 초대를 해 주시니까...” (연구참여자 A-1)

연구참여자 A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으로 중국에서 수학 교사로 일하다 퇴임하셨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일구어 온 노력으로 인해 혼자 남은 친정어머니의 노후는 걱정이 없다. 그녀의 친언니도 어머니를 따라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어머니는 언니의 자녀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녀의 언니는 어머니 곁에서 살며 어머니로부터 자녀양육은 물론, 물질적 지원도 받고 있지만 연구참여자 A는 그것에 대해 불만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교사인 어머니나 언니의 처지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연구참여자 A는 휴가 때면 자주 중국에 방문했다. 그러나 친정집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근 3년 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청도, 대련, 상해, 북경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만 만남을 갖는다고 했다. 짐작컨대, 연구참여자 A는 하나 뿐인 언니와는 썩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면담에서 언니와 자신의 성격이 매우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언니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교사가 되었지만, 경제적 여건은 동생보다 못하다. 반면, 연구참여자 A는 어머니가 바라던 교사의 꿈은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 친정식구들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훨씬 좋다. 이처럼, 자매의 처지가 비슷하지 않고 격차가 있으면 서로 친해지기 어려운데다, 특히 동생보다 언니의 처지가 못한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우리 친정 엄마 아빠는 그냥 연금 받으면서 살죠. 연금 말고는 조금 모아둔 거 있고, 그리고 집이 2채 있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생활력이 엄청 강해요. 진짜 안 해 본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자영업을 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자영업을 했는데 안 해본 게 없어요. 속옷 장사도 해 보고, 애들 장난감도 팔아보고, 그러다가 수산물도 팔고...” (연구참여자 B-1)

연구참여자 B의 친정부모는 연금과 모아둔 현금, 그리고 보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 역시 친정부모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로 고생이 많았지만 어머니의 여유로운 노년을 지켜보며 그녀 역시 자신의 여유로운 노년을 위해서는 젊어 고생은 사서 해도 괜찮다고 믿게 되었다.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 질것으로 믿고 있던 그녀는 자신이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만큼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애착도 강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현금 2억 모으기를 통해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도 친정부모처럼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B는 부모가 나중에 재산을 조금 나누어 준다면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받을 의무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만약 부모에게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가로써 부모 부양을 해 드려야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관념이 철저했던 친정아버지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즉, 받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던 부모교육의 영향인 셈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부모의 재산이 모두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부모 가까이에서 사는 남동생은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곁에서 부양이 가능하지만 자신은 그럴 처지가 못 되기 때문이다.

“저희 친정엄마가 되게 부지런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늘 봐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성격이 다 비슷해요... 땅은 나라에서 준 땅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젊었을 때 사 놓 집 2채 정도 있는 거 세 받아먹고,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처럼 열심히 못 하는 거 같아요. 하하하. 엄마가

내 나이 때는 경제적 기반 다 잡고 계셨는데, 저는 아직 아니잖아요. 저는 현재진행형이잖아요.” (연구참여자 C-2)

연구참여자 C의 친정에는 부양할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한 땅을 스스로 경작하지 못해 다시 임대를 놓아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그녀의 부모 역시 보따리 장사를 통해 가계 자산을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그녀의 친정어머니는 큰 딸이 타지에서 고생하게 되자, 집을 얻어 분가시키려는 가하면, 능력이 되지 않는 사위를 대신해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다. 연구참여자 C는 그런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도 친정부모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만 하다. 하지만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자신도 충분히 부모처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녀 지원이 끝난 시점에서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남편만 성실하게 임해준다면 자신의 노후도 친정부모만큼 월세 받는 여유로운 노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처럼 되기 위해서는 만원 한 장 쓰기도 아까울 만큼 그녀는 열심히 근검절약을 실천해야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사업하신 건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는데, 그냥 보통 농부는 아니셨고요. 지역에서 유지처럼 회계 같은 거 맡아 하시고, 이장 같은 거 맡아 하셔서 동네에서는 조금 덕망이 높은 사람... 아버지가 아주 인생철학이 뚜렷해요. 힘들게 돈 버셔서 모든 걸 자식들한테 다 줬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세요... 부모님이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해서 걱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존경한 이유가, 그렇게 일해서 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래서 주변에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몸이 불편해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를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게 마음에 걸리고...” (연구참여자 D-1)

연구참여자 D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인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은 노인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지원도 모자라 아픈 어머니까지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러한 아버지의 교육열 덕분에 그녀의 여동생은 대학교수가, 남동생은 연봉 높은 대기업 지사장이 되어 있다. 즉, 아버지의 기대에 동생들은 모두 부응해 드렸다고 생각되는 연구참여자 D는 성공한 동생들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실망스럽기만 하다.

특히, 병약한 어머니까지 돌보며 힘겹게 살아 온 아버지가 안타까운 연구참여자 D는 가까이 살았다면, 그런 아버지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나 그녀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들 역시 중국에서 성공한 동생들이었다.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사는 것도 모자라, 동생들보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딸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지만, 인생철학이 뚜렷했던 아버지의 성향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제 아버지가 사실 남을 잘 도와요. 지금 이제 보니까,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잘 그 자리에 있고, 집이 부족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본인이 계속 모아 놓은 거로 다 자식들에게 빌려주면서 살고 계세요. 하하하. 자식들이 없는 게 아닌데, 뭔가 하려다가 부족하면 아버지에게 빌려요. 하지만 다 갚아야죠.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빠랑 언니는 이쪽에 집이 있고 중국에도 집을 하나씩 사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 정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자기 쓰실 거는 잘 준비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노후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연구참여자 E-1)

연구참여자 E의 아버지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다. 과거에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남에게 베풀기만 하셨던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베풀지 않고 살던 다른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신다. 몇 해 전 새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혼자되신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소일거리로 폐지

를 주워 파시면서도 자식들에게 급전을 필요할 때면 서슴없이 돈을 빌려주신다.

연구참여자 E도 자녀들이 갑자기 아프게 되어 급전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아버지의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으로 여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직접 부양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녀 스스로도 다른 형제들보다 사는 형편이 제일 못하다고 여겨지지만, 자녀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도 그렇게 늙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2.2. 돈의 의미

1)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

연구참여자들에게 돈의 의미는 무엇인가. 돈이라는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은 대부분 근검절약을 선택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의 한정된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조금 덜 쓰고 모아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임에는 분명했다. 그러나 막연했던 불안감이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됨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하게 된 그들의 돈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신체적 노후준비나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보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건강 상실이나 고독사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노후준비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는 국가나 사회에 의지하기보다 개인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하는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박창제, 2008). 바로 이러한 돈이라는 여유를 통해 만약 아프게 되면 병원치료 받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무엇보다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통해 신체적 노후준비는 물론,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의 가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고생이 되더라도 돈을 모아야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뽀뽀하지 않게 사람들 만나면 커피 한 잔도 사 줄 수 있고, 간식도 사 줄 수 있고, 그런 여유... 만약 돈이 없다면 조금 초라하겠죠. 그러면 친구 만나도 크게는 못 만나겠죠. 그냥 조금 만나면, 그거는 답답할 거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노후에 폐지 줍는 할머니는 되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 (연구참여자 B-1)

연구참여자 B에게 돈의 의미는 노년에 폐지 줍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노인의 모습을 꿈꿀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평소에도 친구들을 만나 담소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던 그녀는 노후인식에서도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로 힘들지만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 쇼핑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연구참여자 B에게는 둘도 없는 즐거움이자 행복이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생활이 노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B는 젊어 고생은 사서 하는 것으로 여기고, 힘들지만 지금의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직장 선배들보다 젊다고 생각되는 그녀는 자신도 앞으로 50~60대까지 충분히 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사랑하게 되었다. 즉, 남편과의 소통 부재 대신 주변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삶의 의미 뒤에는 돈이라는 여유를 통해 지켜내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시댁에 대한 부담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시댁에서는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 말씀은 받은 게 없으니 줄 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여유가 되면 생활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내 친정부모도 있고 한데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셔서 소일거리는 하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만약 일을 그만 두시게 되면, 생활비를 얼마라도 드려야죠. 형제가 여럿이니까 한 집에서 얼마씩 걷어서 생활비 드려야죠.” (연구참여자 C-1)

지금까지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힘겹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C는 원망의 마음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5남 1녀나 되는 남편의 형제들이 시아버지 제사 때도 비용을 나누어 내는 것과 같이, 만약 시어머니가 생활능력이 없게 되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즉, 시부모도 친정부모와 같이 똑같은 부모이므로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처럼 남편 때문에 잡초처럼 질긴 결혼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보다 도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장남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된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부담은 없었다. 다만, 남편의 형제들 역시 사는 형편이 고만고만하다보니, 부담을 똑같이 나눈다면 자신도 생활비 정도 드릴 용의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친정부모에게는 필요 이상의 지원을 받은 반면, 시부모에게는 전혀 지원 받은 것이 없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시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지만, 자신이 여유가 된다면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할 수 있다는 개인 선택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즉, 의무가 아닌 권리차원에서의 선택이므로 시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로또를 맞아도 전혀 흥청망청 쓸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은행에 저축하거나 차라리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그녀는 자신이 한 고생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C에게 돈의 의미는 여유로울 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미덕이고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힘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도 이를 충분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야죠. 제가 쓰다보면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베풀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보면, 많이 베풀라고 하잖아요. 우리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나눠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을 보면 움켜쥐고 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많이 있다면 진짜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마음이 부자시네요.) 네에, 그럼 언젠가는 들어오고 다 채워지고 또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좋잖아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그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제가 제대로 났다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연구참여자 E-1)

연구참여자 E의 삶 안에는 언제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 연구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신앙이 있느냐고 먼저 물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신앙은 그녀 삶 자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베풀며 사는 삶이 그녀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삶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남에게 베풀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베풀기보다, 중국어 강사라는 재능기부를 통해 자신의 나눔을 조금씩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E에게 돈의 의미는 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실천하는 도구의 하나가 된다. 가끔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신앙의 신비는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진리이며, 이러한 진리를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역시 남에게 베풀기만 했던 분이지만 다시 채워지는 진리를 통해 아버지의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가 계시기 때문이다.

2) 자녀지원 OK, 자녀부담 NO

과거에는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노후준비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으며, 자신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성장한 자녀들의 돌봄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 자식들만 잘 키워 놓으면 부모의 노후준비는 따로 필요가 없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경제 불황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Erikson(1950)은 중년기에 성취해야할 과업으로 ‘생산성’을 강조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생산성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 부모세대의 가치관은 생산성에 실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과거와 다르지 않게 자녀지원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박현식, 2013). 그만큼 부모세대의 인식은 자녀지원과 자녀기대 사이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며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게 된 셈이다. 실제로도 독거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5).

자녀지원에는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자녀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은 연구참여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 역시 자녀지원에는 아낌이 없으면서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아이 중학교 때는 댄스학원 보내줬었어요. 학교 끝나고 댄스학원을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댄스학원보다 자기 스스로 조금 즐기고 싶다고, 전공으로 갈 것도 아니니까 혼자 댄스 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데서 연습실을 대여해 줬어요. 자기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엄마 나 예약했어.’ 하면, 대여료는 내야하니까 송금해 주었죠.....[중략].....신랑 연금은 지금 많이 납입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해 놔서, 납입은 다 끝나고 타는 것만 남아서 시기를 결정하면 타는 건 나오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거야 너희 거 아니야’ 이라고 있어요. 하하하” (연구참여자 A-1)

부모와 자녀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생 두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녀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공부에 관심이 없는 둘째는 야간 자율학습도 하지 않고 취미활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참여자 A의 친언니는 열심히 공부해 교사가 되었지만 결국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언니를 지켜보며,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이유에서이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언니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녀양육에서도 이를 실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A는 비록 고등학생 신분일지라도 자녀들이 원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적극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사교육지원 대신 자녀 취미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러한 지원 역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 잘라 말했다. 즉, 사교육이든 취미활동이든 아직 미성년자 신분에 놓인 자녀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성인 이후에는 대학등록금도 스스로 해결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A는 부모와 자녀의 분명한 경계를 통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년을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 A는 자녀지원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자녀 부담은 사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국이 또 학원 안 보내면 안 되는 사회다보니까, 아들이 수학, 영어, 컴퓨터 하는데 3과목에 70만 원 정도 들고, 둘째는 정부지원 받는다고 해도 4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생활비를 거기에 맞춰야하니까 적금은 못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애 대학교 들어가면 쓸 거 조금씩 모아야 하니까, 그것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죠.” (연구참여자 B-1)

“요즘 애들도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힘든데 부모님까지 챙겨드릴 형편도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돈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 평범하게 살려면, 부모까지 챙기지 못해요. 나도 내 부모를 못 챙기는데, 내가 지금 자식들한테, ‘너희도 나 챙겨 달라.’ 이렇게 말은 못하죠.” (연구참여자 B-2)

가구 월 소득이 350만원이라고 했던 연구참여자 B는 현재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의 교육지원 때문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즉, 그녀가 바라던 노후기대로써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닌, 남에게 커피 한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기 위해 현금 2억 모으기를 계획하고 있지만 자녀교육지원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국가가 자녀교육을 지원해 준다면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자녀교육지원 때문에 적금에 가입할 여유조차 없는 연구참여자 B지만,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사는 형편이 어려워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돌봄을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 자녀 사이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스스로 터득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B 역시 자녀지원에는 아낌이 없으면서 자녀 부담은 원치 않음이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모아 놓은 돈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큰 애가 대학생, 작은 애가 고등학생이고 그 동안 애들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큰 애가 고등학교 때 한 달에 딱 100만원씩 들어갔어요. (힘 드셨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저는 제가 벌어서 애들 공부 시켜야했으니까.....[중략].....노인의 빈곤도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나라에서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지금 나라에서 애들도 많이 낳지 않는 세상인데, 그 돈을 누가 다 충당을 하겠어요?... 나도 우리 부모 품 떠난 거 마냥 언젠가 내 자식들도 부모 품을 떠나게 되겠죠.” (연구참여자 C-2)

연구참여자 C 역시 자녀지원에 있어서 아낌이 없었지만, 그녀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는 다르게 남편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했다. 그러한 그녀의 헌신 덕분에 큰 딸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아들은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C는 앞으로 더 이상의 자녀교육지원은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큰 딸이 대학원 진학까지 생각한다고 하자 그녀는 말로는 “대학원은 네가 벌어가 가!”라고 했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하지 않겠냐며 미소를 지었다. 즉,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인생에서 돈 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음을 터득한 연구참여자 C는 자녀지원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반면, 노인세대의 어려움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면, 곧 자녀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기던 연구참여자 C는 개인의 노후준비는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 역시 자신이 부모에게 독립해 나온 것처럼, 노년에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야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친정부모의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과 같이 자녀가 어려울 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만, 그녀 역시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데서 배울 수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지역 자원도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사비를 내서라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사교육도 해요. 저는 애들 피아노 가르치고 태권도도 둘 다 다니고 있어요. 큰돈은 들어가죠. 태권도 25만원에 피아노 취미반은 많이 들어가요. 사교육비로 4,50만원 드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E-1)

“경제적인 면이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노후준비는 애들 자립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국동포라고 특별히 차별대우 없이 똑같이 대한다면, 다문화 그런 것 보다는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국민으로 대한다면 큰 불만은 없을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E-2)

연구참여자들 중 가구 월 소득이 가장 적었던 연구참여자 E지만, 그녀 역시 자녀지원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었다. 그녀는 극히 제한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교육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과거 친정어

머니 상실 경험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했던 것을 가장 큰 후회로 여기던 연구참여자 E는 학력 때문에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녀에게만큼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연구참여자 E는 앞으로 석·박사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자를 보고 “자녀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녀에게 있어 배움이란, 중국어 강사로서의 입지는 다지는 것은 물론, 미래 희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지원에 있어서 아낌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E 역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그녀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이제 겨우 초등학생에 불과한 자녀교육지원을 생각하면 노후준비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노후에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 지원 역시 정주민과 이주배경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준다면, 그 어려움도 함께 감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3.1. 소외와 외로움의 의미

1)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관심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노년이 되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만약의 경우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원에 입소하겠다는 뜻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으며, 주로 부부나 친구·이웃에 의지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타인의 돌봄이 불가피할 경우에 놓이게 되면,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김양이, 이채우, 2008).

현대의 노인들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상실,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외로움 등으로 자살관념을 갖거나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도 전체 노인의 33.1%는 우울증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노인의 고독사(孤獨死)에 대한 담론을 통해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고독사는 주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사건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직면을 통해 노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아~! 혼자서 죽는 거... 그거는 좀 처참할 거 같아요. 아무도 없고 혼자서 있다가 가는 건 너무 허무할 거 같아요. 그래도 뭐 옆에 자식들도 있고, 자식도 자식이지만 내 시간도 있고, 내 주변에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은 복지도 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남한테 먼저 다가가고 그러다 친해지면 왕창 친해지고, 안 친해지면 그만인 거고 뭐...” (연구참여자 B-2)

연구참여자 B에게 고독사는 허무하고 처참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의 성향으로 인해 자신은 고독사할

일이 없을 것으로 여겼다. 어릴 적,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친정에서의 관계 경험은 그녀를 친화력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러다보면 친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인연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관계를 단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B 자신은 고독사 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의 경우 사회복지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하고 그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하지만, 만약의 경우라면 사회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을 돌보아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노년기의 소외와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그녀의 제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문제죠. 성격이 괴팍하거나, 아니면 평소 자식들이랑 자주 왕래를 안 하다거나, 본인들이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양로원으로 들어가야죠... 지금은 제가 힘이 있으니까 낮가리고 하지만, 늙어서 힘이 없으면 그건 저도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내가 젊을 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젠 노후에 힘이 없는데,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고독사로 죽는다는 건 좀 너무 슬픈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2)

자신은 친정어머니를 닮아 깔끔한 성격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던 연구참여자 C는 타인에 대한 불신도 많아 친해지기 어렵다고 했다. 예를 들면, 어떤 혜택정보를 공유할 때, 그 혜택의 실효성을 따지기 이전에 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녀가 고독사의 담론에서는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변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고독사는 개인 성향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소외와 외로움을 극복해 나아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연구참여자 C 역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왕래하며 살거나 아니면 양로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앞의 결과에서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시설에 입소하겠다고 하였지만 자신 역시 절대 고독사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고독사는 겪고 싶지 않은 매우 슬픈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지만,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4~5번씩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도 한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한 후 9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사회복지시스템이 마련되었던 사회적 경험이 있다(제정임, 2013: 172).

“고독사를 지금은 사회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처한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인 치매도 국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인이 혼자 있는 것도 나름인 거 같은데, 건강하면 상관 없지만, 혼자 생활이 어려우면... 시민단체에서 이런 분들 모아놓고 체계적으로 돌봐 주는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아직 없어요. 그걸 많이 해야 하는데... 스웨덴 같은 데는 배운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은 보면 더 가진 사람이 더 각박하고 야박하고 갑질...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연구참여자 D-1)

연구참여자 D는 아들의 차별경험을 계기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그로인해 이주민 처우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사회실천운동가라고 밝혔던 그녀는 고독사의 담론에서도 사회실천운동가다운 지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고독사를 바라보았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는 복지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게 되면 공적자금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한정된 국가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연구참여자 D는 사회복지시스템의 확충에서 국가의 지원보다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가차원의 복지혜택을 늘리기보다, 사회차원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사회복지시스템의 개발과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역시 사회실천가답게 이주여성으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고독사에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밖에 모르고 고립되어 있으니깐 고독사가 오는 거지, 내가 힘이 있으면 나가서 뭐라도 하면, 고독할 여지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독거노인이면 교회 가서 봉사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무언가를 하면 고독할 겨를이 없겠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언어적으로 위로해 주고, 물질적으로는 내가 있는 것만큼 도와줘도 되고...” (연구참여자 E-2)

신앙심이 투철한 연구참여자 E는 고독사의 담론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실천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을 통해 타인을 위로하고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길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 역시 고독사하는 노인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말고 사회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년기의 소외와 외로움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E 역시 자신은 고독사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고, 사회적으로는 봉사활동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년에도 그녀가 바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사회 안에서의 소외나 외로움을 경험할 틈이 없을 것으로 여겼다. 또한, 신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사회적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연구참여자 E의 열망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신앙만 있다면 노후는 걱정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노년기를 미리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내기 위해 노후준비라는 과업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특히 노년기는 건강 상실, 빈곤, 소외와 외로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자살관념을 갖고 있으며, 그 중 10명 중 1명이 실제 자살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자살관념을 갖는 이유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10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리고 있으며, 평균 10년 이상 병상에 누워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노년기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연구참여자들은 막연한 미래 불안감 중 특히 소외와 외로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아가고 있는지 관념의 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는 전혀! 저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나만 믿자! 저희는 나만 믿자 예요. 아~ 나만 믿자. 하지만 법은 지키고, 하하하.....[중략].....내년에 아이하고 스페인 성지순례 한 번 가보자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는 없으시다면 서요?) 네,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산티아고 풍경도 보고, 스페인 하숙이라고 TV프로그램 보면 거기 순례자들이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와서 숙박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 삶 돌아보고 그런 거 우리도 한 번 해 보자고...” (연구참여자 A-2)

인생은 자기 자신만 믿고 가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드러냈던 연구참여자 A는 종교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곧 신앙인 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구참여자 A는 항상 자신의 선택을 믿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왔으며, 그로인한 결과 또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를 반추해 보았을 때, 앞으로의 미래도 자신의 결정을 통해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늘 뜻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는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으로 짐작되지만, 스페인 성지순례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싶은 열망이 드러났다. 즉, 그 누구에게 한 번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던 연구참여자 A는 강한 의지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정서를 위로받고자 하는 열망이 스페인 성지순례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녀에게 종교는 필요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곧 신앙인 셈이지만, 정작 스스로의 위로는 종교행위에서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확인되어 나타난 것이다.

“종교는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거기서 조금은 들었어요. 다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신앙은 좀 있는데... 진정한 신앙을 들으면 모를까, 교회 가도 그냥 사람만나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신앙에 대해 가르쳐 줘서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는 없지만 신앙은 믿어요.” (연구참여자 B-1)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죠. 만약 내가 동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많은 걸 못 누리죠.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충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강아지로 태어나면 가끔 버려지기도 하고, 버려지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축복인거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 넓은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B-2)

종교는 없지만 신앙은 있다고 믿는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신앙적 믿음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동물로 태어났다면 누리지 못했을 많은 일들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 삶 자체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

는 원천이 되고 있었다.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연구참여자 B 마음의 이면에는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 확인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즉, 동물처럼 버림받지 않고 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응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야한다는 관념 안에서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배제되기 쉬움을 상기하여야 한다. 연구참여자 B는 이러한 존재확인을 통해 소외와 외로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절망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살던 삶대로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살면 되겠죠... 종교는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속에 잠기듯 잠겨야 하는데, 물에 잠기기보다 물을 가르고 다닌다고 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아주 많이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E-2)

처음 대화를 신앙으로 시작하였으며, 마지막 대화도 신앙으로 끝났던 연구참여자 E와의 면담 경험은 연구자에게도 신앙에 대한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심층면담 내내 자신의 삶 자체를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귀결시키려 하였는데, 이는 그녀 삶의 의미가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또는 외로울 때도 기도를 통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신앙을 빼고는 감히 상상조차하기 힘든 만큼 강력한 의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자신의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배우며 베푸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였지만, 베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열심히 배우고 익혀 남에게 베푸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연구참여자 E는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미래 불안감을

느낄 틈이 전혀 없어 보였다. 연구참여자 E의 불안한 미래는 그녀의 신앙 심만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3.2. 여가의 의미

1) 여가는 아직 사치예요.

한국 노인들의 여가 형태를 살펴보면, TV시청(82.4%)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책, 독서·종교책 보기, 화초·텃밭 가꾸기, 화투·고스톱, 등산, 음악 감상 순이었다. 이들은 또한, 친목도모(25.9%)를 위해 경로당을 찾거나, 여가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노인복지관(8.6%)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이를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한국 노인들의 여가는 극히 제한적인데다 매우 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노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으나 특히 놀라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여가로 귀결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예를 들면, TV 시청이나 산책의 경우인데, 그만큼 한국 노인 여가의 질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의 무게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배경은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녀들이 생각하는 여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억척스러운 삶을 막연하게 확인하기보다, 여가의 의미 확인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친정집에만 가면 어른들 인사시키고, 친척들 모이고, 친구 만나고 하면, 그러고 오는 시간이 조금 가까워서 엄마랑 가운데서 만나서 3박 4일, 5박6일 여행하고, 거기서 이제는 빠이빠이~ 하하하. 그래서 백두산

은 3,4번 갔었어요.” (연구참여자 A-1)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연구참여자 A에게 여가란, 친정어머니를 만나는 일이다. 그녀는 시댁식구들과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지만 친정어머니와는 자주 만남을 갖고 있었다. 만약 친정집에 가게 되면 주변의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때문에 정작 친정어머니와의 오붓한 시간이 방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3년째 친정어머니와 단 둘이만 만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딸은 친정집이 아닌 다른 여행지에서 만나 여행을 즐긴 후 헤어지는 것이다.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정집에는 어머니와 친언니 가족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만을 따로 만나 여행을 즐긴 후 돌아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A는 직장에서 주어지는 연차를 활용해 친정어머니를 자주 만난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친정인 중국 연길시까지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용도 편리하지만 대신 요금이 비싸도 했다. 예전에는 비싸더라도 애들 데리고 다녔지만 지금은 연길이 아닌 중간의 다른 지역에서 친정어머니만을 만나 3박4일이나 5박6일 여행을 즐긴 후 헤어진다고 했다.

친정어머니와 만나 즐기는 여행은 그녀에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여가였다. 식수도 끓여 마실 정도로 알뜰한 그녀지만,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시간과 비용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반면, 그녀에게 다른 여가는 포착되지 않았다. 짐작컨데, 연구참여자 A의 가구 월 소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직 여가를 충분히 가질 여유와 시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에 가정생활, 그리고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2채의 중도금 상환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여행은 애들 어렸을 적이나 많이 다니고 했지, 요즘은 애들이 크다보니까 같이 모이기 힘들어서... 큰애가 또 학원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주말엔 자기가 쉬어야한다고 하고 잘 안 따라 나서다보니까, 작은 애는 아직 어리니까 잠깐씩 다녀오고... 이제 애들 방학이니까 잠깐 강화 가까운 데 1박2일 그냥 놀다가 오려고요. 애들 스트레스라도 풀어주려고... 근데

너무 사치는 안 부려요.” (연구참여자 B-2)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주 놀러 다녔다고 했던 연구참여자 B는 요즘은 아이들이 바빠진 이유에서 여가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고 했다.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했던 그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즉, 여유가 있던 과거에는 자녀들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다녔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진 지금이라면 그럴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면 자녀들 스트레스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B 부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가족의 여가는 거르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확인된 결과이다. 다만,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 과거에 비해 사치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연구참여자 B는 어릴 적, 생활이 바쁘고 형편이 어려워도 방학 때면 자녀들 데리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던 친정부모와의 추억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유롭고 풍족한 여행이 되지 못하더라도 거르지 양상이 포착되어 나타난 것이다. 연구참여자 B는 지금은 자주 여가를 즐기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저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딱 한 번 북한 산 갔다 온 게 끝이에요. 저는 여름휴가도 안 갔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 여행 가려면 몇 십만 원 깨지잖아요. 저는 그 돈 깨지는 게 아까웠어요. 그 돈을 쓸 거면 차라리 가전제품을 바꾸자.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가를 즐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자이긴 해도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C-2)

연구참여자 C는 결혼 전에는 자신이 번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도 많이 다녔다고 했다. 훨씬 더 어릴 적에는 친정부모를 따라 이곳저곳 많이 다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여가가 사치로 여겨질 만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북한산 다녀온 것이

여가의 전부가 되었다. 그런 그녀 앞에서 연구자는 왠지 모를 숙연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는 딸을 지켜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짐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으로 딸의 집을 사주며 분가시키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표현할 때, 결혼 전의 자신을 온실 속 화초, 결혼 후의 자신을 잡초로 표현할 만큼, 결혼 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케 했다.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남편 대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그녀는 신혼여행은커녕 여름휴가도 제대로 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여름휴가를 떠날 비용으로 차라리 필요한 가전제품 하나를 바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구참여자 C에게 여가는 현재로서는 사치에 불과한 셈이었다. 앞으로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과업이 너무 많지만, 만약 이루게 된다면 그녀 역시 노후에는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사람관계도 힘들지만 저는 사람관계가 제일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요? 생활비가 주어지지만 용도가 다른 일들이 생겨서, 맞추긴 맞추지만 그것을 한 달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때는 좀 힘들긴 해요. 제가 생활비를 여유롭게 많이 남겨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지출이 나가야 되잖아요. 경조사비나 어떤 뭐, 생각지 않게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뭐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할 때...” (연구참여자 E-2)

생활비를 통제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하루에 만원, 2만원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했던 연구참여자 E는 대인관계 보다 힘든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타이트하게 주어진 생활비 안에서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오거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소외나 외로움보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빈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아야하는 연구참여자 E에게 여가의 여유

는 생각조차 힘들어 보였다. 즉, 그녀에게도 여가는 아직 사치에 불과한 셈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을 신앙을 통해 극복한다고 하였던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역시 기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기도를 통해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신앙의 신비를 통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 목사나 사모를 찾아가 기도로서 풀어내야하는 삶의 어려움 안에서 여가의 여유는 그녀에겐 아직 사치에 불과하다.

2) 노년에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여가의 여유는 포착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그녀들에게 여가는 아직 사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여가에 있어서의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과 연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노후에는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노후를 상상하였을 때,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와 여가를 즐기는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기대는 미래의 유추를 통해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의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는 노후에 폐지 줍는 할머니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교양 있는 할머니. 하하하.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진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여유가 없으면 아무래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뭐 아무 노동일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지면 그래도 그 분들보다는 내가 덜 힘들게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독서활동이라던가 뭐, 취미반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이가 되면 또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활동 많잖아요. 요즘은...” (연구참여자 B-1)

연구참여자 B는 노년의 여유를 통해 교양 있고 멋진 할머니로 늙어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즉, 폐지를 줍거나 노동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빈곤한 노인이 아니라 노년의 여유를 통해 독서활동과 같은 여가를 즐기고 노인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되고 싶은 기대이다.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이러한 노후기대를 이루기 위해 현금 2억 모으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희망이 되고 있다. 그녀는 꼭 소비를 위한 저축이 아니더라도 통장에 쌓인 돈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얻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빚지지 않고 보유한 현금을 통해 여가를 상상하고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즐길 수 있으면 그게 뭐든... 아기자기하게 손으로 하는 거, 홈패션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등록해서 배우고, 남들이 100만 원 벌 때, 나는 10만 원 벌어도 괜찮으니깐, 그렇게 해서 그냥 용돈 정도라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C-1)

“제 계획에는 한 3년 이후부터는 큰 애가 대학도 졸업하고 하니깐, 그때부터는 뭐든 게 안정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 유지만 된다면 그때는 좀 월세도 있고, 여행도 좀 다니며...” (연구참여자 C-2)

연구참여자 C는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활동보다 홈패션과 같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경제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써야하지만, 노년에는 몸을 덜 움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홈패션이라는 취미활동을 하고 싶으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여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녀는 노년에 여가를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C의 노후기대에는 여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고, 여름휴가는 사치라고 여겼던 그녀는 노후에는 못 해 본 여행을 충분히 즐겨보고 싶은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기대 안에는 ‘자녀지원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야 마음잡고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남편만 성실하게 생활해 준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노후에는 친정부모와 같이 월세 받는 여유를 통해 여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 C는 노년의 여가에서도 경제적 기반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 권사님이 평생을 유치원 원장님을 하셨어요. 근데 연로하셔서 지금 80세 가까이 되세요. 그런데도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강사를 나가시는데 명강사예요. 동화 구연... 그분은 노년에도 도전하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중학교 가서 학교폭력예방 교육하고, 그 분은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신 분이예요. 저의 롤모델이에요.....[중략].....동암역 근처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시위 활동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으세요. 시아버지는 치매 끼가 있어서 집에만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의식이 젊으니까 오래된 옛날 컴퓨터 고치면서 돈도 벌고 계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D-1)

이주여성으로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주민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D는 수많은 유리천장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러한 좌절경험을 통해 하나뿐인 아들만 독립한다면, 아버지와 동생들이 있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노후기대를 통해 노후에도 한국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 D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 안에서 이루어온 입지를 통해 자신의 노후생활과 연결하고 싶은 열망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D 역시 일을 여가처럼 즐기며 조금이나마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일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자신 역시 꾸준한 사회활동을 통해 남에게 민폐 끼치는 노인이 아닌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이다. 비록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연구참여자 D에게는 둘도 없는 여가이며 노년의 희망인 셈이다.

“기독교 교리를 보면 많이 베풀라고 하잖아요. 우리만 준 것이 아니고 나눠 쓰라고 한 건데, 부자들은 움켜쥐고 풀지 않잖아요. 저는 많이 있으면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노후생활은 즐겁게 그냥, 제가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배운 것으로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즐거울 것 같아요. 봉사활동하면서 나누고, 어떤 것은 페이가 있겠지만, 페이가 없어도... 페이를 줄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무료로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베풀면서 살면 기쁘잖아요. 지식도 베풀 수 있는 거니까...” (연구참여자 E-2)

신앙심이 투철한 연구참여자 E는 자신도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고픈 열망이 있다. 그러므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앞으로도 충분히 배우고 익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지적 자산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돈이 주어지는 일이라면 감사히 받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신앙의 실천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나누고 싶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된다.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업을 생각하면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노후에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즉, 그녀에게 여가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신앙의 실천인 셈이다.

4. 소결

이번 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 5명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미탐색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가 활용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연구방법론 중 하나이다. 인간의 경험은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낸다(Connelly & Clandinin, 2006: 33). 이러한 의미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다소 복잡하고 문화적이며 인간중심적 논리를 다룰 때 주로 사용된다(Webster & Mertova, 2017).

내러티브 탐구는 현상의 관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를 반추하고 반추된 성찰을 통해 미래를 유추함은 물론, 변화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장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 노년기를 맞이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이지만, 중년기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하는 노후준비에 관한 의미를 통해 그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는 생애발달 중 중년기의 과업수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해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의미를 탐색하기 전에 심층면담에서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노후준비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각 개인의 노후준비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의미 탐색을 위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을 범주화하고 각 유형별로 그 의미를 도출하고 도출된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른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건강과 건강 상실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이들에게 건강의 의미란, 혈혈단신 혼자 힘으로 이주여성의 삶을 선택하였고 중년의 위치에 선 현재까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미래에도 변함없이 꾸준히 지금처럼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삶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나 자신만을 믿고 지금처럼만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 건강이 갖는 의미인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건강이 곧 미래자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위해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금주나 금연만 잘 해도 충분히 건강해질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장수를 통해 자신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처럼 나 자신만 믿고 가는 삶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자신감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아직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 상실의 의미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 앞에서 건강 상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만약 자신이 건강을 상실하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에 임하겠다고 했다. 즉, 건강이 상실되어 하던 일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상심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 뒤에는 건강 상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열망이 숨겨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강 상실로 인해 타인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가 된다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부담은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절약과 돈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우선 이들에게 절약의 의미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 자신의 친정부모와 같은 삶의 여유를 위한 실천 행위로서의 근검절약에 있었다. 즉,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씬음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보다 여유 있는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로 확인된 것은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천했던 막연한 근검절약을 노후준비와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즉,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진 셈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돈의 의미는 노후에 빈곤하지 않고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와 연결된 관계의 질이며, 삶의 질 향상인 것이

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으며 그로인해 자신의 노후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한 자녀부담은 사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된다면 자녀에게 좀 더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즉, 자녀지원이 끝났어도 자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자녀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셋째,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서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여가의 의미도 출되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들이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그때는 사회가 나서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의 문제에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심만 있다면 노후는 걱정 없을 것으로 여겼다. 즉, 지나온 자기 삶의 믿음을 통해서나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거둬낼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노후의 어려움 역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경제적 여유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마음의 여유로써 불안한 미래 안에서 정서적 위안으로 작용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여가의 의미는 상대적이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여가라는 여유를 갖기에는 사치에 불과하지만, 미래에는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먹고 사는 것에 바빠 여가라는 여유를 즐길 여력이 없지만, 대신 노년에는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중년의 그들은 직장생활에 가정생활, 그리고 자녀양육까지 생각하자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직 여가라는 여유를 즐길 여력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삶의 보상처럼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했던 여가를 노년기에는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했다. 예를 들면, 못 해 본 여행을 즐긴다거나, 지금까지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을 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대부분 현재 시점에

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설령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충분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자신이 좋아하고 해보고 싶던 일을 충분히 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열망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는 더 없이 좋은 여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수입은 예전만 못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여가인 셈이다. 여가는 경제활동과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여가를 즐기면서도 경제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노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노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제적 노후준비야말로 다른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 준비에 비해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적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녀지원은 충분했으면서도 자녀부담을 원치 않는 이들의 노후준비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 론

1. 요약

이 연구는 1990년대 초 활발했던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대거 유입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된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선행연구 중에서 특히,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이 다소 미흡함이 확인(채은희, 박미숙, 2019)된 결과이다. 노후준비에 관한 이들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와 생애사가 활용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특정 사건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김영순 외, 2018: 245)에서 중요한 연구 방법 및 분석의 도구가 되고 있다.

생애사는 이들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미와 성찰 내용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이전에 이들의 시간성에 대한 내러티브 안에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인 경험을 먼저 이해하는데 선행적 탐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다룸에 있어 과거에 대한 반추, 현재의 노력, 미래에 대한 유추와 성찰이라는 시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노후준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장 이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자란 딸은 결혼 후에도 특유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발현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착했던 딸은 결혼 후에도 나이차이 많이 나는 남편에게 순응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또한, 어릴 적 주변으로부터 기대가 많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끝임 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어릴 적 결핍을 신앙을 통해 극복했던 연구참여자는 중년기를 맞은 현재까지 그녀 삶의 의미는 신앙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지극히 평범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결혼 이후 시련과 고난을 통해 어릴 적 경험은 ‘온실 속 화초’, 결혼 이후 삶을 ‘잡초’로 인식할 만큼 상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애 경험은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하는 노후준비에서의 의미해석은 물론, 미래 성찰을 확인하는데 있어 경험적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특히 자녀와의 호적관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되도록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미숙과 김영순, 이진영(2015)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이들의 국적취득 여부가 특히 자녀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다. 또한 이들이 힘들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의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외국인 차별경험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정책이나 처우보다 한국의 정책이나 처우를 보다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국보다는 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함이나 전적으로 신앙에 의지하는 삶은 다소 위험으로 포착되어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의미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후준비의 3가지 유형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범주화하고 각 유형에서 도출된 의미 내용을 확인하였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건강과 건강 상실의 의미가 나타났다. 이들에게 건강의 의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 온 삶의 의미가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결점이 되었다. 즉, 지금까지 나 자신만 믿고 살아온 인생인 만큼, 미래에도 나 자신만 건강하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금주와 금연만으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다음으로 건강 상실의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던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 상실은 피하고 싶은 경험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한 몸을 곧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건강 상실은 불안한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 치료 열심히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열망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노년에 타인 돌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민 없이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요양원 생활을 간접 경험했던 이들은 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을 희망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절약과 돈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우선 절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들은 한정된 수입 안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연한 미래 불안감은 자신의 노후준비 인식과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절약을 통해 자신의 친정부모와 같은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다. 친정부모들 역시 절약을 통해 노년의 여유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 바, 절약하면 자신들도 친정부모와 같이 될 것으로 믿게 된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친정부모의 노후는 걱정이 없다고 했다. 그만큼, 이들 부모의 노후는 제법 잘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돈의 의미는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노년의 기대이며, 지금까지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 인한 자녀부담은 원치 않는 것이 포함된다. 즉, 자녀지원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는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시설에라도 입소하려면 돈의 여유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는 인간의 생애발달 중, 중년기 과업으로서의 생산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에게 돈의 의미는 무조건 절약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쓸데는 쓰는 가치구현의 의미를 지닌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여유와 함께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물론, 필요할 경우 자녀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는 중년기 생애발달과업에서 성취 및 성숙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서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여가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이들은 노년에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게 되려면 우선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사회가 나서서 취약 노인들을 돌보아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서 노인 스스로 고립되지 말고 사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하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외와 외로움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으로 여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직장생활에 가정생활, 그리고 자녀양육이라는 삶의 무게로 인해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심할 경우 여가를 사치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시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여가를 노년에는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가 역시 순수하게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되도록 경제활동과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즉, 이들은 3가지 노후준비 유형 중,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노년기 삶에서도 경제활동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는 개인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

2. 논의 및 제언

한국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정주민들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는 자녀의 기대를 바라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양이, 이채우, 2008). 이에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 역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기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역시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되도록 시설 입소보다, 스스로의 자립을 희망하고 있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나타났다으며, 이는 한국인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같았다(박현식, 최옥자, 2012; 인은영, 김찬우, 2015). 하지만 노후준비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한국인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박창제, 2017).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특이점으로는 노후준비에 관한 국가적 책임이 자녀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됨을 고려하여 이를 걱정하는 부모된 마음이 연구 결과에서 반영되어 나타난 점이다. 이는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 비록 중년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노후준비를 전적으로 국가나 자녀에게 의지하고 있음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확인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미 확인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나누고 유형 안에서 확인된 의미와 함께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얻은 성찰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확인을 토대로 그에 대한 대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노후준비의 각 유형별 의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건강하

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 정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 상실’로 나타난 결과와 같았다(이소정, 2009). 다시 말해, 이들은 건강을 상실하지 않고 오래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 금주와 금연만 잘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앞으로 자신의 건강에 더욱 신경써야함은 물론, 국민 건강보험 제도¹⁰⁾를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질병에 노출된 경험이 없던 이들에게 건강 상실은 회피하고 싶은 경험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건강이 곧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을 상실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서 절망과도 같은 경험이 되지만, 만약의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다짐 뒤에는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되도록 건강을 상실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체적 건강이야말로 노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박은숙, 1997)인 만큼 건강 상실은 피하고 싶은 경험 중 하나임에는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 주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치료에 임하겠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 입소를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경험이나 주변의 간병경험을 통해 열악한 요양원 생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다 질 좋고 서비스 좋은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검절약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미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프더라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10)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음. 건강검진의 종류로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특히 일반건강검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실시한다(국민건강보험, 2019).

것이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처음엔 신체적 노후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D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과 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평소 근검절약을 매우 잘 실천하고 있었는데, 근검절약은 노후준비를 염두에 두고 실천한다기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있을 때 아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함을 인식하지만 그 행위와 연결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한국인 정주민(박창제, 2008)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도 근검절약에 관한 의식적 실천행위가 포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주여성 이들의 생활세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밝힌 바와 같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이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됨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A와 연구참여자 D만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뿐, 연구참여자 B는 빚지는 것을 싫어해 무조건 현금을 선호하는 반면, 연구참여자 C는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E는 여유 자금이 없다보니 매 달 생활이 타이트 한 것도 모자라, 소득의 일정부분을 교회에 현금해야하는 경우에 놓이기도 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이들은 근검절약 외에 구체적인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에도 현재 수준과 비슷한 노후자금 기대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노후에도 지금처럼만 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인 10명 중 1명은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는 상황(보건복지부, 2015)에 놓여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인 정주민들의 경우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나 자녀교육, 노부모 부양과 같은 경제적 부담이 확인 되었으나(인은영, 김찬우, 2015), 이 연구의 참여자인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노부모 부양에서만큼은 비교적 자유로움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지원에는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기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역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노부모 부양 부담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받은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더라도 자기 삶의 무게로 인해 노부모 부양의 여유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친정부모를 돌볼 수 없으니 시부모도 당연히 돌볼 수 없다고 여겼다.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자녀지원에는 아낌이 없으면서 자녀기대는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었다. 즉, 자신들이 자녀기대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부모세대들의 자녀기대 역시 없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 결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친정부모의 노후는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친정부모들은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들 역시 친정부모와 같이 걱정 없이 여유 있는 노후를 희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여유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녀지원 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교회나 주변의 이웃,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 등을 통해 주변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Antonucci(2004)가 'Convoy Model'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이 감정적으로 친밀한 무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공적 노화의 전제조건이 성립된다고 보았을 때,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주배경을 가진 한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 역시 교회나 주변의 이웃을 통해 이주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음이 확인

된 결과와 같았다(박현식, 최옥자, 2012; 박현식, 2013). 그러므로 노년의 소외와 외로움은 개인적 노력으로 적극 해결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라면 사회복지시스템의 활용과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였다.

또한, 소외와 외로움을 관념의 차원에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내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주연과 김태선(2017)의 연구에서도 진로나 일과 같이 인간의 발달적 측면에서 신앙(영성)의 역할이 실제 삶의 의미와 관련됨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에게 신앙은 소외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앙에 의지되는 삶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으로 성지혜(2015)가 자신의 노후를 전적으로 국가나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위험으로 간주하였던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신앙에 의지하는 것 역시 위험의 요소 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들에게 여가의 여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참여자 A만이 월차를 활용해 중국에서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여가 활동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른 연구참여자들 역시 특별한 여가생활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가를 사치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삶에서 여가를 즐기는 여유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후생활기대 중에는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현재에는 여가를 즐길 여력이 되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여가에서도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양상이 포착되어 나타났다. 즉, 여가를 즐기면서 돈도 함께 벌 수 있는 일이 노년기 최고의 기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노후준비의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한 내용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유추한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이다. 이들은 처음엔 막연한 미래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씹씹이를 통제함으로써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막연한 미래 불안감이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됨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유형의 확인이다. 막연한 미래 불안이 아닌, 노후준비라는 인식의 확장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유형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노후준비는 제법 탄탄한 연구 참여자 A는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서적 위안을 얻기를 희망하였으며, 주변의 질병경험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에 신경써야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반면, 신앙생활을 통해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연구참여자 E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좀 더 신경써야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확인하고 여가의 확대를 필요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와 다른 자신의 노년을 상상하였을 때,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노년을 희망하게 되지만, 만약 뜻대로 되지 않을 시 자녀에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고 서비스 좋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씬씀이를 통제하여 경제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함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이질감을 넘어 동질감의 경험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경험된 편견이나 시혜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던 국가정책 등을 통해 이질감을 경험했었다면, 이 연구의 참여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늙어갈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이 경험된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연구의 의미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자녀세대로 이어질 것에 대한 염려이다. 이는 노후준비에 있어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서 당면하는 노인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면, 그것이 자녀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가지원기대와 자녀부담 염려 사이에서 충분히 딜레마로 경험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만 40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2019). 다시 말해, 검진을 통해 질병이 발견될 경우 그에 대한 치료적 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예방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캠페인이나, 비만 관리 프로그램 외에 건강생활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강 프로그램은 지극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녹록치 않은 삶 안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이 없는 이들에게 건강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심코 지나칠 수 있던 건강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후에도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0세 중반인 것에 반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다 생을 맞이할 수 있는 비율이 평균 10년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이(보건복지가부, 2015),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개인이나 가족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치료를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참여자들은 여가를 사치로 여길 만큼 고단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정작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있는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노후준비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여기에서의 노후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단순히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까지 아우르는 고르게 균형 잡힌 교육에 있다. 100세 시대에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기대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실천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근검절약과 그에 따른 자산 관리, 주변의 주요 타자들과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교육지원 등 노후준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고른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힘써야 한다.

박현식과 이선형, 최은희(2010)의 연구에서도 중년의 한국인 정주민들 역시 절약 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다른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노후준비야말로 인간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보

왔을 때(채은희, 2019),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의 크고 작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김미령, 2008)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준비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받아드리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노후준비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 외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었다. 즉, 노후준비가 개인 삶의 질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노후준비교육에서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대신, 그 외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의 강화나 그와 관련된 시설의 확충 및 보완의 문제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개입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노인 돌봄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은 노인문제로 인한 자녀세대의 부담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주여성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사회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실천운동을 하는 연구참여자 D가 더 이상 유리천장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본 국적을 포기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한국국적취득을 서슴지 않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노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주민과 정주민이라는 차별 대신, 동등한 처우를 기대하였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겪게 될 고통도 함께 감수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유나(2015)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의 어머니 됨은 이주배경도 모자라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어려움이 가중된 과정을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 땅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일구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년기에서의 국가개입보다, 자녀양육기에서의 자녀지원 부담을 국가가 덜어준다면 개인차원에서의 노후준비는

더욱 실현 가능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력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녀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이야말로, 부모세대의 노후준비 조건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년을 넘어 노년기에 접어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관심이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국가 정책을 보더라도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에서 이주여성들의 주기가 결혼준비기에서 자녀교육기까지만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즉,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주여성들의 중년기와 노년기 개입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발견이다. 이 또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 나아가야하는 우리 사회의 중점 과제를 확인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E의 말처럼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이주민과 정주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하기보다, 초고령 사회에 합류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발견하여 채우고, 남는 부분은 다시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후준비라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합당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연구참여자 D는 다음과 같은 말로 질적연구자인 이 연구자의 사명감을 고취시켜주었다.

“예를 들어서 노후대책 같은 거. 여기에서 실태조사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맞는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은 정책이 나오잖아요. 다문화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나오고 제대로 된 논문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뭉뚱그리는 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책 제안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거.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D-2).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 역시 언어장벽이 없는데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주배경이 다를 뿐, 우리와 같은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민족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한국인 정주민들과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의 ‘이주배경’이라는 프레임은 한국의 정주민들보다 미래를 조금 더 불안하게 받아드리는 시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정주민들보다 노후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통계청, 2019) 느끼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내러티브 안에는 이주민으로서의 차별감을 경험하면서도 한국 사회 안에서 정주민들과 함께 늙어가는 주체로서의 동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정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와 같이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된 후속연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강향미, 구종희(2014). 한국의 문화: 베이비부머의 노후 공동체의식과 사회참여 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문화, 74(-), 355-37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민건강보험(2019). www.nhis.or.kr. 검색자료.
- 김교성,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97-320.
-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병오(2003). 칼 융과 중년의 자기실현. 백석저널, 3(0), 189-207.
- 김수정, 김정석(2011).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 성과 직업력의 효과. 가족과 문화, 23(3), 63-91.
- 김애순, 윤진(1993). 중년기 위기감(1). 한국노년학, 13(2), 1-14.
- 김양이,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김연화, 황종규(2017). 세대별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2), 189-204.
- 김영로(2016). 서울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의 이주와 역량강화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운. 서울: 창지사.
- 김영순, 조영철, 김정희, 정지현, 박봉수, 오영훈, 손영화, 박종도, 이미정, 정경희, 김기화, 박미숙, 오세경, 임지혜, 황해영(2019).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경기도: 북코리아.
- 김영순, 황해영, 장연연(2020). 중국동북지역 소수민족 문화이해. 경기도: 북코리아.

- 김영애(2011). 통합적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옥남, 김영화(2009).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9(1), 55-80.
- 김용덕(2004).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창솔.
- 김윤정, 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지, 24, 197-213.
- 김정희, 박지영(2015).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10-222.
- 김정희(2018). 노인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통합적 효의 관점에서. 효학연구, 0(27), 133-150.
- 김철원, 윤혜진(2009). 관광현상 규명을 위한 질적연구방법의 고찰과 적용. 관광학연구, 33(1), 11-30.
-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2010).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9-54.
- 남기민, 최화강(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5(13), 347-371.
- 다누리(2020). www.liveinkorea.kr. 자료 검색.
- 문미, 송선희(2014).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 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7), 379-387.
- 박미숙, 김영순, 이진영(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국적 불 취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9(2), 138-159.
- 박수선, 류한수(2009).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민자 여성의 스트레스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6(2), 25-47.
- 박영란, 정진주, 황정임, 권문일, 김창엽, 석재은, 엄규숙, 유태균, 정인숙, 황수경(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은숙(1997).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6(2), 238-251.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박창제(2017).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향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8년, 2002년, 2009년, 2015년 비교. 사회복지정책, 44(3), 163-187.
- 박현식, 이선형, 최은희(2010).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

- 한 탐색적 연구: 거주 지역 고령화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85-315.
- 박현식, 최옥자(2012). 독일교민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67-487.
- 박현식(2013).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02-312.
- 박현선(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중단매개효과분석: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7, 353-376.
- 방영숙, 김준경(2016). 베이비붐세대의 영적 안녕이 셀프임파워먼트와 정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정책, 27(-), 11-35.
- 배경희(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 33-54.
-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3), 1107-1122.
-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법무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 변진숙, 권찬호(2016). 2차 베이비부머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분석: 386·X세대(코호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73-199.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사회연구원.
- 석상훈,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오지연, 신혜리, 김균희(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II: 제3차(2010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설진배, 김소희, 송은희(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아태연구, 20(3), 229-260.
- 성영애(2018). 결혼과 자녀수고 구분한 가구유형별 노후준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가구주연령이 35~44세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FP조사, 11(2), 129-153.
- 성지혜(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8(1), 83-115.
- 손현승(2017). 베이비 붐 세대의 미래 이야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기영(2018).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3(1), 469-503.
- 송선희(2016).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49-56.
- 신근영(2016).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를 매개효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0(-), 65-91.
- 신주연, 김태선(2017). 진로발달과 영성: 국내외 연구 현황과 진로상담의 실제적 적용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257-280.
- 신학진(2012).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2), 453-469.
- 심의경, 박연진(2017).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본 중년기 노후준비도 결정요인. 노인복지연구, 72(2), 299-322.
- 안형숙(2016). 통합학습 유아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재혁, 김경렬(2017). 중년층의 여가스포츠참여유형이 가족건강성 및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2), 393-405.
- 엄병섭, 김종선, 박용순, 류영걸(1996). 조선속담집. 서울: 한국문화사.
- 여성가족부(2019). www.mogef.go.kr. 검색.
- 염주희, 김세진(2013). 노후준비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 및 사회참여 준비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4(-), 21-31.
- 염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 119-140.
- 오명옥, 고현정, 박청자(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1), 17-31.
- 오창우, 이현주(2011). TV가 재현하는 다문화 현실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재귀적 해독. 언론과학연구, 11(3), 147-180.
- 유광수(2002).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648-667.
- 유서현(2015). 산림여가시설 이용특성과 이용만족도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사회적·신체적 건강 중심으로. 한국복지실천학회지, 7(2), 136-152.
- 유인순, 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 공단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245-262.
- 유철인(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397-419.
- 윤인진, 이진복(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한국사회, 7(1), 41-92.
- 윤혜미(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85-108.
- 이경준, 송희경(2016).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757-769.
- 이남, 한정란(2014).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3), 374-399.
- 이남, 한정란(2017).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경험: 직업이 있는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7(1), 151-171.
- 이미영(2017). 중년층의 노후준비 감사성향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재외동포 비교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91-304.
- 이소정(2009). 저소득 가구의 소비패턴과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 사회보장연구, 25(3), 317-336.
-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24(1), 31-70.
- 이유나(2015). 다문화가정 여성 결혼이민자의 '어머니 됨'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10(4), 5-31.
- 이은하(2013). 나의 친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A의 결혼과 일 이야기. 다문화교육연구, 6(3), 109-129.
- 이정은(2018). 재한 중국동포의 인정투쟁과 차별의 재생산. 디아스포라연구, 12(1), 145-173.
-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이정훈, 이한우, 이옥자(2014). 노인의 공식·비공식적 생산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6(12), 287-305.
- 이정희(2012).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사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5(-), 233-253.
- 이지용(2011). 중국 소수민족 문제 현황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이혜자(2006).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변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훈정(2004). 내러티브의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0(1), 151-170.
- 인은영, 김찬우(2015). 중간소득 이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

- 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25-52.
- 임경수(2005). 인생의 봄과 가을: 중년의 심리이해와 분석. 서울: 학지사.
- 장숙량(2015). 한국 노인의 만성질환과 활동제한. 보건복지포럼, 통권(225), 6-17.
- 장휘숙(2006). 성인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귀연, 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12.
-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8-103.
- 정경희(2016). 대안학교장의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과 표출양식에 관한 생애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상우, 최보선(201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7(3), 101-124.
- 정순돌, 박애리(2016).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이 중년여성의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8(2), 41-63.
- 정은경, 김종근(2017).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과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501-512.
- 제정임(2013). 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황혼길 서러워라』. 경기도: 도서출판 오월의 봄.
- 주예심(2014). 중년층의 노후준비의식과 퇴직태도의 관계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1), 35-56.
- 중앙자살예방센터(2019). 2019년 자살예방백서. 서울: 중앙자살예방센터.
- 중앙치매센터(2019). 2018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 채은희(2019). 선행연구의 주제어 분석을 통해 본 노후준비의 의미. 인문사회21, 10(5), 355-367.
- 채은희, 박미숙(2019).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연구, 8(1), 203-225.
- 최금해(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신(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류인류학연구, 2(2), 1-22.
- 최영준(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적 접근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3), 353-378.
- 최정호(2019). 인천지역 다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인천시 다문화정책, 전환과

- 준비. 2019-2학기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특강 자료.
- 최혜경(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 통계청(2020). www.kosis.kr. 자료 검색.
- 한국주택금융공사(2019). www.hf.go.kr. 자료 검색.
- 황성호, 이명숙, 이성국(2011). 농촌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건강행태와 건강상태. *농촌의학지역보건*, 36(4), 207-217.
- 허은진(2017).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GRI연구논총*, 19(2), 119-150.
- 홍세영, 이해영(2018). 조선족 1세대의 문화적응 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융합인문학*, 6(1), 97-130.
- 홍영준, 이정훈(2014).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91-110.
- 홍현방(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황혜영(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M., Li, Y., Bechhofer, F., McCronse, D., & Stewart, R. (2000).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Ageing and Society*, 20(4), 445-466.
- Antonucci, T., Akiyama, H. & Takahashi, K. (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53-370.
- Borland, D. C. (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Vol.6.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8). Stories to live by: Narrative understandings of school reform. *Curriculum, inquiry*, 28(2), 149-164.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_Bass.
- Clandinin, D. J. & Rosiek, J. (2007). Mapping a landscape of narrative inquiry: Borderland spaces and tensions. In D. J.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pp.35-7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landinin, D. J. (2012).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 내러

- 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강현석, 소경희, 박민정, 박세원, 박창언, 염지숙, 이근호, 장사형, 조덕주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2016).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역: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파주시: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16).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파주: 교육과학사.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9). *Shaping a professional identity: Stories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6). Narrative inquiry. In J. Green, G. Camilli, & P. Elnore (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 research* (3rd ed.) (pp.477-8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 Creswell, J. W. (2011).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3판)(김영숙, 류성림, 박관우, 성용구, 성장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09년 출판).
- Crosnoe. R. & Elder, G.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Downey, C. A., & Clandinin, D. J. (2010). Narrative inquiry as reflective practice: Tensions and possibilities. In N. Lyons (Ed.), *Handbook of reflection and reflective inquiry: Mapping a way of knowing for professional reflective practice* (pp.285-397). Dordrecht: Springer.
- Dukes, S. (1984). Phenomen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zzy, D. (2002). Data analysis during data collection.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60-79.
- Glaser, B. G.,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Inc.
- Gudmundsdottir, S. (1995). 'The narrative natur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 McEwan, K. Egan (eds.) *Narrative in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David Mckay.
- Huber, J., Murphy, M. S., & Clandinin, D. J. (2011). *Places of curriculum making: Narrative inquiries into children's lives in motion*. London: Emerald.
- Jacques, E. (1967). *The mid-life crisis*. In R. Owen(Ed.), *Middle age*. London: BBC.
- Jung, C. G. (1966). *Two essays on analytic psychology*. In *Collected works* (Vol. 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Behavioral publications, New York.
- Kübler-Ross, E. (1975).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evison, D. J., Darrow, C. N., Klein, M. H.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a men`s life*. New York: Altred Knopf, Inc.
- Lopez, B. (1990). *Crow and weasel*. San Francisco: North Point Press.
- Manen, M.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신경림, 안규남 역). 서울: 동녘.(원저 1990년 출판).
- Maria-Eugenia, Prieto-Flores, Antonio Moreno-Jiménez, Gloria Fernandez-Mayoralas, Femina Rojo-Perez, & Maria João Forjaz. (2012).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domains in subjective health in old a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6(1), 27-39.
- Maxwell, J. (2004). Causal explanation, qualitative research, and scientific inquiry in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33(2), 3-11.
- Morgan, L. A. & Eckert, J. K. (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Implication for polic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6(2), 19-34.
- Nichols. M. P. (2015). Nichols의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 제6판(김영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OECD (2018).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 Okri, B. (1997). *A way of being free*. London: Phoenix House.
- Papalia, D. E., & Olds, S. W. (1998). *Human development(7th ed.)*. New York: McGraw-Hill.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 Publications, inc.
- Pearlin, L. I. (2013).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into the stress proces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325–340.
- Ricoeur, P. (1981). Narrative time. In W. J. T. Mitchell(Eds.) *On narra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CA: Sage.
- Roberts, B. (2002). *Biographical research*.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Seidman, L. J. (2006). Neuropsychology functioning in people with ADHD across the liespa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4), 466–485.
- Sheehy, G. (1976). *Passages;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Dutton. Harper Collins.
- Webster, L. & Mertova, P. (2017).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박순용 역). 서울: 학지사.
- Woods, P. (1993). *Critical Events in Teaching and Learning*, Basingstoke, UK: Falmer Press.
- Yoder–Wise, P. S., Kowalski, K. (2003). The power of storytelling, *Nursing Outlook*, 51(–), 37–42.
- Young, M. (2005). *Pimatisiwin: Walking in good way, A narrative inquiry into language as identity*. Winnipeg: Pemmican.

ABSTRACT

Life History Narrative on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a Middle-aged Korean-Chinese Migrant Woman

Eunhie Chae

Ph.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 Jooyeon Shin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21

The study began with the interest of a migrant woman from China who is now in her middle age, preparing for her retirement in the face of a transition from ‘aged society’ to ‘super-aged society’ In the preceding stud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migrant women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and recognized as the necessity of this study. For the study, five middle-aged Korean-Chinese migrant women aged between 40 and 60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they wanted to use their life-history narrative inquiry to empirically deal with the meaning and reflection of their preparation for retirement.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problems were set up. First, what is their life experience.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Retirement preparation.

In order to emphasize the need for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modern society were first considered in terms of physical, economic,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such as loss of health, poverty in old age, alienation and loneliness, and linked them to the need for preparation for retirement. Also, we defined middle age and looked at the tasks to be accomplished and overcome in terms of life development. It also considered life cycle policy tasks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for migrant women.

Based on participants' life experiences, the study was divided into 'Children', 'Migration' and 'Middle-aged'. Life experienc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historical, cultural, and social meanings of each research participant in the context of life through narratives centered on time. In addition, understanding of life experiences has become a tool for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preparation of old age and reflection to be addressed in [Research Question 2].

The study participants of middle-aged migrant women who were ethnic Koreans in China showed the meaning of preparation for their retirement as follows. First, physical preparation for old age has been shown to mean health and loss of health. Second, the meaning of saving and money appeared in the preparation for economic retirement. Third, alienation, loneliness and leisure appeared in preparation for social and emotional retirement.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y recognized only their health as an important asset for the future. However, no special health care points were detected. For those who haven't lost their health so far, it has become an experience they want to avoid. However, in case of emergency, the willingness to enter the facility was confirmed, without recourse to the care of the child. They were frugal to prepare for future instability and expected more

relaxed old age through their parents' old age. In addition, it emphasized the need for personal efforts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demanded the attention of society in inevitable circumstances. Leisure was a luxury for them, but they hoped to enjoy leisure in their old age.

Looking at the content of the reflection on the preparation of old age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it is as follows. First, it is an extension of the perception of old age preparation. The vague future anxiety has been extended to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Second, they checked their own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is is a confirmation of his willingness to identify and improve his or her lack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ird, it is an experience of homogeneity beyond the sense of heterogeneity. They overcame a sense of alienation as migrant women and experienced a sense of homogeneity as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Fourth, they feared that the government'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problems of the elderly would lead to the burden of the children's generation. For this reason, preparation for old age has been cited as a task to be overcome by individual efforts, and support for children is high, but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are lo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practice of health interest. This is because those who regard their health as property do not care about their health. Second, the provision of education programs on preparation for old age. Through education, awareness should be expanded not only to prepare for economic retirement but also to prepare for other retirement. Third, it is a demand of social interest in preparation for old age. Rather than expecting only government suppor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lderly care system that can

fully utilize social resources. Fourth, listen to the needs of migrant women and actively reflect this in society. The life cycle policy tasks for migrant women also did not include middle and old 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olicy task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These suggestions are important in that they are an opportunity for members of our society, including migrants, to think about ways to grow old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would take the disadvantages as well if it treated the migrants equally without distinguishing them. Therefore, it emphasized the need for follow-up research in order to hel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nature of looking at old age through the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not only for migrant women but also for all members of Korea. Through these efforts, we hope that members of our society will be able to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Keywords: Middle-age, Korean-Chinese Migrant women, Preparing for physical retirement,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Preparation for social and emotional retirement, Life-history, Narratives.